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THE ISSUE OF THE MESSIANIC KINGDOM AND MISSION IN ISLAMIC COUNTRIES**

written by

**HYUNG NAM CHU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Jin Ki Hwang

---

Seyoon Kim

November 15 , 2008

**THE MESSIANIC KINGDOM AND MISSION IN  
ISLAMIC COUNTRIES**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HYUNG NAM CHUNG**

DECEMBER 2008

# 메시아 왕국 이슈와 이슬람권 선교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황진기 교수

정 형 남

2008년 12월

Abstract  
The Messianic Kingdom  
and Mission in Islamic Countries

Hyung NamChung

Doctor of Ministry

200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f Israel in 1948 the even to fulfillment of the prophecy of the Bible?" This question was posed to me, the new pastor of a Korean Congregation, and to the new pastor of an Arabic Congregation (AC), of the National Evangelical Church (NEC) by a member of the AC on the occasion of a welcoming meeting for the two new pastors in September 1989. The new pastor of the AC was in a hurry to answer him by saying "yes." And the questioner began to resist him by saying that he could not serve the Lord to get her with his new pastor who is pro-Israel with a dispensational theology. Since then, I began to consider very seriously the issue of dispensational theology and its mission activities in the Middle East. I am sure that the 9/11 terrorism attack was due to the pro-Israel policy of the USA, based on a dispensational theology. And I am sure that mission activities based on dispensational theology may contribute to the conflict of the Middle East instead of contributing to peace.

This study is composed of seven chapters. Following my introduction, in chapter two, I explain the significance for Muslims of two Islamic mosques built at the Jewish Temple area in Jerusalem. Chapter three survey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ission activities based on a dispensational theology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building the Jewish temple, replacing the two Islamic mosques in Jerusalem.

Chapter four discusses the Messianic Kingdom of the book of Revelation and

the Gospel of John, I explore the various understandings of the Messianic Kingdom/Millennium Kingdom based on Revelation 20. I argue from Revelation and the Gospel of John that the Reformed understanding of the Messianic Kingdom is correct. The Messianic Kingdom has already begun with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and is to end with his Second Coming.

Chapter five examines the Messianic Kingdom from the Synoptic Gospels and Acts. Chapter six is on the Messianic Kingdom in the Pauline epistles. Studies of the Synoptic Gospels, Acts, and the Pauline epistles confirm that the Reformed understanding of the Messianic Kingdom is correct.

In conclusion, I restate the problems of mission activities based on dispensational theology and suggest that instead mission activities based on Reformed theology should be carried out in Islamic countries as,

Theological Mentors: Jin Ki Hwang, Ph.D

Seyoon Kim, Ph.D

## 감사의 글

아랍권 선교사로서 세대주의 신학과 그에 기초한 선교운동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되면서 이에 관한 논문을 쓰고 싶었다. 김세윤 교수께서 필자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성경의 저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참 이스라엘”을 밝히는 가운데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마침내, 황진기 지도 교수의 격려와 친절하고 섬세한 지도 덕분에 “메시아 왕국 이슈와 이슬람권 선교”라는 본 논문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김세윤 교수께서는 부심으로서 본 논문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도하셨다. 두 분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본 논문의 내용을 필자의 설교와 강의 시간을 통하여 접하고 필자를 더욱 더 분발하게 하였던 여러 교우들과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들은 요르단 주재 이라크인 교회 교우들과 요르단 복음주의 신학교(JETS)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의 학생들과 중동선교회 등의 선교후보생들이다. 그리고 중동선교회 소식지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소개된 필자의 여러 글들을 읽고 격려의 글을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필자에게 교수직을 감당하도록 하여 준 JETS(Imad Shehadeh 총장)과 ACTS(림택권/ 고세진 총장)와 ACTS의 중동선교연구원의 필라델피아 이사회(이사장 김만우 목사)와 워싱턴 이사회(이사장 이원상 목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필자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안식년을 맞이하여 풀러신학교에서 유학의 기회를 갖게 하였던 파송 교회인 천안장로교회(담임 이정호 목사)와 여러 협력교회들과 중동선교회(이사장 두상달)와 양가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귀히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2008년 12월 정형남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1
제 2 절 연구 방법, 개요, 한계 .....	3
제 2 장 예루살렘 중심적 이슬람권 .....	5
제 1 절 무함마드와 예루살렘 .....	6
1. 무함마드의 예루살렘으로의 밤 여행 .....	6
2. 무함마드의 승천 지점으로서 예루살렘 .....	7
3. 무함마드의 기도의 첫 방향으로서 예루살렘 .....	8
제 2 절 이슬람과 예루살렘 .....	10
1. 제 2 대 칼리파 오마르와 예루살렘 .....	10
2. 예루살렘의 성전 터의 바위 돔 .....	11
3. 예루살렘의 성전 터의 알아끄사 사원 .....	12
4. 예루살렘과 이슬람의 중세역사 .....	12
5. 예루살렘과 19,20세기 이슬람 역사 .....	13
제 3 장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의 여러 운동들 .....	17
제 1 절 유럽과 미국의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 운동들 .....	17
1. Ebenezer Emergency Fund(EEF) .....	17
2. The Voices United for Israel .....	18
3. Jerusalem Prayer Team(JPT) .....	19
4. Christian Coalition for U.S.A .....	20
5. Christians United for Israel (CUFI) .....	21
6. 미국 남침례(SBC) 총회 .....	21
7. 미국 대통령들의 친이스라엘 정책 .....	21

제 2 절 한국교회의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의 선교운동들 .....	23
1. 실크로드 예수 행진 2000 .....	23
2. 예루살렘 평화 행진 .....	24
가. 신학적 문제점 .....	24
나. 대표성의 문제 .....	25
3. 아프가니스탄 2006 평화축제 .....	26
4. 복음의 서진 운동 .....	27
가. 바울을 통한 복음진전의 방향들 .....	27
(1) 복음의 동진 .....	27
(2) 복음의 북진 .....	32
(3) 복음의 서진 .....	32
나. 그 밖의 제자들을 통한 복음의 동서남북진 .....	33
다. 세계 교회들 통한 복음의 동서남북진 .....	34
5. 백투예루살렘 운동 .....	34
가. 예루살렘과 땅끝 .....	35
나. 예루살렘과 예수의 재림 장소 .....	35
다.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 .....	36
라. 이스라엘과 성경예언 .....	38
(1) 유다 왕국의 설립 .....	38
(2)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	38
(3) 이스라엘의 회복 .....	38
(4) 이스라엘의 멸망 .....	39
(5) 1948 이스라엘 건국 .....	39
제 4 장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메시아 왕국 .....	41
제 1 절 요한계시록의 메시아 왕국 .....	41
1. 문자적 이해 .....	42
가. 역사적 전천년설 .....	43



나. 세대주의적 전 천년설 .....	44
2. 상징적 해석 .....	49
가.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 .....	50
나. 무천년설(Amillennialism) .....	51
(1)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 .....	52
(2) 사단 결박의 의의 .....	53
(3) 천년의 의미 .....	53
(4) 보좌에 앉은 자들/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	54
(5)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	59
(6)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	60
(7)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	64
제 2 절 요한복음의 메시아 왕국 .....	66
1. 게바 .....	67
2. 참 이스라엘 .....	67
3. 인자 .....	69
4.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	71
가. 영적 부활 .....	72
나. 육체적 부활 .....	75
제 3 절 요약 및 결론 .....	77
제 5 장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의 메시아 왕국 .....	79
제 1 절 다윗의 등극식 .....	79
1. 첫 번째 등극식 .....	79
2. 두 번째 등극식 .....	80
3. 세 번째 등극식 .....	81
4. 다윗의 등극시와 메시아 왕국 예언 .....	81
제 2 절 예수의 등극식 .....	83
1. 예수의 첫 번째 등극식 .....	83

가. 예수의 세례식 .....	84
나. 하늘이 열리는 사건 .....	84
다. 성령이 예수 위에 내리는 사건 .....	85
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사건 .....	86
2. 예수의 두 번째 등극식 .....	87
가. 제자들의 신앙고백 사건과 변화산 사건 .....	88
나. 두 번째 등극식과 모세 .....	89
다. 두 번째 등극식과 엘리야 .....	92
3. 예수의 세 번째 등극식 .....	92
가. 마태복음의 증거 .....	94
나. 마가복음의 증거 .....	95
다. 누가복음의 증거 .....	95
라. 사도행전의 증거 .....	95
 제 6 장 바울 서신의 메시아 왕국 .....	101
제 1 절 예수 그리스도 .....	101
제 2 절 바울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극식과 통치 .....	102
제 3 절 하나님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	103
1. 하나님의 이스라엘(갈6:16) .....	103
2. 온 이스라엘(로마서 11:26) .....	106
가. 장차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백성 전체로서 유대인들 .....	107
나.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완성 시점에 그 백성이 될 유대인들 .....	108
다.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중 유대인들 전체 .....	109
라.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전체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	110
(1) 유대인을 위한 전무후무한 구원의 시대 .....	110
(2) “이방인의 총만한 수”의 반대 짝? .....	118
제 4 절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	127
제 5 절 부활의 첫 열매와 둘째 열매들 .....	128

제 6 절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	131
제 7 장 결론 .....	135
참고문헌 .....	140
Vita .....	145

## 제 1 장 서 론

###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989년 9월, 필자가 첫 선교지인 바레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참석한 한 아랍교회의 모임에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과 1967년에 이스라엘이 동 예루살렘을 요르단으로부터 탈환한 사건은 각각 성경적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친 이스라엘적이고 예루살렘 중심적인 신학체계 아래의 세대주의적 목회자와 함께 교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요르단의 한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세대주의 신학의 문제점들을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었다. 자신의 저서 *구약 개론*으로 한국교회에 알려진 달라스 신학교의 유진 메릴 교수가 1997년 방문교수로서 이 신학교에 왔다. 필자와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그는 이슬람권에서는 세대주의 보다는 개혁주의 언약신학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점과 그 신학에 기초한 사역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9.11테러가 일어났을 때, 필자는 몇몇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그 때 필자는 미국이 테러를 당하게 된 것은 성경의 이스라엘과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는 가운데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는 나아가 미국교회 안의 세대주의 때문이라는 대화로 발전되었다. 그 중 한 사람은 세대주의 신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그의 동료들과 함께 세대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세대주의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은 팔레스타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대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필자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그 신학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 아랍 신학교의 교수에 따르면, 9.11 테러 사태 직후 아랍교회 몇몇 목회자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앞장서서 가르쳤던 어느 미국인 교수들 초청하여 그의 신학에 대한 문제들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그 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모임이 끝나고 난 직후, “미국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복 주고 계시지 않는가? 미국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주시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징표가 아니겠는가?”라는 여운 있는 말을 남겼다. 한국의 ACTS에서 유학하고 있던 수단 출신의 어느 목사는 아랍권 복음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앞잡이들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의 전쟁을 개시하여 사담 후세인의 권좌를 무너뜨렸다.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에서 자살폭탄테러를 시행했던 자살폭탄테러리스트들의 유가족에게 큰 액수의 위자료를 전달하였던 것은 공공연한 일이었다. 부시는 사담 후세인으로 대표되는 반 이스라엘 세력을 진압하여 나름대로 중동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였음이 분명하다. 한 때 어떤 아랍 TV는 바그다드의 어느 개신교회당의 사진과 이스라엘의 국기와 아리엘 샤론을 합성 사진으로 만들어 방영하는 가운데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메케인이 극단주의적 세대주의자인 존 해기 목사의 지지를 받아 오다가 갑자기 그와의 결별을 선언을 하였다(2003년 5월 22일). 그것은 해기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국을 위하여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이 화근이 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이 존 해기 목사들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목사들의 친이스라엘적 설교들은 지금도 위성 TV를 통해서 아랍권으로 거침없이 방영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도 세대주의 신학에 기초한 선교운동은 어느 때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백투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BTJ)과 “복음의 서진 운동” 등이다. 그러나 친이스라엘적 신학 바탕 위에 펼쳐지는 선교운동들은 중동/이슬람권에 평화의 복음을 심기보다는 분쟁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성경에

1) Online at <http://www.cnn.com/2008/POLITICS/05/22/mccain.hagee/>

대한 바른 이해에 입각한 선교운동이 절실하다.

## 제2절 연구 방법과 개요

이 연구는 세대주의적 선교운동이 근거로 제시하는 여러 성경본문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따라서 세대주의적 해석의 오류와 그 해석에 기초한 세계 선교운동과 평화운동의 악영향을 밝히는데 논문의 상당부분을 할애할 것이다.

제 2 장에서는 이슬람권에서 예루살렘이 가지는 의미들 조명하고자 한다.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 세워진 이슬람의 두 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예루살렘 중심의 세대주의적 선교운동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사건을 성경 예언 성취적 사건이라고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5, 6 장은 각각 메시아 왕국 이슈에 관한 것이다. 제 4 장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메시아 왕국이다. 먼저, 요한계시록 20 장에 기초를 둔 이른바 천년왕국/메시아 왕국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을 살펴본다.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인들의 뿌리가 되고 있는 세대주의적 천천년설에 근거한 천년왕국/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해가 그릇됨을 밝힌다. 그리고 천년왕국/메시아 왕국은 곧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그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이해, 즉 무천년설적/개혁주의적 이해가 옳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무천년설/개혁주의적 이해가 옳다는 사실을 밝힌다. 제 5 장은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의 메시아 왕국이고, 제 6 장은 바울서신의 메시아 왕국이다. 제 5, 6 장에서도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무천년설 이해가 옳다는 사실을 각각 밝힌다.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슈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공관복음과 사도행전, 바울서신만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메시아의 또 하나의 과업인 메시아 성전 이슈들 부록으로 쓰고 싶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제 7 장에서는 연구들 요약하고 세대주의적 해석을 탈피한 새 예루살렘 중심적

선교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 2 장

### 예루살렘 중심적 이슬람권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는 이슬람의 태동지이다. 지금도 13억의 이슬람교도들은 매일 메카를 향하여 다섯 번씩 예배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슬람권<sup>2)</sup>은 메카 중심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슬람권은 예루살렘 중심적이다. 이것은 오늘의 중동평화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자 세대주의적 선교운동의 아킬레스건이 된다. 본 장에서는 무함마드 당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이슬람권이 예루살렘에 부여하는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2) 이슬람 국가는 총 58개국이다. 58개 국가를 크게 두 개의 언어권으로 구별하여 보면, 23개의 아랍어권과 35개의 비아랍어권이다.

아랍어권 23개 이슬람 국가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카타르(카타르) (2) 레바논 (3) 리비아, (4) 모로코, (5) 모리타니아, (6) 바흐레인(바레인), (7) 사우디 아라비아, (8) 소말리아, (9) 수단, (10) 시리아, (11) 아랍 에미리트, (12) 알제리, (13) 예멘, (14) 오만, (15) 요르단, (16) 이집트, (17) 이라크, (18) 지부티(Djibouti), (19) 쿠웨이트, (20) 튀니지아, (21) 팔레스타인, (22) 코모로(Comoroes), (23) 에리트리아. (23) 에리트리아를 제외한 22개국을 아랍연맹(아랍국가들로 구성된 연합기구, 1944년 창설)이라 한다. 이슬람 연맹은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일이 되기 전에 각각 가입함으로써 22개국이었다가 통일됨에 따라 잠시 동안 연맹 가입국이 총 21개국으로 줄었다가, (22) 코모로가 가입함으로써 다시 22개국이 되었다.

비아랍어권 35개 이슬람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1) 가봉, (2) 감비아, (3) 기니아, (4) 기니아 비사우, (5) 나이지리아, (6) 니제르, (7) 말디브, (8) 말레이시아, (9) 말라위, (10) 말리, (11) 모잠비크, (12) 방글라데쉬, (13) 베넌, (14) 부르나이, (15) 세네갈, (16) 세라리온, (17) 아이보리코스트, (18) 아프카니스탄, (19) 알바니아, (20) 이디오피아, (21) 우간다, (22) 이란, (23) 인도네시아, (24) 차드, (25) 카메룬, (26) 터키, (27) 탄자니아, (28) 토고, (29) 파키스탄, 그리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6국인 31) 우즈베키스탄, (32) 카자흐스탄, (33) 키르기스탄, (34) 타지크스탄, (35) 투르크메니스탄.

위 29개국 중에서 7개국[(9) 말라위, (11) 모잠비크, (17) 아이보리코스트, (19) 알바니아, (20) 이디오피아, (27) 탄자니아]을 제외한 22개국과 23개의 아랍어권 국가들이 합한 45개 국가들이 이슬람국가 정상회의 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를 창설하였다 (1971년).



## 제1절 무함마드와 예루살렘

무함마드는 소년 시절에 그의 삼촌을 따라 카라반의 일행이 되어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다녀왔다. 그는 시리아에서 기독교 이단 중의 하나인 네스토리우스 교파<sup>3)</sup>의 사제들 만났다. 그 사제는 소년의 어깨에 있는 모반(birth mark)을 보고 그의 삼촌에게 그의 조카가 마지막 예언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sup>4)</sup> 성인이 되어 그는 카라반을 위해 일하는 직업을 얻었고 승진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카라반의 리더가 되었다.<sup>5)</sup> 그는 카라반을 이끌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예멘이나 시리아까지 다녀오곤 하였다. 그 시절 예루살렘도 다녀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가 이슬람을 태동(주후 610년)시킨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를 갖지 못했음이 분명하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카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방문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그의 예루살렘 방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 1. 무함마드의 예루살렘으로의 밤 여행

무함마드의 예루살렘 방문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이 있다. 다름 아닌 알라(Allah)가 그에게 밤하늘 여행을 시켜주었다는 것이다. 아랍어로 이 여행을 알리스라(al isra)라고 하며, 이에 관련한 세부 내용들이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sup>7)</sup>에 기록되어 있다. 하디스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

3) 지금도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란 등에는 네스토리우스 교파에 속하는 자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주로 앗수르인들이다. 필자가 섬기고 있는 이라크인 교회 성도들 중에도 앗수르인들이 많다.

4) Mark A. Gabriel, *기독교 vs 이슬람(Islam and the Jews)*, 김명신 역 (서울: 통크, 2005), 99.

5) Ibid., 99.

6) 무함마드는 610년 메카에서 이슬람을 창시한지 약 13년 후인 622년에 북쪽으로 351 km 떨어진 메디나로 이주하였다. 그는 8년 후 630년에 메카를 탈환하였으며, 632년 6월 8일 메카에서 죽었다; Bernad Lewis, *중동의 역사(The Middle East)*, 이희수 역 (서울: 까치, 1995), 57-58.

7)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 코란에 버금가는 권위로 간주되며 이슬람 역사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Chawkat Mocucarry,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Faith to Faith - Christianity & Islam in Dialogue)*, 한국이슬람연구소 역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3), 70-71.

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만나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의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코란17:1에 기록되어 있다.

알라의 종을 밤중에 알하람 사원에서 알아끄사 사원으로 밤하늘 여행을 시킨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곳은 알라가 축복을 내린 이웃으로 알라의 일부 표적들을 보여주고자 함이라. 실로 알라는 들으시며 지켜보고 계시니라.<sup>8)</sup>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언급하고 있는 “알아끄사 사원”이 곧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 세워진 “알아끄사 사원”이라고 믿고 있다. 알아끄사 사원이라는 말은 가장 멀리 있는 사원이라는 뜻이다.<sup>9)</sup> 물론, 무함마드가 밤의 여행을 하였을 당시 그 성전 터에는 유대인의 성전이 훼파되고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코란 17:1에 의하면, 알라가 무함마드를 예루살렘까지 기적적인 여행을 시켜 주어 그 성전 터 위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였다. 또한 하디스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그 사원에서 알라께 예배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의 알아끄사 사원에서 알라가 표적들을 보여주었다고 은근히 주장하는 가운데,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 표적들이 무엇이였을까 궁금히 여기도록 만든다.

## 2. 무함마드의 승천 지점으로서 예루살렘

무함마드는 자신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방문하여 알라를 두 번씩이나 만나 보았다고 주장하였다(코란 53:8-15). 대부분의 코란 주석가들은 코란 53:8-15의 사건을 코란 17장 1절의 사건과 하나로 묶는다.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예루살렘의 알아끄사 사원을 거쳐 천국까지 여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의 여행을 아랍어로 알미으라즈(al mi'raj)라고 한다. 하디스에 따르면,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왔던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선지자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 보았다고 한다.<sup>10)</sup>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력 7월 27일을 무함

8) 최영길,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사우디아라비아: 파아드 국왕 꾸란 출판청, 1999) 502, 필자가 수정 번역함.

9) “알아끄사”라는 말은 아랍어로 정관사 “알”과 비교급 형용사 “더 멀다”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랍어에서 최상급이 따로 없고 비교급 앞에 정관사 ‘알’이 사용되어 최상급의 뜻을 지닌다.

10) 무함마드는 첫 번째 하늘에서는 아담 및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보았으며, 두 번째 하늘에서는 요한과 예수를, 세 번째 하늘에서는 요셉을, 네 번째 하늘에서는 이드리스를,

마드의 승천 기념일로서 지키고 있다.<sup>11)</sup>

### 3. 무함마드의 첫 기도의 방향으로서의 예루살렘

이슬람에서는 기도의 방향(아랍어로 “qibla”)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의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예배한다. 그렇지만, 이슬람의 본래 기도의 방향은 메카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다.<sup>12)</sup>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생활하면서 매일 같이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그런데 무함마드는 그들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였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부터 그리고 왜 기도의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바꾸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하여서는 메카에서 메디나로 헤지라(도주 또는 이주)한 사건(622년 9월 24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sup>13)</sup> 그는 메카의 우상숭배자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던 중, 어느 도시의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도시로 이주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60여 가정을 메디나에 몇 차례 나누어 먼저 보내어 그들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sup>14)</sup> 그리고 그 도시에서 그

---

다섯 번째 하늘에서는 아론을, 여섯 번째 하늘에서는 모세를, 일곱 번째 하늘에서는 아브라함을 만난 후에 예배하는 방법과 하루 다섯 차례의 예배(기도) 회수를 명령 받았다. 본래는 하루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예배의 횟수가 50번이었는데 무함마드의 탁월한 협상을 통해서 5번으로 줄였다고 한다. Mark A Gabriel, 기독교 vs 이슬람, 192; 최영길, 이슬람 문화 (도서출판 알림, 1999), 70.

11) 이슬람력(이슬람교력), 무슬림력, 히지라력(히즈라력) 등으로 불린다. (영어: Islamic Calender, Muslim Calender, Hijri Calender, 아랍어: at-taqwīm al-hijrī, 페르시아어: Gāhshomāri-ye Hejri) 주로 이슬람교 사회에서 사용되는 서력법으로서 태음력이며, 약자 표기는 H 혹은 A.H.(라틴어로 Anno Hijrae(in the year of the Hijra))이다. 예언자이자 알라의 사도로 존경받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거룩한 도망’을 히지라라 하여, 그 날짜인 622년 7월 12일을 히지라 원년 1월 1일로 삼았다. 음력이기에 매 달이 29일, 30일이 교대로 지나게 되며 1년이 354일이다. 월령의 차를 조절하기 위해 1일을 늘리는 윤년이 30년에 11번 있으며, 히지라력을 3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5, 7, 10, 13, 15, 18, 20, 24, 26, 29인 해가 윤년이 된다. Online at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8A%AC%EB%9E%8C%EB%5>.

12) 최영길,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39.

13) Gregory Harms, *The Palestine Israel Conflict* (London: Pluto Press, 2005), 29.

14) Bernad Lewis, *이슬람의 문명사 (The World of Islam: Faith, People, Culture)*, 김호동 역 (서울: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 1994), 18.

들을 기초로 하여 최초의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를 형성했다.<sup>15)</sup> 그 도시의 원 이름은 야쓰리브(yathrib)인데 무함마드의 이주를 계기로 하여 선지자의 도시(madinat al-nabi)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편의상 “메디나”, 또는 “마디나”라고 불린다. 이 메디나에는 메카와 달리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의 하나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도와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함마드는 1년 반 정도를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포섭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마침내 무함마드는 이슬람의 기도의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메카의 카으바로 바꾸고 그들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의 지하드, 즉 성전(聖戰)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지하드, 곧 성전에 참여한 자들을 무자히딘이라고 하는데, 그 무자히딘의 첫 번째 대적이 유대인들이 되었다.

기도의 방향을 변경하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묻게 되었다. 질문의 요지는, 이미 고인이 된 선조들은 기도의 방향이 변경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 선조들과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무함마드는 그들을 어리석은 백성들이라고 정죄했으며(코란2:141), 기도의 방향을 갑자기 바꾼 것은 선지자들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 위함이었다는 다음과 같은 궁색한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코란2:143).

너희가 그 전에 향했던 기도의 방향을 지정했나니 이는 선지자들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코자 함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커다란 시험이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좌절시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은 실로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분이시라(코란2:143).

기도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변경되어 예루살렘의 가치가 크게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3대 성지로서 메카와 메디나 다음으로 여전히 중요한 도시이다. 하디스에 따르면, 메카에서 한 번 기도하면 다른 곳에서 기도한 것 보다 십 만 배의 효과가 있고, 메디나는 1천배, 그리

15) Bernad Lewis, *이슬람의 문명사*, 29.

고 예루살렘은 500배의 효과가 있다.<sup>16)</sup>

## 제2절 이슬람과 예루살렘

무함마드가 죽고 난(주후 632년) 후, 그의 후계자들이 세워졌다. 그 후계자들이 아랍어로 칼리파이다. 제 1대 칼리파는 아부바크르(주후 632-634년), 그리고 오마르가 제 2대 칼리파로 재직하였다(634년-643년). 제2대 칼리파 오마르의 군대가 636년(A.H. 14년)에 시리아를 정복하고, 637년(A.H. 15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다. 이슬람이 태동 된 후 27년 만에, 그리고 무함마드가 죽고 난후 5년 만에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의해 정복된 것이다.<sup>17)</sup> 이제 제2대 칼리파 시절부터 시작하여 중세를 거쳐 현재까지의 이슬람의 역사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제 2 대 칼리파 오마르와 예루살렘

최영길의 책 *이슬람 문화*에 따르면<sup>18)</sup>, 이슬람의 제2대 칼리파 오마르의 군대가 636년(A.H. 14년)에 시리아를 정복하고, 637년(A.H. 15년)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자 당시 크리스찬 교구장 소프로니우스(Sophronius)는 아무 저항 없이 예루살렘의 열쇠를 넘겨주었다. 당시 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살고 있던 제 2대 칼리파 오마르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왔다. 오마르는 교구장 소프로니우스와 그 곳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협정에 서명을 하고 무함마드가 승천하였다고 하는 반석으로 향하였다. 제2대 칼리파 오마르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성전 터에 있는 바위 하나를 중심으로 이슬람 사원을 세우도록 명령 하였다.<sup>19)</sup> 그는 무함마드의 동료이자 장인으로서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의 성전 터 위에 이슬람 사원을 간절히 세우고자 했음을

16) 최영길, *이슬람 문화*, 182.

17) Gregory Harms, *The Palestine Israel Conflict*, 32-34.

18) 최영길, *이슬람 문화*, 82,83.

19) 황금의 돔 사원이 솔로몬 성전의 자리일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성전 산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고탑비에 의해 유대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그 이유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의 지성소의 위치가 성전 파괴이후 불분명해졌는데, 혹시 그곳을 밟을 지도 모르는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려는 유대인 젊은이들을 이스라엘 경찰들이 동행, 황금사원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물론 혹시라도 있을 이슬람 사람과의 충돌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칼리파 오마르는 제 1 성지인 메카와 제 2 성전이 메디나에 이어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제 3대 성지로 선포하였다.<sup>20)</sup> 예루살렘의 정복은 단순한 정치적 또는 군사적 점령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가졌던 것이다.

## 2. 예루살렘의 성전 터의 바위 돔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의 성전 터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이른바 바위 돔(Dome of Rock) 사원은 주후 이슬람력(A.H.) 68년, 즉 주후 691년에 건축된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슬람 건축물이다. 아랍어로는 “콤포트 알싸크라(바위의 돔)”라 일컬어진다. 그리고 그 돔 위에 황금이 도금되어 있기에 황금의 돔 사원으로도 일컬어진다. 그 사원은 오마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60년 이상이 지난 다음 압둘 말리크 본 마르완(주후 686-705)에 의해서 건축되었다. 그 사원 안에는 큰 바위가 하나가 있다. 무슬림들은 그 바위에서 무함마드가 승천하였으며, 그 바위에 그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슬림들은 아담이 창조되기 약 2천 년 전에 천사들이 그 바위를 방문하였다고 믿으며, 노아의 대 홍수 이후 노아의 방주가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고 믿기도 한다.<sup>21)</sup>

보통 사원 안에는 카펫트가 깔려 있어서 무슬림들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황금의 돔 사원 안에는 카펫트가 깔려 있지 않고 바위 밖에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황금의 돔 건물은 사원이 아니라 사당(Shrine)이다. 이슬람 사원은 이슬람교도들만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이지만, 그 사원은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명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그 돔에 황금을 입힌 자는 현재 요르단 왕국의 왕 압둘라의 부친 후세인 왕이다.<sup>22)</sup> 후세인 왕은 그의 영국에 있는 별장을 매각한 돈으로 예

20) 제 1대 성지는 이슬람이 태동한 메카이며, 제 2대 성지는 무함마드가 메카를 탈출하여, 이주한 메디나이다. 메디나에서 최초의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가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두 개의 거룩한 사원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wo Holy Mosques)라고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두 개라 함은 메카와 메디나에 각각 세워진 사원을 일컫는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스컴의 모든 뉴스는 이 사실을 먼저 밝히고 난 다음 진행된다. 반면에 제 3의 성전은 요르단 왕이 그 수호자이다.

21) 공일주, *아브라함의 종교* (서울: 살림, 2004), 55.

22)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공식 이름은 The Hashimite Kingdom of Jordan(HKJ)이다. Hashim(하심)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증조부다. 요르단 왕가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그 왕권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요르단의 왕 압달라는 무함마드의 40대 손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루살렘 황금의 몸 사원에 황금을 입혔다.<sup>23)</sup>

### 3. 예루살렘의 성전 터의 알아끄사 사원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는 황금의 몸 사원과 더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사원이 있는데, 이것이 "알아끄사 사원"이다. 이 "알아끄사 사원"이라는 단어는 황금의 몸 사원을 포함한 성전 터 전체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sup>24)</sup> 이 사원은 황금의 몸 사원과 달리 지금도 무슬림들이 매일 예배하는 곳이다. 무슬림들은 이 사원이 코란 17:1절에서 언급된 "알아끄사 사원"이라고 믿고 있다.<sup>25)</sup> 이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 있던 곳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황금의 몸 사원에서 남쪽으로 수 백 미터 떨어진 곳에 주후 810년경에 세워졌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에게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 세 번째로 거룩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며, 아랍어로 "거룩한 곳"이라는 뜻의 "알꿀두스"라 일컬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때부터 무슬림 순례자들은 하지(haji) 때 행하는 메카의 카바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위 몸 주위를 돌며 순례를 행하기 시작하였다.

### 4. 예루살렘과 이슬람의 중세 역사

오랫동안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지역을 유럽의 기독교가 탈환하기 위하여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 그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최초로 정복한 것은 1099년이였다.<sup>26)</sup> 십자군은 이슬람의 바위 몸 사원에 십자가를 걸어 놓고 교회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했다. 십자군에 의해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 이슬람의 장군 살라딘이 나타났다.<sup>27)</sup> 그는 1187년 3개월간의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

23) 1994년 백악관 잔디밭에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 그리고 요르단의 후세인 왕이 중동평화 회담을 개최하였다. 그 회담이 끝난 후 진행된 기자회견 때, 후세인 왕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인들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라는 말로 그의 연설을 시작하였다. 그가 "우리는..."라고 하였을 때, 그 '우리'는 자신으로 대표되는 아랍인들(더 나아가서, 이슬람권 사람들)과 라빈 수상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인들이었다.

24) 최영길, *이슬람 문화*, 182.

25) Ibid., 182.

26) Gregory Harms, *The Palestine Israel Conflict*, 36.

환하였다.<sup>28)</sup> 그 후로 88년 동안 바위 돔 사원 위에 있던 십자가는 사라지고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이 다시 그 위에 세워졌다. 1516년에는 오스만 터키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1538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대제 11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고 그 성벽이 현재의 예루살렘 성벽으로 보존되고 있다.

##### 5. 예루살렘과 19, 20세기 이슬람 역사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이 모여 팔레스타인 땅에 그들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첫 모임 개최되었고 모임의 대표로 테오도 헤르즐(Theodor Herzl)이 세워졌다.<sup>29)</sup> 그 당시 현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영토는 오스만 이슬람 제국이었다. 헤르즐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스만 이슬람 제국의 무슬림 칼리프를 찾아가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국가 건설의 첫 단계를 밟아 보고자 했지만 실패하였다. 그로부터 15년 후 오스만 이슬람 제국은 제 1 차 세계 대전 중 동맹국을 지지했는데 그 동맹국이 연합국에 의해 패하게 됨에 따라 영국이 그들의 영토였던 현 이스라엘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1917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 벨푸어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도 좋다는 선언을 발표하였다.<sup>30)</sup> 같은 해 12월 11일, 영국의 에드먼드 알렌비(Edmund Allenby) 장군이 영국과 연합군의 수장으로서 예루살렘 구 도시에 입성하면서 영국의 위임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갈등과 충돌의 역사가 재개되었다. 무슬림들에게 서구의 통치는 십자군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선포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sup>31)</sup> 이에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의 군대가 합동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지만 패배했던 제 1차 중동 전쟁(1948)이 일어났다. 그 후에 제 2차(1956), 제 3차(1967), 제 4차(1973) 중동 전쟁이 각각 일어났지만 모두 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

27) 살라딘은 1138년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쿠르드족 가문에서 탄생했다. 그는 처음 이집트 땅에 아유비드 왕조를 창립하고 중동 이슬람세계를 무력으로 통일하였다. 그는 1138년부터 1193년까지 중동 이슬람 제국을 통치하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과 3차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28) Gregory Harms, *The Palestine Israel Conflict*, 37.

29) Ibid., 55.

30) Ibid., 71.

31) Ibid., 95.



났다. 특히 1967년 6월 6일에 시작된 제 3 차 전쟁으로 이스라엘 군은 팔레스타인의 요르단 강 서안과 가자지구들 점령했고, 더 나아가 성전 산, 동곡의 벽, 다마스쿠스 문 방향에서 부채꼴 모양의 동 예루살렘까지 점령했다. 이스라엘 국회는 “예루살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도시이며, 이스라엘의 수도이다”라고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sup>32)</sup> 이스라엘은 동 예루살렘 정복 사건을 옛날 유대 성전이 있던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사건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그들의 성지를 빼앗겼다는 모욕감에 휩싸였다. 이러한 모욕감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기독교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그 후 1973년에 다시 전쟁이 발발했으나 역시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이는 무슬림 형제단, 이슬람 지하드, 알가마 알이슬라미야, 헤즈볼라, 하마스 등의 수많은 지하드 단체들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sup>33)</sup> 1978년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중동 전쟁의 선봉에 있던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협정을 체결하였다.<sup>34)</sup> 그 후로 현재까지 중동지역에서 더 이상의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점령지들 팔레스타인에게 인도하는 오슬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sup>35)</sup> 그러나 이스라엘이 약속한 영토의 반환이 계속 지연되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에 1999년 9월부터 이른바 팔레스타인의 “인티파다”(민중봉기)가 시작되었다.<sup>36)</sup>

2000년 7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빗에서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와 이스라엘의 바라크 수상을 초청하여 회담을 하던 중, 바라크는 클린턴도 아주 놀랄만한 제안을 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 터를 포함한 구시가지 권한권의 상당부분을 팔레스타인에게 양도하는 협상안을 승인하겠다는 것이었다. 라빈, 페레, 네탄야후 등 역대 이스라엘 수상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라파트는 바라크의 그 파격적인 제안에도 만족하지 않았고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sup>37)</sup>

32) Colin Chapman, *Whose Holy Cit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2005), 145.

33) Gregory Harms, *The Palestine Israel Conflict*, 118-120.

34) Ibid., 129.

35) Ibid., 153.

36) Ibid., 164.

2000년 9월, 이스라엘이 극우 리쿠르당 당수 아리엘 샤론이 예루살렘의 성전 산을 방문하여 그 지역이 유대인들의 관할지역임을 온 천하에 분명히 밝혔다.<sup>38)</sup> 그 후로 샤론이 이끄는 리쿠르당의 인기는 계속 치솟아 바라크가 이끄는 노동당을 2001년에 2월 선거에서 패배시키고 샤론은 수상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인티파다는 더욱 더 거세졌다.<sup>39)</sup>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후,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 테러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은 미국으로 하여금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하였고,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9.11 테러를 주도하였다고 자처하는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를 수행하기 약 2년 반 전인 1998년 2월 23일에 자신을 포함한 5명의 이름으로 “유대인과 십자군에 대한 성전을 촉구하는 세계 이슬람 전선 선언”(Jihad Against Jews and Crusaders/ World Islamic Fro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우리는 그 선언문을 통하여 그가 예루살렘의 알아끄사 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와 그리고 바로 그 중요성 때문에 9.11 테러를 행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아래는 그 성명서 중의 성전 터의 알아끄사 사원에 관한 부분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 사람들-군인은 물론 민간인도 포함-을 죽이는 것은 이들 이행할 수 있는 국가에 있는 모든 무슬림의 의무로서, 예루살렘의 성전 산에 있는 알아끄사 모스크를 그들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군대들 이슬람의 모든 영토에서 몰아내고 패배시켜 더 이상 무슬림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sup>40)</sup>

알아끄사 사원은 여전히 아랍 무슬림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7) Gregory Harms, *The Palestine Israel Conflict*, 165. 필자는 기독교신문의 청탁을 받아 기고한 “아라파트 죽음 이후, 평화는 오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라파트가 이스라엘 바라크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을 언급한 적이 있다; Online at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70>

38) Gregory Harms, *The Palestine Israel Conflict*, 170.

39) Ibid.

40) 이 선언의 영어 전문은 인터넷 [www.fas.org/irp/world/par/docs/98023-fatwa.htm](http://www.fas.org/irp/world/par/docs/98023-fatwa.htm)에 있다. 영국 런던에서 발행하는 아랍어 신문 알-쾰드스-알아라비아, 1998년 2월 23일자에 실렸다. 여기서 알 쾰드스는 아랍어로서 그 뜻은 예루살렘이다. 그 선언문을 발표한 주인공들은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다. Shaykh Usamah Bin-Muhammad Bin-Ladin; Ayman al-Zawahiri, amir of the Jihad Group in Egypt; Abu-Yasir Rifa'i Ahmad Taha, Egyptian Islamic Group; Shaykh Mir Hamzah, secretary of the Jamiat-ul-Ulema-e-Pakistan; Fazlur Rahman, amir of the Jihad Movement in Bangladesh.

그러나 67년 전쟁 이후 유대인들에 의해서 점령된 이후에는 그 사원은 이스라엘의 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무엇보다도 오사마 빈라덴은 그 사원을 허물고 그 곳에 유대인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유대인들과 친 이스라엘적 기독교인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 세워진 이슬람의 두 사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이슬람권이 예루살렘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슬람권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중심적인 기독교의 여러 선교 운동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3 장

#### 예루살렘 중심의 세대주의적 선교운동들

오늘날 세계선교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선교운동들 중 다수는 예루살렘 중심적인 세대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 서 있다. 이 장에서는 유럽과 미국과 한국에서 펼쳐지는 이와 같은 선교운동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절 유럽과 미국의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 운동들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에 대한 반작용과 더불어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에 의한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의 다양한 운동들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sup>41)</sup> 그들 중 대표적인 몇몇 운동들과 미국의 여러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Ebenezer Emergency Fund(EEF)

에벤에셀긴급재단(EEF: Ebenezer Emergency Fund)은 1991년 Gustav Shuller (구스타프 쉐러/전 EEF 총재)를 중심으로 3명의 사역자들에 의해 구소련지역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는 Markus J. Ernst(마커스 에른스트)가 총재이며, 영국을 본부로 24개국에 에벤에셀 사무실을 두고 있다. 영국, 미국, 스위스, 독일 등 12개국의 지부와 협력하여, 지난 9년 동안 5만 2천 여 명의 유대인

41) 미국인구 1/4인 약 7천 5백만이 복음주의자들인데, 그들 중의 약 2천만이 기독교 시온주의자들로 분류가 된다. <http://urj.org/Articles/index.cfm?id=19553>

들에게 비자발급, 전세기 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귀환을 도왔다.<sup>42)</sup>

한국에서는 KIBI(Korea Israel Bible Institute/한·이 성경연구소)가 EEF Korea가 되어 EEF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다. KIBI/ EEF Korea는 2006년부터 영국, 미국, 스위스, 독일에 이어 국제 이사국에 합류하였다. EEF은 1991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113,997명의 유대인들이 구소련으로부터 귀환(Aliyah/알리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KIBI/ EEF Korea는 교회 및 성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전액 에벤에셀 본부가 있는 영국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KIBI/ EEF Korea는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27만불 이상을 후원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100만불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직접 극동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어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어부들(Fishermen)이라고 하고, 그 사역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것을 피싱 트립(Fishing Trip)이라고 일컫는다. 2006년부터는 장기(3개월 이상), 단기 발런티어를 상시 모집하여 파송(2명이 한팀, 동성 또는 부부)하고 있다.

## 2. The Voices United for Israel

1998년은 이스라엘 건국 50주년 해였다. 그 해 4월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연합의 목소리 (the Voices United for Israel)” 집회가 열렸다. 그 집회는 Jerry Falwell(제리 폴웰) 목사와 남침례교회 몇몇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수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여 이루어졌다. 그 집회 참석자는 대략 3천명의 복음주의자들이었다. 나탄야후 수상은 그 집회에서 “우리에게는 여기 모인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친구나 맹방은 없습니다”라고 인사하며 그의 연설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다음 날 그는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을 백악관에서 만나 회담을 하였다.<sup>43)</sup> 요르단의 영자 신문인 Jordan Times는 이에 관한 기사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크게 보도하였다.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아랍인들도 친 이스라엘 정책을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최대 후원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42) <http://www.kibi.or.kr/board/view.do?iboardgroupseq=2&iboardmanagerseq=6>

43) <http://query.nytimes.com/gst/fullpage>.

### 3. Jerusalem Prayer Team(JPT).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예루살렘 기도팀(JPT: Jerusalem Prayer Team) 발족”이라는 글이 미국의 *Religion Today* 2002년 4월 17일자에 실렸다.<sup>44)</sup> 그 기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성지가 테러로 인하여 황폐되었다... 유대인들이 작년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테러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자....기독교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유대인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는 이른바 사랑의 다리들 구축하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없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고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루살렘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100만 명의 미국인과 일주일에 한번 기도하는 10만 교회들 확보하자.<sup>45)</sup>

JPT가 설립되자마자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미국교회 지도자들이 100명이 넘었으며, 그들 중에는 Pat Boone, Pat Robertson, Tim LaHaye, John Maxwell, Tommy Tenney, Jerry Falwell 등이 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편 122:6)”은 예루살렘 기도팀(JPT)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다. JPT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매일 암송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는 부시 대통령이 계속하여 굳하지 않고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JPT의 대표 Dr. Mike Evans는 미국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을 빈번하게 방문하며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sup>46)</sup>

### 4. Christian Coalition for U.S.A

미국을 위한 기독교 연맹(Christian Coalition for U.S.A)은 1989년 팻 로버슨

44) <http://www.jerusalemprayerteam.org>

45) 국민일보 2002년 4월 20일자 기사 참조. 그리고 2002년 10월 초에 잠실 운동장에서 열린 “The Call Korea”가 6만 명의 젊은이들 6만 명을 모아 놓고 JPT 운동을 따르도록 하기도 하였다.

46) <http://www.savejerusalem.org>.

(Pat Robertson) 목사에게 의해서 창설된 단체로서 미국으로 하여금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sup>47)</sup> Pat Robertson 목사는 1988년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였다가 당시 미국 부통령 조지 부시에게 패배하였던 인물이기도 하다. 부시가 이끄는 공화당이 200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압승을 거두게 된 것도 미국을 위한 기독교 연맹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컸다. 그 연맹의 공식 구호들 중의 하나가 “이스라엘 축복!” “미국축복!”이다.

##### 5. Christians United for Israel (CUFI)

CUFI는 2007년 10월 7일에 존 해기(John Hagee) 목사와 몇몇 복음주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창립되어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기독교 정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존 해기 목사는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 현재 16,000명이 모이는 코너스톤교회들 설립하여 목회하고 있다.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책 *예루살렘, 최후의 새벽*에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람들”이라는 대조된 제목 하에 친 이스라엘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sup>48)</sup> 그의 친 이스라엘적 설교는 지금도 위성 TV를 통해서 전 아랍권에 거침없이 방영되고 있다.<sup>49)</sup> 유대인들은 존 해기가 그들을 축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대인들 중에 75%가 존 해기를 비롯한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을 지지하지 않는다.<sup>50)</sup>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중동평화 안을 만들어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양보하여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에 대하여 다름 아닌 미국의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적극 반대하여 중동평화에 저해들 가져오는

47) <http://www.cc.org>.

48) John Hagee, *예루살렘 최후의 새벽(Final Dawn Over Jerusalem)*, 홍원팔 역 (서울: 비전북출판사, 2002), 35, 55.

49) 본 논문의 서론에 이미 밝힌 대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존 메케인은 한 때 존 해기 목사의 지지를 받게 되었음을 귀히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존 해기 목사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아돌프 히틀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부들”(fishermen)과 “포수들”(hunters)’를 불러 북방 땅과 여러 쫓겨난 나라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토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예레미야 116:15,16)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부들”을 헤르츨과 시오니즘(Herzl and Zionism)으로 히틀러와 나찌즘(Hitler and Nazism)을 각각 해석했다. [http://en.wikipedia.org/wiki/John\\_Hagee](http://en.wikipedia.org/wiki/John_Hagee).

50) *크리스찬 타임스*, 2008년 7월 29일자.

장본인들이 되기 때문이다.

#### 6. 미국 최대의 복음주의 교단 남침례(SBC) 총회

2002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최대의 복음주의 교단 남침례(SBC) 총회가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아메리칸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9,500 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테러와의 전쟁” “중동 평화를 위한 기도” 등 10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침례교 총회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동 사태해결을 위해 교단이 정부에 꾸준히 압력을 넣어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들은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인용, “이스라엘의 평화들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밝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sup>51)</sup>

#### 7. 미국 대통령들의 친 이스라엘 정책

미국의 투르만 대통령은 이스라엘 건국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다. 투르만은 그의 전임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븐 사우드(Ibn Saud) 왕에게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sup>52)</sup> 투르만(Truman)과 이스라엘의 건국(Truman and the Foundation of Israel)의 저자 마이클 벤슨(Michael Benson)에 따르면, 투르만은 14세 때 이미 4번에 걸친 성경 통독을 하였으며, 자신을 곧 바벨론 포로생활을 종식시켰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와 같은 자라고 자처하였다.<sup>53)</sup>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핵무장 강화를 정당화 하였는데 이는 요한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이론에 기초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다는 것이다.<sup>54)</sup> 빌 클린턴은 이

51) 미국의 풀러신학교 총장 리차드 마우(Richard Mouw) 박사를 비롯한 60명의 미국교회지도자들도 그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였다(2002년 7월 26일). 그리고 워튼 대학교 게리 버즈 교수는 “부시 대통령은 (J.P.T. 운동을 주도 하고 있는) 팻 로버슨(Pat Robertson)이나 제리 폴웰(Jerry Falwell) 같은 사람만이 미국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일부일 뿐 우리 복음주의자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52) J. Dudley Woodberry, “테러리즘과 이슬람,” *KMQ*, 2002년 겨울호, 63.

53) Barabara Victor, *The Last Crusade*, Constable & Robinson Publishing(London, 2005), 69.

54) Ibid., 70.



스라엘을 방문하여 이스라엘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함으로써 그 역시 미국의 친 이스라엘 정책이 성경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밝히 드러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의 고향인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는 우리 미국의 여로이며, 미국은 지금부터 영원히 여러분과 우호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sup>55)</sup>

본 논문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2003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의 전쟁을 개시하여 사담 후세인의 권좌를 무너뜨렸던 것은 사담으로 대표되는 반 이스라엘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는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시키며 미국의 폭력성까지 드러내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폭력성의 중심에 미국 교회가 있다. 제리 폴웰 목사나 빌리 그래함 아들 프랑클린 그래함 목사 같은 극우파들은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였다.<sup>56)</sup>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 이란의 하타미 대통령은 그 테러의 뿌리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슬람권의 여론은 그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미국이 테러를 당하게 되자, 이슬람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가운데 팔레스타인들에게 어려움을 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풀러신학교 J. Dudley Woodberry 교수는 미국은 매년 30억 달러(약 4조원)의 예산을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으로 원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원조에 의해 구매된 미사일과 F-16으로 팔레스타인들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57)</sup>

55) 이 연설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10월 27일에 한 것이며, *Vital Speeches* 61, no3 (November 15, 1994): 70(3)에 실린 것으로 O. Palmer Robertson의 책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56) David Domke, *God Willing?: Political Fundamentalism in the White House, “the War on Terror,” and the Echoing Press* (London: Pluto Press, 2004), 1-2.

57) J. Dudley Woodberry, “테러리즘과 이슬람,” 64.

## 제2절 한국교회의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의 선교운동들

한국교회의 초석을 놓았던 선교사들과 한국인 교수들 중 세대주의 신학 또는 세대주의적 요소들 갖고 있는 신학에 기초한 자들이 많았다.<sup>58)</sup>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입각한 메시지들은 암울한 일제 치하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큰 설득력이 있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조용기 목사를 비롯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세대주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 때 이장림의 세대주의적 시한부 종말론마저도 한국 교회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교회 안에 세대주의에 기초한 여러 선교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실크로드 2000 예수 행진, 예루살렘 평화행진, 아프칸 평화 축제, 백투예루살렘, 복음의 서진 등이 있다.

### 1. 실크로드 예수 행진 2000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에서 개최된 실크로드 2000 예수 행진은 한국 교회 기독교 청년을 중심으로 2천 5백 명의 성도들이 인터콥을 주축으로 중앙아시아 관문 도시 알마티에 모여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스타디움에서 개최되었다. 그 행진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하여 그 행진의 디렉터였던 최바울의 평가들 직접 들어 보자.

이슬람 세계에서 개최된 최초의 대형 성회는 말 그대로 지구적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9-11 사태와 곧 이어 일어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이것은 실크로드2000에 참석한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이미 그 집회 이후 예견했던 대로 '이슬람 신의 반격'이었던 것입니다. 실크로드 2000 성회는 지구 영적 전쟁을 촉발시키고 노골화시켰던 것입니다. 이후 세계는 형식적으로는 지구적 종교 갈등으로, 실제로는 세계 영적 전쟁으로 지구 구도가 급진전하게 되었습니다.

최바울이 그가 대표인 인터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실크로드 예수 행진 2000

58) 서철원은 한국교회에 개혁신학을 보급한 박형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박형룡은 그의 신학적 형성을 평양신학교에서 하고 프린스턴신학교에서 더욱 강화하였지만, 남침례신학교에서의 수학으로 종말론에 있어서 세대론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종말론의 전개에 있어서 공교회의 종말신학공식을 따르지 않고 천년기를 따랐다.” Online at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70>

에 대하여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족히 짐작이 간다. 9.11. 사태와 아프칸 전쟁의 발발이 그가 이끈 실크로드 예수 행진 2000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그 사태와 전쟁의 배후는 이슬람의 신이며, 그 신의 반격이 그 행진 이후에 있게 될 것에 대하여 그 뿐만 아니라 그의 행진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이미 예견하였다는 것이다. 한결음 더 나아가서, 그 행진은 지구 영적 전쟁을 촉발시키고 노골화시켰고, 그 후로 세계가 영적 전쟁으로 구도가 급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2. 예루살렘 평화 행진 2004

예루살렘 평화행진 2004에 1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참여했다. 그 행진의 탄생의 주역도 인터콥의 최바울이다. 그는 예루살렘의 다윗 성 박물관 앞에서 “예루살렘 평화들 위하여 기도하실 분만 안으로 들어오세요!”라는 안내문을 보던 순간 예루살렘 평화행진 2004가 그의 마음속에서 잉태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sup>59)</sup> 그 안내문은 JPT의 기초가 되기도 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편 122:5)”라는 말씀이다. 그 행사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하나는 그 행사의 신학적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대표성의 문제점이다.<sup>60)</sup>

### 가. 신학적 문제점

예루살렘 평화행진은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한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다. 예루살렘 행진 웹사이트([www.jerusalem2004.net](http://www.jerusalem2004.net))에 소개된 최바울 등의 여러 칼럼들과 그의 책 *백투예루살렘* 등을 읽어보면 팔레스타인을 향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놓고 있다. 최바울의 '예루살렘 예수행진 2004 - 마지막 영적전쟁'과 인터콥 선교사 강요한의 글, “기뻐하라 예루살렘,” 그리고 인터콥 선교사 고여호수아의 “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가?” 그 행사의 공동대표가 된 예수전도단 대표 문희곤의 “예루살렘 2004 예수행진을 준비하며”등에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반복적으로 소개 되고 있다.

59) 최바울, *백투예루살렘* (서울: 펴내기, 2004), 167,168.

60) 필자는 *중동선교회* 소식지, *미션저널*, *뉴스앤조이* 등을 통해서 예루살렘 2004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948년 5월 14일의 이스라엘 건국 사건'은 구약 예언의 성취적 사건이다... 이스라엘의 1967년 6일 전쟁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구체적 성취 사건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 2004 예수행진'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61)</sup>

최바울은 그의 책 *백투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평화 행진의 목적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이며,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성전 터의 두 개의 이슬람 사원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비록 무너진 예루살렘성 안에서 이슬람 사원이 두 개나 자리 잡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백투예루살렘을 위한 거대한 출정식이었습니다.<sup>62)</sup>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 세워진 두 개의 이슬람사원이 무너지고 그곳에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행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행진은 평화행진이 아니라 이슬람권을 향한 전쟁의 행진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 나. 대표성의 문제

“예루살렘행진”의 부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였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의 본처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다.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름은 그의 후손들로 형성된 나라 또는 민족을 상징하게 된다. 이삭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의 큰 아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제외되고 둘째 아들 야곱과 그의 후손들만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그의 첩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며,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비롯한 약 3억 인구의 아랍인들과 더 나아가서는 약 13억 무슬림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행사의 주최 측은 이삭의 후손들을 대표하는 자로 이스라엘의 부총리 겸 관광성 장관 벤자민 엘론

61) [www.jerusalem2004.net](http://www.jerusalem2004.net)

62) 최바울, *백투예루살렘*, 144,145.

(Benjamin Elon)을 내세웠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대표하는 자로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 시장 한나 나세르(Hanna J. Nasser)를 각각 내세웠다. 실제로 그 두 사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그 행사는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관광성 장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가?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시장은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과 아랍인들 또는 무슬림들을 대표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관광성 장관은 관광객을 잘 유치하기 위해 진력하는 공무원일 뿐이다. 그 점에 있어서 베들레헴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베들레헴 시장은 무슬림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다.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 시는 나사렛 시와 라말라 시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무슬림 인구보다 더 많아서 시장이 항상 기독교인들 가운데 선출된다.<sup>63)</sup>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의 정서는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권, 이슬람권의 정서와 같지 않다. 약 3억 가까이 되는 아랍인들 중에서 약 1천 7백만이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을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여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베들레헴 시장이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여겨지는 무슬림들을 대표할 수는 없다. 또한 예루살렘 평화행진 참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위한 화해자로 자처하였지만, 그들은 화해자가 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에 속한 자들로서 친 이스라엘적이기 때문이다.<sup>64)</sup>

### 3. 아프가니스탄 2006 평화축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2006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가 많은 논란을 겪고 난 후 전격 취소되었다. 그리고 약 1년 후 아프가니스탄을 찾아 간 단기 선교 팀이 납치되어 두 명의 순교자까지 발생하였다. 그 후로는 평화 행진이 개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음의 서진 운동이나 백투예루살렘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63) 기독교인들의 출산율은 매우 낮고 또한 이민자들이 많은데, 무슬림들은 출산률도 높고 이민자들의 수도 많지 않게 됨에 따라 기독교들이 무슬림들보다 그 수가 작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레바논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레바논이 프랑스로부터 독립될 때 그 인구의 수가 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선출되도록 하였는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의 인구의 수가 무슬림들의 인구의 수에 비하여 더 작아졌다.

64) 예루살렘 평화 행진은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계속되었다. 예루살렘 평화행진2005는 인터콥 뿐만 아니라 KIBI(대표 송만섭)와 온누리 교회(담임목사 하용조)와 지구촌교회(담임목사 이동원)와 할렐루야교회(담임목사 김상복)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최되어 더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인터콥이 아프칸 축제에 집중한 가운데 KIBI 단독으로 진행되었다.

#### 4. 복음의 서진 운동

복음의 서진운동을 전개하는 토마스 왕이나 최바울 등에 따르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유럽과 미국을 거쳐 한국까지 서진하였고, 이제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예루살렘까지 계속 서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복음의 땅 끝이다. 즉 복음의 서진 역사에 진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그들은 복음의 서진 역사의 최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복음은 바울을 통하여 서진만 되었는가? 그리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는가? 세계 교회는 복음을 서진만 시켰는가?

##### 가. 바울을 통한 복음진전의 방향들

복음의 서진운동은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일방적 이해와 땅 끝에 대한 작위적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바울을 통한 복음의 진전의 방향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크게 세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첫째는 동진이고, 둘째는 북진이며, 셋째는 서진이었다.

##### (1) 복음의 동진

바울의 선교사역은 그가 안디옥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됨으로 처음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이 파송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약 15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졌다.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소명을 받은 것이 다메섹 도상이었다고 한다면, 그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대하여 15년이 다 되도록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다메섹 사건은 그의 회심 사건이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는 사건이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그의 소명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은 아나니아가 묵회하고 있던 다메섹 교회와 함께 곧 바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정도 지냈다고 진술하고 있다(갈1:15-17). 아라비아는 지금의 요르단 왕국의 남쪽 지방에 위치한 페트라를 중심으로 하는 나바티안 왕국이다. 당시 아레타 4세가 그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다(주전 9년 - 주후 40년).<sup>65)</sup> 바울

65) 아레타(Aretas) 왕은 보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아레타 IV 왕이다. 그는 다메섹 동남쪽 아

이 아라비아에 갔던 목적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복음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나바티안 왕국으로 동진되었음이 분명하다.

바울이 왜 아라비아에 갔으며, 그곳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였겠는가? 그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소명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갔다는 주장이다.<sup>66)</sup> 또 하나는 그 소명에 응답하기 위하여 갔다는 주장이다(출3:1, 왕상19:8 참조). 먼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아라비아 사막은 일찍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산 호렙'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적절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나름대로 기도와 묵상을 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시간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크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아라비아 3년 생활의 전부일 수는 없지 않았겠는가? 바울은 유대교를 신봉할 때에도 아주 열정적이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굴복시켰다. 천성적으로 열정과 패기가 넘쳤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 침묵의 시기'로 보낼 수가 있었겠는가?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것이 묵상을 하며 장차 있을 사역을 위해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곧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음이 분명하다.<sup>67)</sup>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과의 교제들 충분히 가졌고, 그들의 격려 가운데 다메섹 교회는 물론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쾌하게 선포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에게 3년 동안이나 되는 긴 침묵의 시간이 필요가 없

---

라비아 지방 중심으로 펼쳐졌던 네바티안 왕국의 왕으로서 헤롯 안디바의 장인이기도 하였다. 로마 황제 갈리굴라는 다메섹을 아레다 IV 왕에게 주었다.

66) 바울이 아라비아에 묵상을 하며 장차 있을 사역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J. B. Lightfoot, E. J. Goodspeed, Burton, H. Ridderbos, H. C. Kee, A. Deissmann, N. Taylor, Charles C. Ryrie, James Montgomery Boice, John R. W. Stott, Charles R. Swindoll 등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설교자들도 그 견해에 동의한다.

67) 바울이 아라비아에 묵상을 하며 장차 있을 사역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곧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D. Betz, G. Bornkamm, M. Hengel, Maria Schwemer, John B. Polhill, F. F. Bruce, John Pollock, Jacob van Bruggen, John McRay, Udo Schnelle, Howard Marshall, Ian Paul, Robert Raymond, 김세운 등이다.

있음이 분명하다. 그가 만일에 나바티안 왕국에 머물며 말씀과 기도로 묵상만 하고 있었더라면, 왜 그 왕국의 아레다 왕이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였었겠는가?(고린도후서 11:32) 그것은 그가 분명히 나바티안 왕국의 백성들, 즉 아라비아인들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있게 전파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었다.<sup>68)</sup>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과 소명 사건을 경험한 다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 떠난 후, 그의 사도성에 대하여 문제들 제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의 사도성만을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문제들 삼았다. 그들에 대하여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 계시를 보여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정도 사역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바울이 직접 서술한 바를 인용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 내 속에 나타내시기들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제바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갈1:15-18상)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것(갈 1:15,16)을 일차적으로 이사야가 소개하는 여호와와 종의 소명 받은 것(사 49:1,6 등)과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소명 받은 것(렘 1:5)에 비추어 해석한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먼저 나옴으로부

68) F. F. Bruce, *바울(Paul)*,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96.



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사49:1)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이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49:6)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렘1:5)

갈라디아서 1:15-16과 위의 구절들을 비교해볼 때,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이른바 소명 사건을 이사야가 소개하는 여호와의 종의 소명 사건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에 비추어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으로, 김세윤은 갈라디아서 1:15-17절에서 바울이 그의 소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여호와의 종의 두 번째 노래인 이사야 49장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첫 번째 노래인 이사야 42장도 똑 같이 그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세한 부분까지 특유의 민감성을 보여 주는 Hengel과 Schwemer는 왜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도로 위임을 받은 후에 곧(갈 1:16) 하필이면 아라비아로 갔는지 묻는다. 그들은 몇 가지 신학적 실제적 이유를 든다. 그러한 신학적 실제적 고찰 사항들은 이사야 42:11에 의해 결정적으로 지지될 받았음이 분명하다. 거기에서는 열방에 빛과 구원을 전해 주는 사람이 되도록 소명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 게달과 셀라의 거민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게 한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 게달과 셀라는 둘 다 당시 주요 도시가 페트라였던 나바테안 왕국 아라비아를 가리켰을 것이다. 둘 다들 그냥 "아라비아의 광야"라고 번역하고 있는 탈쿰은 이러한 추측을 지지해 준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 위임받고 난 직후 "아라비아"에서 첫 번째로 선교를 시도한 것(갈1:15-17)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 받은 것을 실제로 이사야 42장에 비추어 해석했음을 나타내는 듯하다.<sup>69)</sup>

69) 김세윤은 그의 책, *바울신학과 새 관점(Paul and the New Perspective)* 정옥배 역 (서울: 두란노, 2002), 제 3장 "이사야 42장과 바울의 소명"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소제목으로 40여 페이지에 걸쳐(169-210) 바울이 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갖게 된 소명사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사야 42장을 참고하였을 것이라고 명쾌하게 밝혔다. 1)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2) "이방의 빛'이 되리라는 소명", 3) "내가 곧 아라비아로 갔다", 4) "택정하심" 5) "이전 것'과 '새 것'", 6)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 혹은 그의 의의 복음을 전파함", 7) "이방인들의 소망", 8) "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 끝까지", 9) "백성의 언약", 10)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11) "이스라엘의 완악해짐", 12) "결론"

이사야는 여호와와 종의 종의 빛이 될 것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다(사 42:6 등).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는 이방인은 느바웃, 게달, 쉘라(페트라)의 거민 등으로 대표된다(사 42:11, 60:7 등). 느바웃은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큰 아들이고, 게달은 둘째 아들이다(창 25:13). 그리고 쉘라의 거민들, 곧 페트라의 거민들은 페트라를 수도로 하는 네바티안 왕국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역사가 Josephus 에 따르면(Ant. 1. 220-221) 이스마엘의 아들 느바웃이라는 이름에서 나바티안 족이 나왔다.<sup>70)</sup> 그리고 나바타안 왕국의 수도는 쉘라인데, 쉘라는 히브리어로 반석이라는 뜻이다. “쉘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사 42:11)”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쉘라’의 거민들이 70인 헬라이어 역에서 반석이라는 뜻을 지닌 ‘페트라(Petra)’의 거민들로 번역되고 있다.<sup>71)</sup> 이사야가 말하는 느바웃, 게달, 쉘라의 거민들은 모두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즉 아라비아인들이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 그 부름에 순종하여 아라비아로 갔던 것이다. 그의 소명 사건을 해석하는데 이사야 42:1, 6, 11과 60:7 등을 참고하였을 것이라는 김세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sup>72)</sup>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에 여호와와 종의 종의 빛이 나타나 게달, 쉘라, 느바웃,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그 종말이 임하였다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한 가운데 자신을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와 종과 일치시켰다.<sup>73)</sup> 그리고 그는 그 확신을 갖고 나바티안 왕국의 백성들인 아라비아인들을 찾아가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수행하였으며 그 사역을 마치고 난 후 다메섹 교회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다 왕의 다메섹 방백이 유대인들과 합작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다메섹을 몰래 빠져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sup>74)</sup> 예루살렘을 출발한 복음은 다메섹으

70) 김세윤, *바울신학과 새 관점*, 172.

71) Ibid., 172.

72) Ibid., 172.

73) Tom Holland(툼 홀랜드), *바울신학개요(Contours of Pauline Theology)*,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86-105.

74) 바울이 다메섹의 어느 성벽의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게 된 것은 사도행전 9:23-25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살해 위협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32-33에 따르면, 나바티안 방백의 살해위협 때문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본이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른 관점에

로 북진 한 다음, 바울과 함께 아라비아까지 남진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복음은 바울과 함께 동진하였음이 분명하다.

### (2) 복음의 북진

바울은 다메섹에서 유대인들과 나바티아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유대인들의 살해위협이 계속되어 그곳에서 계속 머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바나바 등의 도움을 받아 그의 고향 킬리기아 다소로 피신하였다(사도행전 9:26-30). 이에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북진되었다(갈라디아서 1:21-24 참조). 10 여년이 지난 후에 안디옥교회들 담임하던 바나바가 그를 찾아와 그 교회에서 동역할 것을 요청하였다(사도행전 11:25). 그는 안디옥교회에서 그와 함께 1년 정도 동역한 후(사도행전 11:26), 선교사로 이른바 제 1차 파송을 받게 되어(사도행전 13:1-3)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왕성하게 선포하였다(사도행전 13:4-14:25). 그리고 그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얼마 동안을 지낸 후(사도행전 14:26-15:35) 제 2차 파송을 받아 지금의 터키지역인 소아시아에서 사역하였다(사도행전 15:36-16:5). 바울과 함께 복음의 북진은 폭넓게 계속되었다.

### (3) 복음의 서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선교사역을 수행하던 중에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받게 되었다(사도행전 16:6-10). 그리하여 복음은 바울과 함께 동유럽으로 서진되었다(사도행전 16:11-20:38). 그 환상 사건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임한 단회적이고 특수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기초로 복음의 서진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서 서유럽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였다(로마서 15:23). 그의 생애동안 스페인 선교가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sup>75)</sup>

---

보도한 것임을 알 수가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을 살해하는데 있어서 유대인들과 나바티아인들이 협력하였던 것이다.

75) A.D. 96년 경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of Rome)는 바울이 “서쪽 경계에 도달했다”고 말하지만, 그 서쪽이 스페인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되고 있다: Robert E. Picirilli, *사도 바울(Paul the Apostle)* (서울: 솔로몬, 1993) 396. 그러나 주후 2세기 말경 로마에서 작성된 무라토리 단편(the Muratorian Fragment)에 따르면, “바울이 로마를 떠나 서바나로 간 여정과 베드로의 수난을 생략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F. F. Bruce, *바울(Paul,*

나. 그 밖의 제자들을 통한 복음의 동서남북진

바울이 스페인을 그의 새로운 선교지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마게도니아의 환상 사건과 그 후에 펼쳐진 동유럽 선교로 인하여 복음의 서진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확신에 따른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를 그에게서 직접 들어 보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롬 15:19,20)

바울이 말하는 '남의 터'라는 표현 속에 '남'은 누구인가? 그 '남'(엄밀한 의미에서 '남들')이라 함은 예수님의 12사도들 비롯한 여러 제자들과 초대 교회의 일꾼들이 분명하다. 그들은 복음의 동서남북진(進)을 하였던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동, 북아프리카, 인도 등의 교회 역사들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다.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로마 교회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훨씬 전에 바울이 아닌 다른 제자들에 의하여 오래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다.

복음의 서진 운동을 주장하는 최바울이나 토마스 왕과 같은 이들에게 있어 사도 바울이 아닌 예수님의 12사도들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을 통하여 진행된 복음의 진보 역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사역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 역사에 쓰임을 받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사역 일부만을 다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만 집중하여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후 50년 전후에 로마 교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터키의 콘스탄티노플 교회 등이 각각 세워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시리아 교회들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의 중동을 포함한 지역과 페르시아와 아프카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동진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들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까지 복음의 남진이 이루어졌다.

순교자 저스틴(103~165년)이나 터둘리안(155~230년) 같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다.<sup>76)</sup> 주후 7세기에 무함마드에 의하여 탄생된 이슬람의 진출로 인하여 그 교회들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도 초대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갖고 있는 수많은 아랍교회들이 있고, 그들의 수가 지금도 1 천 5백만에서 2천 5백만으로 추정된다.<sup>77)</sup> 아랍권은 복음의 불모지도 아니고 복음의 처녀지는 더욱 더 아니다. 복음의 동서남북진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다. 세계 교회들 통한 복음의 동서남북진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온 토마스 선교사나 만주 땅에 기초를 두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여 사역하였던 로스, 맥킨타이어 등은 스코틀랜드에서 왔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반도까지 동진되었다. 또한 호주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한반도까지 복음을 들고 북진한 선교사들의 수도 작지 않다. 아직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 복음과 더불어 동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선교사들도 그 복음의 동진에 동참하고 있다. 한마디로 복음은 서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동서남북진되고 있다.

#### 5. 백투예루살렘 운동

백투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BTJ) 운동은 복음의 서진 운동과 더불어서 중국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sup>78)</sup> 지금은 중국계 미국인인 토마스 왕(Thomas Wang)이 BTJ 운동의 국제 총재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BTJ 운동을 이끌고 있다.<sup>79)</sup> 최바울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 2004에 참여하여 중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전략적 연

76) Ruth A. Tucker, *선교사 열전(From Jerusalem to Irian Jaya)*, 박해근 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22-26.

77) [http://simple.wikipedia.org/wiki/Arab\\_Christians](http://simple.wikipedia.org/wiki/Arab_Christians), Egypt: 6,000,000 to 11,000,000, Brazil: 6,000,000; Lebanon: 1,100,000, Syria: 1,000,000, United States: 700,000, Jordan: 290,000, Canada: 200,000, Australia: 140,000, Israel: 115,000, Iraq: 5,500.

78) 최바울, *백투예루살렘*, 137.

79) [www.backtojerusalem.com](http://www.backtojerusalem.com).

대들 제안하였다고 한다.<sup>80)</sup> 한국에서는 최바울이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책 *백투예루살렘*과 더불어 BTJ 운동을 이끌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땅 끝이다. 또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재림 장소이다.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 세워진 이슬람의 사원은 무너지고 대신에 유대인의 성전과 유다왕국이 재건된다.<sup>81)</sup>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가. 예루살렘과 땅 끝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그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BTJ 운동을 하는 자들에 따르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지이자 종착지가 된다.<sup>82)</sup>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천국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면 재림 하셔서 인류 역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24:14). 예루살렘만이 땅 끝이 아니라 천국복음이 증거 되지 아니한 곳은 어디든지 땅 끝이다.

#### 나. 예루살렘과 예수의 재림 장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 직후에, 그들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사도행전 1:11)라고 하였다.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단정한다.<sup>83)</sup>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나 땅 끝의 어디에 살든지 간에 신자 불신자들 막론하고 모두 다 예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된다고 하였다(요한계시록 1:7).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

80) 최바울, *백투예루살렘*, 170.

81) Ibid., 144.

82) Keith Intrater, *그 날이 속히 오리라 (From Iraq to Armageddon)*, KIBI 역 (서울: 두란노, 2004), 94.

83) 어떤 미국인은 예수님의 승천 지점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집을 렌트하여 몇 년 동안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 오다가 그 렌트 값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어떤 한국인 목사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지중해 근처의 예루살렘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중, 위성 중계와 같은 방법이 동원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감격하였다고 고백하였다.

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되어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와 역사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 장소를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의 재림으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 다. 예루살렘 성전/유다왕국 재건

백투예루살렘 운동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 운동들의 핵심말씀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편 122:5)이다.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사랑 운동을 전개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두 개의 집 때문이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다(시 122:1). 또 하나는 이스라엘 12 지파를 판단하는 보좌가 있었던 다윗의 집이다(시 122:5). 하나님의 집은 곧 성전이고, 다윗의 집은 유다왕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왕궁이다. 그러나 현재의 예루살렘에는 그 두 개의 집이 없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 따르면, 두 개의 집을 새롭게 지을 자는 다름 아닌 메시아이다. 예루살렘의 두 집인 하나님의 집과 다윗의 집은 곧 메시아 성전과 메시아 왕국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것과 무너진 다윗왕조를 복원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두 과업이다. 그런데 유대교에 속한 자들에 따르면 메시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의 성전과 왕국을 세우기에 앞서 그들의 옛 성전 터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의 두 사원이 먼저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가 곧 메시아가 되어 그의 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셔서 그의 왕국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들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은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메시아 성전도 마찬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 즉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에 거하신다. 성경예언성취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 성취의 장은 땅 끝까지 이르는 온 세상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인들에 따르면,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은 분명하지만 메시아로서의 과업은 아직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수의 메시아 과업의 수행은 그의 초림이 아닌 재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예수는 그의 재림 때, 그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믿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예루살렘에 설치된 그의 보좌에 앉아 회복된 유다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는 메시아 왕국도 아니요, 메시아 성전도 아니요, 성경예언 성취의 주인공도 아니다. 성경예언 성취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삭과 그의 아들인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취의 장은 예루살렘으로 대표가 되는 가나안 땅으로 국한되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의 황금의 돔 사원과 알아끄사 사원이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바울은 그 두 사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대한 알라신들의 신전들이 들어서 있다.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 바위터에는 알라신의 황금 신전이 세워져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무슬림들의 3대 성지로 숭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은 알라신의 통치 영역들이 포진하고 있다. 중동,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이란, 서아시아,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등 타원형의 거대한 이슬람 블록이 강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예루살렘의 주변 직경 3000km에는 더욱 강력한 진이 형성되어 있다. 사단은 이와 같은 원형의 어둠의 진을 만들어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의 행진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둠의 진을 파하는 중보기도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야한다. 강력한 진을 파하는 권세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한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와 금요월야기도운동이 세계 영적전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되어야 한다. 84)

비록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기도운동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두 개의

84) 최바울, *백투예루살렘*, 144, 168.



사원의 주인들이라 할 수 있는 13억 이슬람교도들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그와 같은 선교운동은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 성전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 성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그 왕국과 성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 라.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예언

이스라엘 역사를 약술하여 보는 가운데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적 사건이 될 수 없음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겠다.

##### (1) 유다 왕국의 설립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스라엘)은 죽기 전 그의 열두 아들을 모아 놓고 언젠가는 그 후손들이 유다 왕국을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창 49장). 유다는 그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고,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유다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유다왕국의 건국은 성경 예언의 성취적 사건이었다.

##### (2)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유다 왕국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졌다. 북 이스라엘은 앓수르 제국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하였고(주전 722년) 남 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주전 586년)을 당했다. 성경은 그 두 나라가 각각 멸망당할 것과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예언하였다(신명기 30:1-10; 열왕기상 8:46-52; 열왕기상 8:46-52, 예레미야 18:5-10; 29:12-14; 에스겔 36:33; 호세아 11:10). 그리고 그 두 나라의 멸망은 성경 예언에 대한 성취적 사건이 되었다.

##### (3) 이스라엘의 회복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토로 다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할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예언하였다(신명기 30:1-10; 열왕기상 8:46-52; 열왕기상 8:46-52, 예레미야 18:5-10; 29:12-14; 에스겔 36:33; 호세아 11:10).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후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될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하였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었고 성전도 재건되었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등은 이 회복의 주역들이다. 이 회복은 성경예언에 대한 성취적 사건이었다.

#### (4)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재건으로부터 약 500 년 후, 즉 주후(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 베스파시아스의 아들 디도(Titus) 장군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에 대하여 전혀 예언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들 통해서 이루어졌다(마태복음 21: 40-43; 22:7; 23:37,38; 24:1,2,15이하; 누가복음 19:41-44). 이스라엘이 로마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말씀에 대한 성취적 사건이 되었다.

#### (5)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사건은 신약성경예언의 성취적 사건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예언의 성취적 사건은 될 수가 있는가? 앞서 언급한대로, 구약성경은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왕국이 각각 멸망당하여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토로 다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할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예언하였다(신명기 30:1-10; 열왕기상 8:46-52; 열왕기상 8:46-52, 예레미야 18:5-10; 29:12-14; 에스겔 36:33; 호세아 11:10). 그러나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바벨론의 압제 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성취되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한 번 더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이론적 근거를 구약 이사야 11:11 말씀에 두기도 한다. 그 말씀에 ‘다시’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국가 건설에 대한 예언이 두 번에 걸쳐 성취된다는 것이다.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다음에 건국된 사건이요, 또 한 번은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한 다음에 건국된 사건이라는 것이다.<sup>85)</sup> 그러나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사 11:11)라는 말씀 속에서 사용된 ‘다시’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셨던 사건을 상기시키는 가운데 앗수르로부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sup>86)</sup> 이사야 11:11 말씀과 같은 문맥 속에서 선포되는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다시”라는 표현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게 밝혀진다.

그의 남아 있는 백성을 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  
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사 11:16)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선지자들에 의하여 선포된 말씀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벨론 제국과 앗수르 제국에서 돌아오던 때에 즈음하여 실제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한 유대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건국의 주역들이 된 유대인들은 휴머니스트들이었고 시온주의자들이었고 민족주의자들이었다.<sup>87)</sup> 그렇기 때문에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은 성경예언 성취적 사건이라 할 수 없다.

85) William Hendriksen, *말세론(The Bible on the Life Hereafter)*, 정충하 역(서울: 새순출판사, 1978), 184-5.

86) William Hendriksen, *말세론*, 185.

87) Ibid., 186.

## 제 4 장

###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메시아 왕국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지닌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릇된 이해라 하겠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 소개되는 천년( $\chi\acute{\iota}\lambda\iota\omicron\iota\ \acute{\epsilon}\tau\eta$ )을 기초로 하여 이른바 천년왕국이라고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그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메시아 왕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 후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sup>88)</sup>

#### 제 1 절 요한계시록의 메시아 왕국

요한계시록의 메시아 왕국은 흔히 “천년 왕국”과 동일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에 대한 해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천년( $\chi\acute{\iota}\lambda\iota\omicron\iota\ \acute{\epsilon}\tau\eta$ )”은 계시록 20:2-7에서 매절마다 한 번씩, 총 여섯 번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되었다(2절).  
무저갱에 던져져 그 위에 인봉이 된 가운데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3절).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4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게 되고, 한편 그렇

88)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과 요한복음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동일인일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나(Mounce 31; Smally Thunder, 37-40), 이를 증명할 만한 실제적인 내적·외적 증거는 거의 없다. 이에 관하여는 D. Aune, *Revelation*, WBC 52 (Dallas, Texas: Word Books, 1997), 49-53을 참조하라.

게 살아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5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들에 앉아 왕 노릇한다(6절).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된다(7절)

“천년”에 대한 해석은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두 가지로 나뉜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적 전천년설이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고,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상징적 해석을 지지한다. 필자는 그들 중 무천년설의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 1. 문자적 해석

천년왕국의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보좌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보좌들의 주인공이 되어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자들을 육체적으로 부활한 자들이라 한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점은 천년 왕국 직전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전천년설(Premillennialism)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탄생되었다.<sup>89)</sup>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그 둘의 차이점은 그 보좌들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대한 것이다. 그 보좌들의 주인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요한계시록 20:4중, 하)

이른바 천년왕국의 보좌의 주인공들은 크게 두 그룹이 있다. 한 그룹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즉 순교자들의 영혼들이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이들의 정체에 대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

89) Vern S. Poythress, *요한계시록 백잡기(The Returning King)*, 유상섭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2), 200.

주의적 전천년설 사이에 견해가 다르다. 전자는 두 그룹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보는 반면, 후자는 유다왕국의 혈통적인 후손들, 즉 유대인들로 본다.<sup>90)</sup>

#### 가.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의 대표적 학자들로는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친 교부 시대의 순교자 저스틴(Justin), 이레니우스(Irenaeus), 터툴리안(Tertullian), 바나바(Barnabas), 메쏘디우스(Methodius), 락탄티우스(Lactantius), 빅토리누스, 가칭 바나바, 파피아스, 메쏘디우스, 락타니우스, 코모디아누스, 테오필루스, 멜리토, 히포리투스 등이 있다. 그리고 현대 신학자로는 조지 엘든 래드(George E. Ladd)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박형룡, 박윤선 등이 있다.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의 보좌들의 주인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순교자들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그룹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사탄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었던 자들이다.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의 보좌들의 주인공들이 된다.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 함은 육체적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즉 최후 심판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에 던져지지 않는다(계시록 20:6). 그러나 그 최후 심판 날, 즉 천년 왕국이 끝나는 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불신자들의 육체적 부활이 곧 둘째 부활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에 던져진다(계시록 20:15).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천년이라는 긴 기간의 차이를 두고 이루어진다.<sup>91)</sup>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모두 다 육체적 부활이다. 그리고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되고, 둘째 부활은 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로 재림 때 일어나지 않고 천년이 지난 다음, 즉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있게 된다는 것이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놓여 있다.

그런데,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이 천년 동안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다

90) Vern S. Poythress, *요한계시록 백잡기*, 198.

91) Ibid., 198.

는 설명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신약성경은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을 동시적 사건으로 한 결 같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예전대, 사도행전 17:32; 23:6; 24:15; 고린도전서 15:12; 히브리서 6:2).

역사적 전천년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크게 약화시킨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천년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이라는 옥에 갇혀있던 사단이 옥에서 풀려 나와(계시록 20:1-3),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된 천년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계시록 20:7-10). 리델보스는 “천년 간의 간주곡”에 관한 이 개념을 성경적 종말론을 가로막는 주요한 결함물로 여겼다.<sup>92)</sup> 역사적 전천년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최후 심판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도 그리스도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계속 함께 살아간다는 셈이 된다.<sup>93)</sup> 후크마는 천년왕국에 대한 역사적 전천년설적 이해에 대하여 “신학적 변질”이며, “이것은 완전히 현 시대도 아니고 완전히 다가 올 시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sup>94)</sup> 벤키우어는 신약의 전체적인 증거로 볼 때, 전천년설 종말론은 그 안에 커다란 모호성을 함께 세워간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선 한편으로 재림하여 강한 자들 결박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고, 다른 한 편으로 악마의 현재적 존재와 함께 지속되는 활동을 말한다.<sup>95)</sup>

#### 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는 넬슨 다비(John Nelson Darby, 1800-1882)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는 19세기 분리 주의 운동의 하나인 폴리머스 형제단 소속으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서문을 쓴 사람이다. 그전에 세대주의 체계를 제시한 인물로는 노리의 존 테일러(John Talor of Norwich, 1694-1751), 존 플레치어(John Flechiere, 1729-1785), 데이비드 보그(David Bogue, 1750-1825), 아담 클라크(Adam Clarke, 1762-1832), 존 프리스틀리(John Preistly, 1733-1804) 등과 그 후 시대인들로 클라렌스 라킨

92) Herman N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5), 559.

93) Anthony Hoekma,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1976), 180-181.

94) Ibid., 180-181, 186.

95) G. C. Berkouwer, *The Return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72), 306.

(Claence Larkin)과 스코필드(C.I. Scofield) 등이 있는데, 이들은 고전적 세대주의자들로 분류된다. 그들은 세대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라고 불리지만, 세대주의의 최초 주창자 이름을 따서 다비주의(darbyism)라고도 하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운명을 별개로 본다는 의미에서 이중운명주의(dual destinationism)라고도 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들 위한 의의를 분리하여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이분수신자주의(addressesee bifurcationism)이라고도 한다.<sup>96)</sup>

세대주의라는 말은 그 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세대주의라는 신학체계를 따르는데서 비롯되었다.<sup>97)</sup> 그 체계는 역사를 일곱 세대, 또는 시대로 나눈다.<sup>98)</sup> 지금은 교회 시대이고, 앞으로 천년 왕국 시대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세대주의의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세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다. 둘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후손들, 곧 다윗 왕으로 시작된 유다 왕국의 후손들이라는 것이다.<sup>99)</sup> 셋째는 교회와 이스라엘과의 뚜렷한 구별이다. 찰스 라이리의 아래와 같은 설명을 듣고 나면, 왜 세대주의가 위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지

96) Robert Saucy는 그의 책 *The Church in God's Program* (Chicago: 1972), 70. 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자기 청중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아(행2:22)라고 부를 때 명백하게 이스라엘을 물리적인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이지 교회에 속한 이스라엘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97)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라 할 때, ‘세대’의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노미아”이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dispensation”으로 번역되는데, 라틴어의 “dispensatio”에서 온 것이다. 이 라틴어는 “나누어주는 행위”, “행정”, “관리”등을 의미한다.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의 다양한 형태가 신약에 17번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로는 누가복음 16:2에 단 한번 사용되었고, 명사의 형태로는 16번 사용된다. 이 단어들은 각각 “청지기”(눅12:42; 16:1,2,8, 고전4:1,2, 갈4:2, 딤후1:7, 벧전4:10), “재무”(롬16:23), “청지기직”(눅16:2,3,4) “경륜”(고전9:17,엡1:10; 3:2 골1:25) 등으로 사용된다. 이들 성경구절에 따르면, “오이코노미아”는 “집 안 일이나 도시의 재정을 맡아 경영하는 것” “재산을 관리하는 것” 등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일정한 “기간”, 혹은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Charles Caldwell Ryrie,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Dispensationalism's Today)*, 정병은 역 (서울: 진도출판사, 1966), 26-28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98) C.I. Scofield 는 그의 주석 성경에서 세대에 대하여 다음과 정의를 내렸다. “세대란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계시에 대한 순종과 관련하여 시험을 받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일곱 개의 세대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스코필드는(1843-1921)는 역사를 (1) 무죄(창조), (2) 양심(홍수이전), (3) 인간통치(홍수이후), (4) 약속(아브라함), (5) 율법(모세에서 선지자들), (6) 은혜(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이), (7) 왕국(예수님 재림이후 1,000년) 시대로 나누었다.

99) Bal J. Sauer, *평신도를 위한 종말론(The Eschatology for Laymen)*, 정홍렬 역 (서울: 나눔서원, 1994), 41-42.



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미래의 약속들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수 있으려면, 그것들이 성취될 수 있는 천년이라는 미래의 기간이 존재해야 한다(계 20:1-10). 교회는 현재 그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성취를 위해 남겨진 유일한 시간은 천년 왕국 기간이다.<sup>100)</sup>

세대주의자들에 따르면, 초림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왕국의 후손들과 더불어 유다왕국을 회복하고자 하였는데 그들이 그를 거역하여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예언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과 더불어 자신의 교회들 세우게 되었고,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더불어 그의 교회들 세우게 함으로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도록 하였다.<sup>101)</sup>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재림하신 다음에는 그가 초림 때 이루지 못한 일을 꼭 이루게 될 것이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뉘우치며 잘 믿게 되는데,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지만 살아서 잘 믿게 된다는 것이다. 즉 유대인들이 이른바 칠년 대 환난의 기간을 잘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이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 다시 말해서, 유다 왕국의 혈통적 후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됨으로 유다 왕국이 회복된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대표가 되는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회복된 왕국이 곧 천년왕국이라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한 번도 언급이 없는 땅, 그것도 특별히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과 그 땅에 재건될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방인들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지닌 유대인들을 첨가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sup>102)</sup>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위에 살아 있게 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

100) Charles Caldwell Ryrie,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Dispensationalism Today)*, 174.

101) Ibid., 175.

102) Martyn Lloyd-Jones, *교회와 종말에 일어난 일들(The Church And The Last Things)*, 장광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257.

어 구원 얻게 될 자들뿐이다.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들이 되었던 로마제국의 핍박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의 주님을 위하여 순교적 삶을 살코자 노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가 되고 만다.<sup>103)</sup>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유대인들 중심의 천년왕국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 직전에 칠년 동안의 대 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 환란 직전에 휴거되어 하늘에 거하게 될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에 교회의 휴거가 있을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신자들에게 임할 축복이 “부활이 아니라 승천”이라고 강조한다.<sup>104)</sup>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시대는 팔호시대, 또는 막간(an interlude)일뿐이다.<sup>105)</sup> 구약예언의 성취의 주인공은 오직 유대인들인데, 그들에 대한 예언 성취가 중단된 기간이 곧 교회 시대라는 것이다. 교회 시대는 결국 구약예언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주인공이 된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감되고, 유대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재개될 터인데, 바로 그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다. 그 천년 왕국은 지상에 있게 되고, 교회는 휴거되어 천상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교전적 세대주의자들은 1948년 5월 14일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1967년 6월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동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됨에 따라, 이른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블랙스톤(W.E. Blackstone)과 같은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시온주의 운동을 위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라고도

103) 세대주의자들에 따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디모데후서 2:15)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고린도전서 1:32)가 아주 중요하다. 그들은 그 두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유대인, 헬라인, 교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경 말씀을 시대적으로 옳게 구분하여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해당되는 것은 교회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Clarence Larkin, *세대적 진리(Dispensational Truth)*, (서울: 말씀보존학회, 1997) 37.

104) John F. Walvoord, *The Return of the Lor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0), 149.

105) 홍창표, *천년왕국* (서울: 합신대출판부, 2007), 18.

일컬어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까지 미국의 제리 폴웰(Jerry Falwell)과 팻 로버슨(Pat Robertson) 등의 이스라엘을 위한 정치적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sup>106)</sup> 그런데 그들의 후배들 중에 현재의 이스라엘 나라와 거리를 두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 선배들을 고전적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수정 세대주의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이다.

수정(Revised) 세대주의는 고전적 세대주의로부터 교육을 받아 그들의 교리를 새로운 경향으로 수정한 그룹을 말한다.<sup>107)</sup> 수정 세대주의자들로는 앨바 제이 맥클레인(Alva J. McClain), 존 월부어드(John Walvoord), 찰스 라이리(Charles Ryrie), 제이 드와이트 펜티코스트(J. Dwight Pentecost), 스탠리 투세인(Stanly Toussaint) 등이 있다.<sup>108)</sup> 점진적 세대주의는 1980-90년 초에 걸쳐 역사적 문화적 성경해석을 통해 수정 세대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두 목적 두 백성의 이론을 부인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 세대주의들 말한다. 점진적 세대주의자들로는 크레이그 블레이징(Craig A. Blaising), 대럴 박(Darrell Bock), C.M. 페이트(Pate), 로버트 쏘시(Robert L. Saucy) 등이 있다. C.M. 페이트는 점진적 세대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1) 이미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었으며,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과의 관계들 끊지 않으셨고,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자신과 메시아 예수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 2) 하나님의 나라(내세)는 하늘에서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땅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바, 그의 재림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그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 3) 세대의 징조(메시아의 재난)는 1세대 기독교인들의 당대에 시작되었으나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하여 대 환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대 환난은 미래에 속한 일이며 교회(이스라엘 제외)는 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sup>109)</sup>

106) Craig A. Blaising & Darrell L. Bock, *하나님 나라와 언약(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박철호 역 (서울: CLC, 2005) 35.

107) 이들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시대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토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될 것이라 주장하는 점에서는 고전적 세대주의와 공통적이다. 그러나 산상보훈이나 주기도 같은 보훈을 오늘날 교회를 위한 것으로 본다. 사실 이들은 언약신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극구 부인하지 않는 경향을 띠었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은 1950~60년 초의 저술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60~70년대 세대주의 사상을 대표하게 되었다.

108) Craig A. Blaising & Darrell L. Bock, *하나님 나라와 언약*, 35.

109) C. M. Pate,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4가지 견해(Four views on the book of revelation)*,

수정 세대주의자들이나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이 현재의 이스라엘 나라와 거리를 두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이 회개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건국 후에도 그 민족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도 혈통적인 유대 민족이 회개하여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장차 건설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 역시 친이스라엘적이며 예루살렘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슬람권을 자극하는 고전적 세대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점에 대하여 자칭 점진적인 세대주의자라고 자처하는 크레이그 블레이징(Craig A. Blaising)이 그의 동료 데럴 박(Darrel L. Bock)과 함께 쓴 책 *하나님 나라와 언약(Progressive Dispensationalism)*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모든 세대주의자들이 현대 시온주의 운동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정치적, 국가적 회복이라는 축복의 예언이 다음 세대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 또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종종 성경 해석상 이스라엘 국가를 항상 두드러지게 만드는 세대주의자들의 일관성 있는 주장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sup>110)</sup>

## 2. 상징적 해석

천년왕국의 천년에 대하여 상징적 해석을 하는 자들도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이고, 또 하나는 무천년설(Amillennialism)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네 가지이다. ①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다. ② 영적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③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천년의 기간도 상징적이다. ④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끝난다. 차이점은 하나뿐이다. 천년왕국의 시작점이 언제인가이다. 천년왕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후천년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 무천년설이다.

이세구 역 (서울: 아가페, 1999), 233.

110) Craig A. Blaising & Darrell L. Bock, *하나님 나라와 언약*, 33.

### 가.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

천년왕국이 먼저 세워지고 그 왕국이 끝난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의 전개가 이 시대의 장래에 최대한으로 발달할 것을 기대한다.”<sup>111)</sup> 이 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불러 올 이른바 “복음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을 믿는다.<sup>112)</sup> 후천년설주의자인 로레인 보트너(Loraine Boettn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시대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세계 인구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천년왕국 시대로 점점 들어가는 것이다.... 천년왕국의 도래는 여름이 오는 것과 같은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천천히 그리고 매우 장엄한 스케일로 임할 것이다.<sup>113)</sup>

후천년설자들은 기독교적인 원리들이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기독교화 된 세상이 펼쳐질 것을 믿고 있다. 무천년주의자 안토니 후크마는 이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낭만적인 단순화로서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 확실히 그리스도는 죄와 사탄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 따라서 싸움의 최종 결과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의 적들과의 대립은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sup>114)</sup>

고든 J 스파이크만은 “사회복음”을 외치는 현대 자유주의가 성경적 후천년설적 천년왕국 사상의 급진적인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15)</sup> 자유주의자들은 “진화가 점점 천년 왕국을 가져 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sup>116)</sup>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이 후,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어떤 신학자는 “후천

111) Hendrikus Berkhof, *Christ the Meaning of History*, (Richmond: John Knox Pres, 1966), 166.

112) Gordon J. Sparkman, *개혁주의 신학(The Reformational Theology)*, 류호준, 심재승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631.

113) Robert G. Clouse, *The Meaning of Millennialism* (Downers Grove, Ill.: Inter Varsity Press, 1977), 129,133.

114)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종말론(The Bible and The Future)*, 유호준 역 (서울: 기독교서선교회, 1986), 180.

115) Gordon J. Spakman, *개혁주의 신학(The Reformational Theology)*, 630.

116)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7), 717.

년설은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117)</sup>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서로 정반대이며, 심지어는 서로 배타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대기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둘은 비록 다른 시간표에 근거하지만, 모두 천년 왕국을 “천년”의 기간이라는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황금시대”의 기간으로 본다.<sup>118)</sup> 후천년설은 현재의 창조 세계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관점을 갖고 그 천년의 황금시대를 기대한다. 전천년설은 현 세대에 대하여 아주 비관적이다. 전 천년설주의자들은 이 세상에는 오직 지속되는 환난과 시험만이 있으며, 결국 사탄의 세력에 의한 극한 대 환난의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한다.<sup>119)</sup> 그러나 무천년설이 후천년설의 문화적 낙관주의와도 구별되며, 전 천년설의 문화적 비관주의와도 구별된다.<sup>120)</sup>

#### 나. 무천년설(Amillennialism)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 ‘무천년’이라는 단어 자체에 만족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무’(영어로, "a")라는 의미가 마치 천년 왕국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이다. 홍창표는 “시작된” 천년설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하였다.<sup>121)</sup> 제이 아담스는 무천년설이 “천년왕국의 ‘설명을 없애버리는’(Explained Away)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무천년설이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의 책 *The Time is at Hand*에서 제안하기를 무천년주의라는 용어는 실현된 천년설(Realized Millennialism)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22)</sup> 그리고 고든 J. 스파이크만은 무천년설이라는 용어 대신에, 천천년설(Promillennial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sup>123)</sup>

이제 보다 나은 천년기의 이해를 위해서 부정 접두사를 가진 무천년설로

117)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631.

118) Gordon J. Sparkman, *개혁주의 신학(The Reformational Theology)*, 634.

119) Ibid., 634.

120) Ibid., 635.

121) 홍창표, *천년왕국*, 29.

122) Jay Adam, *The Time Is at Hand*, Nutley, N.J.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0), 107.

123) Gordon J. Sparkman, *개혁주의 신학(The Reformational Theology)*, 637.

부터 천천년설(Promillennialism)로 전환함이 필요하다. 여기서 접두사 "pro"는 "을 위한"이라는 의미이다.

루이스 벨코프는 무천년설이 "기독교 교리만큼이나 오래된 신학"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무천년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관점으로서... 교회의 위대한 역사적 신앙 고백 안에 표현되거나 내포된 유일한 관점이다"라고 했다.<sup>124)</sup> 무천년설의 천년왕국 개념은 역사적으로 티고니우스와 어거스틴(주후 354-430)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거스틴의 천국 개념은 루터와 칼빈의 개혁신학으로 이어져 무천년설 관점이 곧 개혁주의적 관점이 되었다.<sup>125)</sup>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무천년설 해석의 기초가 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구비하여 보자.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 사단의 결박, 천년, 보좌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왕 노릇 등에 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 (1)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

요한계시록의 문학 구조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다. 윌리엄 헨드릭슨(William Hendriksen)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메시아 왕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구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를 제시하였다. 점진적인 평행법(Progressive Parallelism)이라는 계시록의 틀이다.<sup>126)</sup> 계시록에 7번에 걸쳐, 예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기간이 반복되어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곱 번째에 이르기까지 최정점(The Great Climax)을 향한 점진적인 발전이 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소개하고 있는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첫째 단락(1-3장), ② 둘째 단락(4-7장), ③셋째 단락(8-11장), ④ 넷째 단락(12-14장), ⑤다섯째 단락(15-16), ⑥ 여섯째 단락(17-19), ⑦ 일곱째 단락(20-22장). 각 단락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한 다양한 묘사가 나온다. 이제 계시록 일곱 번째 단락에 집중하여 보자.

124) Gordon J. Sparkman, *개혁주의 신학*, 708.

125) Ibid., 638; 홍창표, *천년왕국*, 31.

126) William Hendriksen, *요한계시록(More Than Conque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김영익, 문영탁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3), 11-64.

## (2) 사단 결박의 의의

사도 요한은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그 손에는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음을 보았다. 무저갱은 최후 심판 때까지의 지옥을 말한다(누가복음 8:31, 요한계시록 20:1-3). 심판 후에 이 지옥은 ‘불못’이라고 불리어진다(요한계시록 2-:14,15).<sup>127)</sup> 그 무저갱은 깊은 동굴인데<sup>128)</sup>, 손잡이와 문이 있다(요한계시록 9:1). 그 문은 열 수 있고(요한계시록 9:2), 잠글 수도 있다(요한계시록 9:3). 그리고 그 천사에게는 쇠사슬이 있다. 그 천사는 그 쇠사슬로 용을 잡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 천사에 의해서 붙잡혀 무저갱에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만국을 미혹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단은 천년의 기간이 끝남과 더불어, 잠깐 놓이게 되어 다시 만국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다.

용, 곧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그가 쇠사슬로 결박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전천년설자들도 사단의 결박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들은 천년만큼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로이드 존스는 그들에 대하여 “이론의 편리함에 맞추기 위해 골라 선택하는 것은 진정한 해석법이 아니다. 이 장이 상징주의로 시작된다면 왜 동일한 방식을 계속 사용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였다.<sup>129)</sup> 일찍이 하나님께서 짐승은 로마제국의 황제를 상징한다고 그의 선지자 다니엘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셨다(다니엘 7:17). 짐승도 상징적으로 해석되고, 용이 쇠사슬에 결박되었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sup>130)</sup>

## (3) 천년의 의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보좌에 앉아 왕 노릇 하는 기간이 일천년( $\chi\acute{\iota}\lambda\iota\alpha \epsilon\tau\eta$ )이다. 1,000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여섯 번(계 20:2, 3, 4, 5, 6, 7) 사용되고

127) William Hendriksen, *요한계시록*, 144.

128) Ibid., 229.

129) Martyn Lloyd-Jones, *교회와 종말에 일어난 일들(The Church And The Last Things)*, 257.

130) 용의 결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성경 말씀들(마태복음 12:29, 누가복음 10:18, 요한복음 12:31-33 등): 266-268을 참조하라.



있는데, 여섯 용례 모두 상징적으로 보아야 한다.<sup>131)</sup> 덤브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년의 등치는 마지막, 천상의 안전을 상징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사단의 결박,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천년의 등치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언어이다.<sup>132)</sup>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기간, 즉 전체 기간을 상징한다. 천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이다.<sup>133)</sup>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처음에는 삼년 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삼년 반이라는 기간은 1260일(계12:6), 한 때 두 때 반 때(계12:14), 마흔 두 달(계13:5)로 각각 소개된다. 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처음에는 삼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밝혔는가? 그것은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왜 나중에는 1,000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밝혔을까? 천년이라는 오랜 기간으로 상징되는 기간 동안 메시아의 다스림이 있게 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sup>134)</sup> 요한계시록의 상징성이 파악되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어이없는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천년이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20:1-6에서만 소개되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인 안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B.B. 워필드가 “분명한 데서부터 시작하여 다소 모호한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연구순서이다”라고 남긴 말은 요한계시록의 “천년”을 해석하는데 적절한 지침이 된다.<sup>135)</sup>

#### (4) 보좌에 앉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계시록에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47회 걸쳐 나온다.<sup>136)</sup> 사단의 보좌나 짐승의

131) 유대 문헌에서도 메시아 시대를 시 90:4에 기초하여 1천년으로 제시한 예가 있는데, Jubilees 23:27-30; 2 Enoch 25-33; Barnabas 15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9), 1017-21을 참고하라.

132) William Dumbrell, *언약신학과 종말론(The Covenant Theology and the Eschatology)*, 정세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440.

133)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2), 220; Philip. E. Hughes, *요한계시록(The Book of Revelation)*,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4), 304.

134) Richard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Edinburgh: T& T Clark, 1999), 151.

135) W.J. Grier, *재림과 천년왕국(The Momentous Event)*, 명종남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7), 138.

136) 문장에 따라서는 ‘보좌’라는 표현 대신에 ‘왕관,’ ‘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다윗의 자손,” “새벽 별”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한다.

보좌(계2:13;13:2;16:1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44회) 다 하늘에 있는 보좌들이다.<sup>137)</sup>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도 네 짐승들과 구별된 분들을 위한 왕좌들<sup>138)</sup>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다니엘 7:9). 그 왕좌들은 세상 왕국의 왕들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아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the Ancient of Days)”, 즉 성부 하나님의 보좌였고, ‘인자 같은 이’,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그의 백성들의 보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늘에 있는 보좌들이었다.<sup>139)</sup> 계시록의 보좌들도 다니엘의 보좌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다.<sup>140)</sup> 계시록 20:4의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 앉아 있는 보좌들도 하늘에 있다. 그들의 몸은 지상에 있고, 그들의 영혼들만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sup>141)</sup>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다(예전대, 사도행전 7:14).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목 베임을 받은 ‘영혼들’”이 아니고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었다.

사도 요한은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첫째 부활, 곧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소개하였다. 언젠가 그들이 둘째 부활, 곧 육체적인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육체에서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sup>142)</sup>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즉 주후 1세기경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sup>143)</sup> 그러나 그들의 몸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고 있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1세기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또 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요한계시록 20:4중, 하).

137) Leon Morris, *The Revelation of St.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1), 236.

138) 우리 한글 개역성경은 ‘왕좌들’이라는 복수를 ‘왕좌’라는 단수로 잘못 번역하였다.

139) 다니엘의 보좌들에 관하여는 제 2 절 요한복음의 메시아 왕국에서 자세히 다루자.

140) Martyn Lloyd-Jones, *교회와 종말에 일어난 일들(The Church And The Last Things)*, 256.

141) Ibid., 258.

142) Ibid., 258.

143) William Hendriksen, *요한계시록(More Than Conque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101.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밝히기 전에 중요한 사실은 그들도 순교자들의 영혼들처럼 “살아서”, 즉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이다(요한 계시록 20:4하).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헨드릭슨에 따르면, 그들은 순교자들과 달리 아직 죽지 않고 이 땅 위에서 “계속 살아 있는 자들”로서, 요한복음 5:25의 거역난 자들, 곧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을 의미한다.<sup>144)</sup>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5:25은 거역난 자의 지상에서 삶은 첫째 부활의 앞 단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은 거역난 자의 천상에서의 삶, 즉 첫째 부활의 뒤 단계라고 해석한다.<sup>145)</sup> 그 점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중요한 것은 순교자들의 첫째 부활의 시점이 언제인가이다. 그것은 순교한 후부터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던 때부터라는 것이다. 사도 요한 시절에는 순교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이 곧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짐승은 다름 아닌 로마제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다는 표현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표현은 사도 요한 당시 황제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삶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도 순교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곧 하늘 보좌에 앉아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유대 묵시문학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그들 중의 하나는 공간적, 시간적 초월성이다. 요한계시록은 공간적 초월로서의 하늘과 시간적 초월로서의 종말을 근간으로 하여 교회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하여 이필찬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것은 교회가 현재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승리한 교회로서 하늘에 존재하며 그 하늘에서 교회는 종말을 경험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다... 가장 먼저 계시록 2-3 장에서 일곱 교회는 당연히 땅에 존재하는 지역교회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놀랍게도... 4-5장에서는 하늘에 앉

144) William Hendriksen, *요한계시록*, 237.

145) William Hendriksen, *요한복음 삼(John I)*, 문창수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9), 268.

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24 장로들을 통해 알려진다.<sup>146)</sup>

이필찬은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 곧 교회라고 주장한다.<sup>147)</sup> 그들은 “하늘에 거한 자들”이다(계시록 12:11-12, 13:6).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과 대조가 된다(계시록 11:10; 13:8; 17:8). 이필찬은 ‘거하다’라는 헬라어 동사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하늘에 거한 자들”의 ‘거하다’라는 동사는 ‘카토케이오’이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의 ‘거하다’는 ‘스케노오’이다. 후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요한복음 1:14; 히브리서 8:2-3, 9:11). 이필찬은 왜 요한이 ‘거하다’에 대한 동사들 두 가지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중요한 답을 한다.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사람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러한 구분은 지정학적 구분이 아니고 종교적인 구분이다. 전자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로서 언제나 짐승을 따르며 짐승을 경배하며... 그러나 반대로 후자, 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장막이며(13:6),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며(3:12),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이며,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요한계시록 20:4)<sup>148)</sup>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구분은 지정학적 구분이 아니고 종교적인 구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요한계시록 20:6).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다(요한계시록 20:14).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 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요한계시록 20:15). 그렇다면, 언제 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녀 온 후 기뻐 돌아와 보고하는 그의 이른바 70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146)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260.

147) Ibid., 217.

148) Ibid., 265.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20)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장차 하늘에 '기록 될 것으로'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sup>149)</sup> 그 점에 대하여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인가? ... 그것은 바로 거듭남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그 '영혼들'은 육체들 입지 않은 영혼 상태에서 거하고 있지만, 그들은 살아 있다. 그들은 죽음을 통과한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면에서 거듭남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5에서 이 단어들을 그와 같이 해석할 때 억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sup>150)</sup>

이필찬은 첫째 부활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두 가지로 생각한다. 넓은 의미로서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서는 성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건을 지칭한다.<sup>151)</sup>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늘 보좌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이다. 요한 계시록에서 보좌의 첫 번째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요한계시록 1:4)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보좌의 주인공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고, 세 번째 주인공은 그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다(요한계시록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요한계시록 3:2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가운데 하늘 보좌의 주인공이 된 자들은 24 장로들로 구체화된다(요한계시록 4:4). 24는 구약의 12 지파의 12와 신약의 12 사도의 12를 합친 수이다. 그들은 곧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sup>152)</sup>

149) William Dumbrell, *언약신학과 종말론*, 440.

150) Vern S. Poythress, *요한계시록 백잡기*, 200.

151)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220.

152) William Hendriksen, *요한계시록*, 101.

24 장로들로 대표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 보좌를 부여받게 된 자들이요,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 (5)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곧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며(계시록 13:8), 언제나 짐승을 따르며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의 사역을 경이롭게 생각하며(계시록 17:8; 13:8,12),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계시록 6:10), 두 종인의 죽음을 기뻐하며(계시록 11:10), 짐승에게 미혹을 당하여 그의 우상을 만들며(계시록 13:14), 바벨론의 음행의 잔으로부터 취하는 자들이다(계시록 17:2). 한마디로, 그들은 본질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sup>153)</sup>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천년의 기간인 교회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심판 날에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진다(요한계시록 20:14).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들의 주인공들은 바다로 부터 나온 네 짐승들(사자, 곰, 표범, 열빨 달린 짐승)로 상징되는 세상왕국의 왕들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와 “인자 같은 이”와 그의 “성도들”임을 발견한다(다니엘 7장). 그리고 그 왕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다.

그렇다면,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겪게 되는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말씀, 즉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히브리서 9:27)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볼 때, 사람의 육체적 죽음이 곧 첫째 사망이다.<sup>154)</sup> 그리고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몫이 된다(계시록 20:6).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곧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과 대조가 된다. 전자에는 불신자들이 참여하고, 후자에는 신자들이 참여한다. “이긴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계시록 2:11, 21:8).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영생을 얻었던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자들이다(요한복음 5:24-25). 그리고 그들이 곧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며,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다(요한복음 5:29상). 그러나 “이기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계시록 21:8).

153)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264-265.

154) Ibid., 220.

### (6)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우리는 앞에서 요한 계시록 20:5-6에 처음 등장한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로 해석한 가운데, 사도 요한이 앞으로 있게 될 육체적 부활을 둘째 부활로 암시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사도 요한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암시하고 있는 다른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1).

번 S. 포이레스(Vern S. Poytheress)는 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첫째와 둘째(또는 마지막)라는 대칭 구조가 세 번에 걸쳐 제시되고 있음을 의미 있게 지적한다. 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②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③ 첫째 하늘과 첫째 땅, 그리고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며, 결국 마지막 하늘과 마지막 땅이다. 번 S. 포이레스는 첫째와 둘째에 대한 세 번에 걸친 대칭 설명을 통해서 둘째 부활의 의미를 추론한다.

첫째 하늘과 땅 그리고 둘째 하늘과 땅이 있는 것 같이(요한 계시록 21:1), 첫째 사망과 마지막 사망이 있다. 더욱이 저주로서 첫째 사망은 더욱더 무시무시한 둘째 사망의 도래를 표시한다(참고, 창세기 3:19). 이러한 사실들은 첫째와 둘째 부활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첫째 부활은 첫째 죽음과 같이 예비적이다. 둘째 부활은 분명하게 육체적인 부활이다. 그것은 분명히 첫째 죽음, 곧 육체적인 죽음의 치유이다. 155)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는 “둘째”처럼 완성 또는 마지막이라는 뜻이다.<sup>156)</sup>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던 자들이 최후 심판을 거친 후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새 예루살렘이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난 후 갖게 된 그의

155)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200.

156) 사도 바울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첫 사람 아담이라고 일컬음과 동시에, 예수를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사람이라고 일컬었다(고린도전서 15:45-47). 그 점에 대해서는 제 6장 5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첫 인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시록  
21:2)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예비 된 신부 같더라고 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최대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시록 21:2하)고 하였다. 새 예루살렘은 성곽이 있고, 성문이 있는 도시였다. 그럼에도 그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도시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인격체로 묘사하였다. 그 도시가 그에게 아주 아름다운 인격체로 다가왔던 것 같다.<sup>157)</sup> 그때 한 천사가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계시록 21:9)라고 선포하였다.(계시록 21:9-11).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의 결혼한 바가 될 것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잿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뽕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들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1-5)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쑥은 새 예루살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교회라는 말쑥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그의 보혈로 구속받은 교회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외의 어떤 다른 것도 의미할 수가 없다.<sup>158)</sup> 안토니 후크마는 그의 책, 개혁주의 종말

157) 사도 요한은 두 도시를 비교하고 있다. 하나는 음녀 바벨론이며,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다. 물론,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 바벨론과 로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특별히 바벨론과 로마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무너뜨린 장본인으로서 치명적인 피해를 준 국가를 상징하는 도시이다.



론에서 새 예루살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계시록 21:2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용어이다. 바로 이 도성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있음이 묘사되고 있다. 전혀 흠도 티도 없는 이 교회는 마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이며 장차 “어린양”(계시록 19:7)과 결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2절로부터 우리가 배울 사실은 영화롭게 된 교회는 저 우주 어느 하늘에 있게 될 것이 아니라 새 땅 위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sup>158)</sup>

첫째/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둘째 부활, 곧 육적 부활에 참여한다. 그런데 그 둘째 부활은 궁극적으로 둘째 하늘과 둘째 땅,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요소들이 상징하고 있는 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sup>160)</sup>

우선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144 규빗이라고 하였다.. 144는 12×12로서,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교회와 성취로서의 신약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요한은 이 성벽을 통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sup>161)</sup> 우리는 그 사실을 성벽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참조: 에스겔 48:30-45)과 성벽의 열두 기초석에 열두 사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여러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통해서 여러 보석들로 이루어졌던 에덴동산의 이미지들 떠올릴 수가 있겠다. 다시 말해서, 에덴의 회복으로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다. 새 에덴은 메시아와 함께 도래하는 종말론적 축복으로서 새 예루살렘과 공존한다.<sup>162)</sup>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룩하는 종말론적 완성은 첫 창조의 회복이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하여 스파이크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58)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246.

159) Anthony A. Hoekema, *개혁신학의 종말론(The Bible and The Future)*, 381.

160) Ibid., 246.

161) Ibid., 246.

162)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275.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종말론은 시원론(protozoology)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속에서, 종말에 모든 일들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전망은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타락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 다가올 구속의 승리를 선포하셨다(창세기 3:15). 이스라엘이 남긴 유산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이다. "시대의 종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복음의 말씀 속에서, 삶, 죽음,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은 현재적 실재로서 나라의 삶을 향하는 문을 열었다. 그것은 이미 이 "마지막 날들"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다.<sup>163)</sup>

계시록 22장은 에덴의 회복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을 풍성하게 제공한다. 우리는 보석 모티브들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생명수 강물 모티브들 통해서도 새 예루살렘을 에덴동산의 회복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창세기의 에덴동산에는 동산 꼭대기로부터 네 개의 강으로 그 물이 흘러나온다(창세기 2:10-14).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계시록 21:1에서는 그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왜 강물의 원천의 변화가 생겨났을까? 에덴동산과 에스겔의 성전을 통해서 기대했던 바가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에덴동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서 생명수 샘물의 원천이 되신다.<sup>164)</sup>

우리는 생명수 강의 양 옆에 있는 매달 열두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들 통해서 에덴의 회복으로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계시록 22:2). 첫 창조 때 아담 내외에게 주어졌다가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이제 종말에 교회들 위해 마련된 것이다.<sup>165)</sup>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하였다(계시록 22:2).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다고 하였다(계시록 22:3상). 에덴동산에서 아담 내외가 죄를 범함으로 입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 저주가 없어졌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계시록 22:3)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다.<sup>166)</sup>

163) Gordon J. Sparkman, *개혁주의 신학(The Reformational Theology)*, 630.

164) Ibid., 254.

165) Ibid.

166) Ibid.

아담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창세기 3:9-11), 그의 후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다(출애굽기 33:20,23).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새 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 (7)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주어진 창조의 법령으로서 주어진 바가 아담의 왕 노릇이었다(창세기 1:26-28). 창세기 1장 26-28의 맥락과 관련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우리는 말 “다스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라다’ (“통치하다”, “다스리다”)가 그 밖의 다른 구약 본문에서 왕적 기능의 수행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cf. 왕상5:24; 이사야 14:6; 에스겔34:4; 시편72:8; 110:2).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분명히 왕으로서의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엄성과 역할을 제시하는 표현을 통해 인간이 6일 동안의 창조사역의 절정이 됨을 증거한다.<sup>167)</sup> 아담의 왕 노릇은 에덴동산의 들짐승들과 새들에게 각각 이름을 구별하여 주는 가운데, 그들의 주인이 됨으로서 구체화되었다.<sup>168)</sup> 그러나 아담이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뱀을 통하여 유혹을 받아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뱀이 간교하게 되어 아담의 아내를 유혹하게 된 것은 그의 배후 세력 때문이었다. 창세기는 그 배후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후세력이 곧 마귀라고 밝히셨다(요한복음 8:31,40,44). 그리고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부르는 표현 역시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뱀의 거짓말, 즉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를 상기시켜 준다.<sup>169)</sup> 예수께서는 뱀을 마귀의 대변자로 보신 것이다.<sup>170)</sup> 사도 요한도 그의 계시록에서 창세기 3장의 뱀과 사탄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

167) William J. Dumbrell, *언약신학과 종말론(The Covenant Theology and the Eschatology)*, 220.

168) Gerard Van Groningen, *구약의 메시아 사상(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유재원, 료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122.,

169) Anthony A. Hoekema, *개혁신의 종말론(The Bible and The Future)*, 221.

170) F. F. Bruce, *요한복음(The Gospel of John)*, 서문강 역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2000) 356.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땅을 피는 자라.(요한계시록 20:2)

그(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사탄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요한계시록 20:2)

뱀 자체가 마귀, 또는 사탄은 아니었지만, 뱀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기에<sup>171)</sup>, 뱀을 마귀 또는 사탄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셨다(창세기 3:14). 그 저주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들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세기 3:15).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뱀에 대한 저주가 미래적임을 암시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소개한 창세기 3:15를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원시 복음(proto evangelium)이라고 부른다. 창세기 3:15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이레니우스로부터 시작되었다.<sup>172)</sup> 사탄에게 내린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고든 웬햄은 예수께서 두 번에 걸쳐 그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며, 자신이 곧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해석한다.<sup>173)</sup> 한 번은 그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즉 갈릴리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그의 모친을 ‘여자’라고 불렀고(요한복음 2:4), 또 한 번은 그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순간에, 그의 모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셨다(요한복음 19:26).

171) 사단은 짐승이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 사단은 당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기도 하였다(민수기 22장).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다(역대상 21:1).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의 뜻을 대적하여 “사단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았다(마태복음 16:23).

172) Gerard Van Groningen, *구약의 메시아사상(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130.

173) Gordon J. Wenham, *창세기 1-15 (Genesis 1-15)*,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2000), 203; 고든 웬햄은 예수에 대한 칭호로서 “인자”라는 용어와 마리에 대한 “여자”라는 용어(요2:4; 19:26) 역시 이 구절(창3:15)을 반영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첫 조상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필찬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불신자들을 향한 왕 노릇도 아니요 성도가 성도를 향한 왕 노릇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에덴동산에서 아담 내외에게 주어진 만물을 통치하도록 위탁받았던 궁극적 가치의 회복으로서 새 창조, 곧 새롭게 된 만물에 대한 통치사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시록 22:1-5은 새 창조의 주인공인 교회가 에덴동산에서 첫 창조의 목적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174)</sup>

홍창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왕 노릇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간의 본체론적 관계가 주님의 대속의 결정적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연장된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75)</sup> 또한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간의 본체론적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적 윤리적 결속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속의 예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의 팔복이 제시하는 삶은 사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결속의 원인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성도들에게 옷 입혀진 “칭의” 곧 하나님의 의의 전가라고 밝혔다.<sup>176)</sup> 첫째/영적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이 차도록 왕 노릇한다. 그리고 천년이 차고나면 마침내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즉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때부터 천년 동안만이 아니라 세세토록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주인공들이 된다.

## 제2절 요한복음의 메시아 왕국

요한복음에 따르면, ① 예수께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을 지닌 “게바”로 만들겠다고 하셨다(1:42). 그의 교회설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이 분명하다(참조: 마태복음 16:18, 사도행전 2장, 8장, 11장). ②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일컬으셨다(1:47). 나다나엘과 같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

174)) Goredn J. Wenham, *창세기* 1-15, 255.

175) 홍창표, *천년왕국*, 272.

176) Ibid., 272.

겠다는 말씀이다(요한복음 1:45-51). ③ 예수께서는 나다나엘과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자신을 “인자”라고 일컬으시는 가운데 그가 곧 구약의 다니엘이 본 “인자”임을 선언하셨다(1:51)<sup>177)</sup> 이는 자신이 곧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신 자가 되어 시몬과 나다나엘로 대표되는 자들이 그의 백성들이 될 것을 선언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이 소개하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살펴본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무천 년설적 이해가 옳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 1. 게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처음 만난 두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안드레의 형제 시몬이고 또 하나는 나다나엘이다. 안드레는 예수가 곧 메시아임을 깨닫고 난 후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께로 인도하였다.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장차 그의 이름이 반석의 뜻을 지닌 “게바”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요한복음 1:41,42). F. F. Bruce는 예수의 그 선언을 그와 같은 사람을 시작으로 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라고 해석한다.<sup>178)</sup> 그 공동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그 점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 2. 참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대화에 집중하여 보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으셨다.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자신을 그의 조상 야곱과 비교하시는 가운데 크게 칭찬하신 줄 알고 크게 당혹했다.<sup>179)</sup> 그래서 그는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요한복음 1:48상)라고 반문하였다. 예수께서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그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기 때문이라

177) 예수의 “인자” 칭호가 공관복음에 69번, 요한복음에 13회 각각 나온다. David Wenham, *바울: 예수의 추종자인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Paul: Follower of Jesus or Founder of Christianity?)*,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163.

178) F.F. Bruce, *요한복음(The Gospel of John)*, 107.

179)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명이고, “간사함”은 야곱을 특징짓는 말이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두 번씩이나 간사하게 속이고, 그 결과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의 장인 라반과 더불어 속고 속이는 일을 계속하였다.

고 답하였다(요한복음1:48). 그러자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였다. 그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사상에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 메시아로 이제 막 믿고 고백한 나다나엘과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요한복음1:50)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나다나엘과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요한복음 1:51)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여호와 하나님 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났던 사건과 대조가 된다(참조: 창세기28:13-15). 천사들이 야곱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그를 귀히 방문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가 대표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었다.<sup>180)</sup>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야곱이)... 또 본즉, ...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창세기28:12)에서 “'그' 위”라는 말은 '사닥다리' 위라고(on it) 해석한다. 그러나 유대 랍비들은 “그” 라는 대명사가 '사닥다리'가 아니라, '야곱'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로 해석하였다.<sup>181)</sup>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였다는

180) 김세운은 C.C. Rowland의 캠브리지 학위 논문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 문헌에 나타나 있는 에스겔서 1장의 영향”의 도움을 받아, 탈군들과 유대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야곱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여 그 보좌에 새겨져 있는 야곱의 형상을 직접 보지 못하여, 심히 궁금히 여기고 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낚을 피하여,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천사들이 동행하였다.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하나 취하여 잠을 자게 되자, 그 천사들이 곧 바로 그 루스라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서 시종을 들고 있던 동료 천사들에게, 야곱을 보려면 빨리 내려와서 보라고 하자, 천사들이 내려 와서 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또한 야곱이 천사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브리서1:14) 천국의 천사들의 관심사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김세운, *바울 복음의 기원(the Origin of Paul's Gospel)*, 398와 김세운, “그 ‘사람의 아들’(人子) - 하나님의 아들, (서울: 엠마오, 1992), 146.

181) “'그' 위”라는 말이 사닥다리 위라고 지칭한 것으로 해석할 때에는 “on 'it'”라고 하고, 야곱 위라고 해석 할 때에는 “on 'him'”이라고 번역되지만, 히브리어로는 3인칭 남성단수 인칭 접미어로 둘 다 가능하다.

것이다.<sup>182)</sup> 예수께서는 나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였던 것처럼, 인자, 곧 예수 자신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sup>183)</sup> 예수께서 탈군들과 랍비들의 주석처럼 “그”들 ‘야곱’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로 해석하셨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진정 비교하고자 하였던 두 인물이 나다니엘과 야곱이 아니라, 예수 자신과 야곱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F.F. 부르스의 지적처럼, 51절에서 제 2 인칭 단수“네”가 제 2 인칭 복수“너희”로 바뀌는 것은 예수께서 야곱을 통하여 형성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자신을 통하여 창조되고 형성될 나다니엘을 비롯한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비교하셨던 것임을 보여준다.<sup>184)</sup>

### 3. 인자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 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던 메시아, 또는 메시아에 준하는 여러 칭호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셨다. 김세윤은 예수님의 자기칭호인 ‘인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옮기자면, “그 인자”또는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이라고 다니엘서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람의 아들'이다" 즉 예수는 자신이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난 그 천상적, 신적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자 같은 이"들 "그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로 번역한다면 이는 예수의 독특한 자기 칭호에 담긴 예수의 의도에 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sup>185)</sup>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다니엘 7:1-8), 그들은 세상 왕들(다니엘 7:17)이며, 또한 왕국들(다니엘 7:23)이라는 해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늘 왕좌들<sup>186)</sup>이 놓여 있는 것도 보았다(다니엘 7:9). 그는 세상 왕들은

182) 어떻게 그 많은 천사들이 야곱 위까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었는가 질문한 자들이 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영적 존재들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83) 요한복음 1:51은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와 그의 동료들에게 하였던 말씀이다.

184) F.F. Bruce, *요한복음(The Gospel of John)*, 115.

185) Seyoon Kim, “그 ‘사람의 아들’” - *하나님의 아들*, 63.

186) 한글 개역성경은 ‘왕좌들’이라는 복수를 ‘왕좌’라는 단수로 잘못 번역하였다.



하늘 왕좌들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하고 모두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되었다(다니엘 7:19-28). 그렇다면, 하늘 왕좌들의 주인공들은 각각 누구인가? 그 왕좌들은 세 주인공들의 것이다. 첫째 주인공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the Ancient of Days)로 소개된 성부 하나님이다(다니엘 7:9-10).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 온 그 “그 ‘인자 같은 이’”이다(다니엘 7:13-14). 때가 되매,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을 “그 ‘인자 같은 이’”라고 소개하는 가운데 자신이 곧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다. 다니엘은 “그 ‘인자 같은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가 구름을 타고 왔다고 묘사하였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운반체로 이해되어, 하나님만이 구름을 타고 다니기 때문이다.<sup>187)</sup> 다니엘은 “왕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의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는 가운데 짐승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다니엘 7:9-14). 다니엘 7장 13-14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 왕좌에 등극하여 하나님에게서 대권을 위임받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통치권을 위임받는 등극식이다.<sup>188)</sup> 그리고 다니엘 2장의 느브갓네살 왕이 꾀 꿈에 따르면, “뜨인 돌”이 “금, 은, 동, 철/흙”으로 상징되는 세상 왕들/왕국들을 멸망시키고 한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그 나라는 태산처럼 커진다. 그 “뜨인 돌”이 곧 “그 ‘인자 같은 이’”, 즉 메시아 왕국을 그의 초림 때 세우시고 재림 때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이다.<sup>189)</sup>

그렇다면, 하늘 왕좌들의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다(다니엘 7:27). 여기서 우리는 그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해석이 하나

187) 구약에서 구름이 언급된 것은 100문단 정도인데, 그 중 30 문단은 순수한 자연 현상을 언급한 것이고, 나머지가 신현을 언급한 것이라고 Feuillet는 평가한다. 그는 또 천사 현현(angelophany)에서는 구름이 등장하지 않음도 밝히고 있다. 재인용(김세윤, “그 ‘사람의 아들’” - 하나님의 아들, 33.)

188)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다니엘 7:13-14).

189) 세대주의자들은 다니엘 2장의 “뜨인 돌”과 다니엘 7장의 “인자 같은 이”가 재림하실 예수라고 해석한다.

님의 아들이라는 해석과 하나님의 성도들(백성들)이라는 집단적인 해석으로 엇갈리는 것을 본다. 김세윤은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인자 같은 이”가 지극히 높으신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민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0)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종말의 메시아로 나타나서,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는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이 그 왕국의 왕이 되는 가운데, 그 백성들을 창조하고 모아서,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가 될 것임을 선포하심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라는 관사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 앞에 붙여서 한 칭호로 만드셨으며, 자기 자신이 바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인자’”(“그 ‘사람의 아들’”)라고 일컬으셨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신앙고백을 하는 나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바로 종말에 세움 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뜻에서 나다니엘을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그는 이스라엘(사람들)의 “내포적 대표자”(The Inclusive Representative)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는 참 이스라엘(사람들)의 “내포적 대표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시기 직전에 요나의 아들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을 지닌 “게바”로 만들겠다고 하셨다(요한복음 1:42). 그것은 그의 교회설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참조: 마태복음 16:18, 사도행전 2장, 8장, 11). 191) 이 교회는 예수께 대하여 그들의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 즉 나다니엘과 같이 참 이스라엘인이 된 자들로 구성된다(요한복음 1:45-51). 192)

#### 4. 첫째/영적 부활과 둘째/육체적 부활

요한복음 5장은 예수께서 두 가지 사건 통해서 계시하셨던 진리들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 193) 첫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

190) 김세윤, “그 ‘사람의 아들’” - 하나님의 아들, 44.

191) F.F. Bruce, 요한복음, 107.

192) 예수께서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을 지닌 게바라고 일컬으셨던 것은 그를 통해서 그의 교회 설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룬다.

을 살리신 사건이다(요한복음 4:43-54).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여 일으키신 사건이다(요한복음 5:1-18). 특별히 예수께서는 그들 안식일에 치료하시므로 유대인들로부터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거센 항의를 받게 된다. 그때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 한다”고 답하셨다(요한복음 5:17).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줄곧 일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 일은 곧 거의 죽게 된 신하를 살리는 일과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움으로 상징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이나 38년 된 환자로 대표되는 아담의 후손들을 살려 내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21)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sup>194)</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살리심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영적인 부활, 또는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현재적 생명이다.<sup>195)</sup> 그 점에 대하여 24-25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둘째는 육체적인 부활, 또는 육체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미래적인 생명이다. 그 점에 대하여 26-29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 가. 영적 부활

영적 부활이라는 말은 영적 죽음을 전제한 가운데 사용된 용어이다. 사람이 태어난 후 육체적으로 여전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영적 죽음의 상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생명력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sup>196)</sup> 영적 죽음과 영적 부활이라는 용어에 대

193)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91; 유상섭, *설교를 돕는 분석 요한복음* (서울: 규장문화사, 1999), 129.

194)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을 줄곧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살리는 일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셨는가? 우리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 죽게 된 직후부터 시작하셨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살려 낸 자가 바로 아담이다.

195) 유상섭, *설교를 돕는 분석 요한복음*, 131.

196) George R. Beasley-Murray, *Genesis*, W.B.C.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8), 76-77.

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요한복음 5:24 말씀을 살펴보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24).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그들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5:24상). F. F. 부르스는 이들 실현된 종말적 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한다.<sup>197)</sup>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20장 등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심판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 믿어 영생 얻은 사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요한복음 5:24b)라고 다시 설명하신다. 물론 여기에 언급된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 아니라 영적 사망이다. 이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다시 사는 상태로 회복된 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sup>198)</sup>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진 모습이다. 이제 요한복음 5:25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  
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한복음  
5:25)

예수께서는 영생 얻기 전, 즉 영적 부활을 경험하기 전의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셨다. 존 칼빈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곧 영적 죽음의 뿌리가 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한 멸망의 위협 아래 놓여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텅 빈 헛소리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사람의 영혼에 생명의 잔재가 어느 정도 남아 있음을 꽤히 인정한다. 명월과 완단과 의지 그리고 기타 모든 지각은 생명의 여러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에 하늘의 생명을 갈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한, 모든 인간을 온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

197) F. F. Bruce, *요한복음(The Gospel of John)*, 서문강 역 (서울: 로고스, 1996), 229.

198) Ibid., 131.

해도 놀라운 것이 없다.199)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여기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요한복음 5:21) 생명을 수여하는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200) 이 시대에 죽은 자들에게 중생을 통한 생명을 수여하는 분은 성령이다. 이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자들을 생명을 얻은 자들, 또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고 일컫는다. 물론, 영생이란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현재적 생명이다.201) 헨드릭슨은 요한복음 5:25의 영적 부활이 곧 요한계시록 20:5-6의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5장은 첫째 부활의 앞 단계, 즉 거역난 자의 지상에서의 삶을, 요한계시록 20장은 첫째 부활의 뒤 단계, 즉 거역난 자의 천상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했다.202)

성경에서 거역난 자의 삶을 영적인 부활의 개념으로 증거하고 있는 사례는 무수하게 많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벌써 죽고 난 후 나훔이 지난 나사로의 누이에게 주셨던 말씀도 한번 생각하여 볼 수가 있겠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요한복음 11:25-26) 예수께서 ‘부활’을 ‘생명’보다 먼저 언급하신 것은 의도적인 배열로서 생명이 부활의 결과이기 때문인 듯하다.203) 영적인 부활의 결과들 가져오는 믿음이 아니라면 육체적인 부활을 가져올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다.204)

199) John Calvin, *요한복음(John)*, 칼빈성경주석편찬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1), 185.

200) John Calvin, *요한복음*, 132.

201) Ibid., 132.

202) William Hendrikson, *요한복음(상)(John)*, 문창수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3), 268.

203) 유상섭, *설교를 돕는 분석 요한복음*, 254.

204) 요한일서 3:14 말씀,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 간 줄을 알거니와

### 나. 육체적 부활

사도 요한이 첫 단락(요한복음 5:24-25)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요한복음 5:26-29)에서는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 심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실 것이며, 그들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그들 믿지 않는 자들은 각각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두 번째 단락 중에서 전반부, 즉 예수께서 심판 주가 되실 것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들어 보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요한복음 5:26-27)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 받은 자로 마지막 날 심판을 집행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누가 그 심판 날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심판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자.

이들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28-29).

심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은 다름 아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요한복음 5:25)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게 될 날은 곧 최후 심판 날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적인 사건이다. 이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누구이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누구인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 곧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곧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역한

---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에서도 영적 죽음 개념과 영적 부활개념이 있다.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과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였을까? 그 이유는 의도적인 것으로 예수께서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각각의 행위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다.<sup>205)</sup>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로부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요한복음 6:28)라는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하셨다(요한복음 6:29)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들을 믿고 신뢰하여 영생을 얻는 일 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들을 불신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발 J. 사우어는 요한복음 5:24-29를 다음과 같이 잘 분석하고 있다.

ㄱ) 하나는 현재이고(5:25 “이 때”), 또 하나는 미래이다 (5:28-29 “... 때가 오나니”)

ㄴ) 하나는 영적이고(5:24-25), 또 하나는 육체적이다(5:28-29),

ㄷ) 하나는 신자들에게만 제한되고(5:24-25),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5:28-29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sup>206)</sup>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나는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 사이에 천년의 간격이 있다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신자들의 생명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심판의 부활을 동시적 사건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신자들은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단 한 번의 부활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의 계시록 20장에서 영적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불 못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몸의 부활, 곧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요한복음 5장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다(예컨대, 욥기 19:25-27; 시편 16:9, 요한복음 6:39,40-44,54, 로마서 8:11,22,23; 빌립보서 3:20-21, 고린도전서 15:22, 고린도후서 5:1-4 등). 우리는

205) 유상섭, 설교를 돕는 분석 요한복음, 133.

206) Bal J Sawyer, 평신도를 위한 종말론(*The Eschatology for Laymen*), 정홍렬역 (서울: 나눔서원, 1994), 124.

성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도 신경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 사옵나이다”라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부활이 두 가지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여기서 요한복음 5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을 함께 연결하여 보자면, 이 땅에서 거듭난 자들이 곧 첫째/영적인/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이기는 자들’이 되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들에 앉아 함께 왕 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 때 둘째/육체적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첫째/영적인 부활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요한복음 5:24-25).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첫째/영적인/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 육체적으로만 부활하여 둘째 사망/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된다.

### 제3절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해석이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는 무천년설이 옳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천년설에 기초한 개혁주의 인간론 또는 부활론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인간론은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분설”인가? 그렇지 않다. 또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삼분설”은 더욱 더 아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이분법적 혹은 삼분법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全人的)인 관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한 마디로, 사람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는 전인적(全人的)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몸”, “영혼”, “내적 사람”, “외적 사람”, “육체”, “마음”, “생각”, “영” 등은 각각 전(全) 인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만 이러한 용어들은 전(全) 인간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들이라는 것이다.<sup>207)</sup> 고든 J. 스파이크만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집에는 앞문 옆문 그리고 뒷문 등 많은 출입구가 있고, 각각의 문은 많은 방으로 인도한다”고 하였다.<sup>208)</sup> 우리는 개

207) Gordon J Sparkman, *개혁주의 신학(The Reformational Theology)*, 292.

208) Ibid., 315.



혁주의 인간론 또는 부활론이라는 방에 들어 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개혁주의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첫째 부활(계시록 20:5,6)을 영적 부활로 이해한다. 그리고 둘째 부활을 곧 육체적 부활이라고 이해한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들은 곧 영적으로 다시 산 자들이 되었다는 뜻에서 영적인 부활,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

## 제 5 장

###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의 메시아 왕국

앞 장에서 필자는 요한문헌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져오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무천년론적 이해의 정당성을 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들이 예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해 제시하는 그림과 잘 부합된다. 이들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지상에 계시는 동안 통치들 이미 시작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와 같은 이해의 바탕에 다윗의 뭉극시들이 있기에 이 장에서는 다윗의 뭉극식과 그의 뭉극시들 먼저 살펴보고, 공관복음과 사도행전 통하여 예수의 뭉극식과 그의 통치에 대해 살펴보자.

#### 제1절 다윗의 뭉극식

다윗은 사울과 달리 유다지파에 속하였다. 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 받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다. 야곱/이스라엘이 자기 열두 아들들을 모아 놓고 그의 후손들이 장차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창세기 49:8-11).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위에 오름으로 이스라엘의 유다왕국 설립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였다. 다윗의 뭉극식은 세 차례에 걸쳐 거행되었다. 다윗의 세 번에 걸친 뭉극식과 그의 뭉극시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 1. 첫 번째 뭉극식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각각 그 직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기름부음을 받았다.<sup>209)</sup>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 왕이 되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은밀히 진행하도록 하셨다. 마침내, 이새의 말째 아들인 다윗이 그의 부친과 형제들만 참석한 가운데 은밀히 사무엘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 후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사무엘상 16장). 그 사건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이해하였는지에 대하여 게르라드 반 그로닝겐의 설명을 들어 보자.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여러 번 드러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등극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는 천천히 일을 진행시켰다. 그는 사울을 직접 제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다 (사무엘상 24:7; 26:23-24).<sup>210)</sup>

다윗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사건은 그의 첫 번째 등극식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후에 그는 물멧물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었다(사무엘상 17장).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가운데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더욱 더 강건한 왕으로 구비되어 갔다.

## 2. 두 번째 등극식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혀 오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디로 갈 것인지를 물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마침내 그의 두 번째 등극식이 헤브론에서 그의 동족 유다지파들 가운데서 진행되었다(사무엘하2장). 다윗은 칠년 육 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지파들 통치하였다. 그의 두 번째 등극식은 그의 첫 번째 등극식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었다.<sup>211)</sup>

209) Gerard Van Groningen, *구약의 메시아 사상(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류호준, 유재원 역, (서울: CLC, 1997) 36-38.

210) Ibid., 332.

211) Ibid., 332.

### 3. 세 번째 등극식

이스라엘 온 지파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헤브론의 다윗에게 나아 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하여 다윗의 세 번째 등극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세웠다. 그의 세 번째 등극식도 그의 첫 번째 등극식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었다. 예루살렘의 본래 이름은 여부스였으며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온(Zion) 산성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의 정복과 더불어 다윗성이라고도 일컬어졌다(역대상11:5). 그 후로 시온은 예루살렘의 일부이지만, 시온과 예루살렘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다.

### 4. 다윗의 등극시와 메시아 왕국 예언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궁궐을 세우고 난 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은 나단 신탁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신탁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유다 왕국이 다윗왕조를 갖게 된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왕위에 오르게 하여, 그 나라를 견고케 하고 영원토록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다윗의 후손의 성전건축에 대한 약속이다. 다윗의 후손을 왕 위에 오르게 한 다음,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겠고, 그 집 역시 영원토록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왕 위에 오르는 다윗의 후손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넷째,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벌하겠다는 약속이다. 그가 죄를 범하면 채찍과 막대기로 벌하겠다는 것이다(사무엘하 7:16)<sup>212)</sup>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에 대한 예언(창세기 49:8-12)의 성취적 인물이 되었던 다윗은 이른바 나단신탁을 통하여 그 왕국이 다윗왕조를 통해서 영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게 될 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이른바 등극시들을 짓게 되었다. 그 등극시들 중의 하나가 시편2편이다.<sup>213)</sup>

우리는 시편2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첫

212)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위에 오른 자들 가운데 실제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왕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범한 죄를 인하여 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받아 벌을 받으셨다.

213) Peter C. Craigie, *시편 1-50* (World Biblical Commentary Psalm 1-50)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0), 74.

째, 왕 위에 오르는 그 후손은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은 자(시편2:2)다. 둘째, 그 왕을 왕위에 세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시편2:6). 셋째, 그 왕위가 있는 곳은 여호와와 거룩한 산 시온이다(시편2:6). 넷째, 그가 왕 위에 오름과 더불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시편2:7). 다섯째, 그 왕의 통치 영역은 땅 끝까지가 된다(시편2:8).<sup>214)</sup> 여섯째, 그 왕의 통치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시편2:9-12). 일곱째, 그의 왕권에 부복하는 자들은 복을 누리게 된다(시편2:10-12).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그러나 그 왕국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왕 느브갓네살에 의해서 각각 멸망당했다. 결국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훼파되었으며(주전 586년)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다.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 특별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하여 보수되어 제 2 성전으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다윗 왕조의 회복, 즉 유다왕국의 재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침내, 주후 70년 로마제국의 디도장군에 의해서 제 2성전마저 훼파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 일은 성경예언의 성취적 사건이었다(마태복음 21: 40-43; 22:7; 23:37,38; 24:1,2,15이하; 누가복음 19:41-44).

성경은 유다왕국/다윗왕조의 회복과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예언하고 있다. 그 예언 성취의 주인공이 곧 히브리어로 메시아<sup>215)</sup>이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말식 헬라어로 그리스도, 한자어로 기독교(基督)이다. 메시아는 다름 아닌 다윗의 후손이다.

21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하신 땅의 지경이 아브라함 시절에는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 사이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다윗 시절부터 그 지경이 '땅 끝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땅의 지경이 '땅 끝까지' 확장되었음에 대해서는 시편19:4; 67:7; 72:8 등에서도 각각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땅이 '땅 끝까지'라는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되었고(이사야48:20), 선지자 스가라는 그 언약의 땅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선포하였다(스가랴9:9-10).

215)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다.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각각 올리브유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두가 다 메시아인 셈이다. 그러나 종말이 되면 그들과 구별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며, 그 메시아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며, 특별히 그는 곧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자로 예언되었다(요한복음 1:33). 그리고 그는 구약의 다른 메시아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종말의 메시아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다윗의 씨”, “다윗의 가지”, “다윗의 아들”, “이새(다윗의 부친)의 줄기”등으로도 일컬어진다. 유대교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다. 메시아 왕국은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 제2절 예수의 등극식

예수께서도 메시아의 예표가 되었던 다윗처럼 세 번에 걸쳐 등극하였다. 공관복음서가 그 세 번에 걸쳐 거행된 등극식에 대하여 잘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등극식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두 번째 등극식은 변화산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늘에서 내려 온 모세와 엘리야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세 번째 등극식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여 마침내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등극식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또는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각각 선포하셨다. 그러나 세 번째 등극식에서는 그와 같은 선언이 없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등극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한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음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소개하고 있다.

### 1. 예수의 첫 번째 등극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바로 그 등극식이다.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등극식은 예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고 난 직후에 거행되었다.<sup>216)</sup> 예수의 세례식이 진행된 후, 크게 3가지 중요한 사건

216) 요르단 강은 크게 상부 요르단 강과 하부 요르단 강으로 나뉘어진다. 상부 요르단 강은 헬몬 산 중턱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흐르고, 하부 요르단 강은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하여 사해까지 흐른다. 다시 말해서 요르단 강은 헬몬 산 중턱(약 600 m)에서 시작되어 갈릴리 호수(해저 약 200m)를 거쳐 사해(해저 약 400m)까지 흘러간다. 요르단 강은 지역에 따라서 천천히 흐

이 일어났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고, 둘째는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사건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 가. 예수의 세례식

세례 요한은 그보다 6개월 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종말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3:14 참조). 그렇게 믿고 있던 나사렛 예수께서 그 앞에 나아와 세례를 받고자 하였을 때 오히려 그는 그 자신이 예수님께서로부터 세례를 받겠다고 자처하였다(마태복음 3:14). 그가 물로 베풀었던 세례는 아담의 후손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징표로 받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죄가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설복을 당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그 세례식이 끝나자마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 나. 하늘이 열리는 사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늘이 열리고”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지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세윤은 그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마가의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비는 이사야 63:19 하반절(칠십인역: 맛소라 텍스트에서는 64:1)을 연상케 하는데, 이는 예수의 세례가 이 예언서의 기도를 성취하게 하는 것으로 마가가 암시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sup>217)</sup>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환상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것으로(예: 에스겔1:1), 곧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 된다.<sup>218)</sup>

리기도 하고, 아주 급물살을 이루어 큰 소리를 내며 흘러 내려가기도 한다. 보통 요르단 강이라고 할 때 하부 요르단 강을 의미한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00 km이지만, 요르단 강은 사해천으로 굽이굽이 흐르고 있기에 그 실제 거리는 300km가 넘는다.

217) 김세윤, *예수와 바울*, 15.

218)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은 유대 묵시문학과 신약(예: 요한복음1:51; 사도행전 7:56; 10:11; 요한계시록4:1)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1) 스데반도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사도행전 7:56). 사도 베드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사도행전 10:11). 그리고 사도 요한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요한계시록4:1).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께서

#### 다. 성령이 예수 위에 내리는 사건

예수께서 세례 받은 후 하늘이 갈라지는 가운데 성령이 예수 위에 가시적으로 임하였다. 성령이 예수께 임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19)</sup> 예수 당시 유대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는 단절되었고 종말에야 성령이 다시 임한다고 믿었으며(예: 요엘서 2:28-32), 이사야 42:1이나 11:1을 메시아적으로 이해하여 종말에 주께서 그의 ‘종’이나 다윗의 ‘가지’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cf. 이사야 48:16; 61:1). 그 점을 기초로 하여 김세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친다.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내려와 예수 위에 임했다는 것은 첫째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 자신의 종말의 사자로 불러 성령으로 기름 부었으며, 셋째로 하나님 자신의 종말론적 과업을 수행하도록 성령의 힘으로 무장시켰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sup>220)</sup>

성령은 본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는데 가시적으로 임하였다.<sup>221)</sup> 성령이 예수께 임하신다는 것은 주관적인 일인데, 세례자 요한을 위하여 객관적인 일이 되게 하셨다.<sup>222)</sup>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세례와 더불어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던 것이다.<sup>223)</sup>

나다나엘을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장차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요한복음 1:51).

219) 김세윤, *예수와 바울*, 16.

220) Ibid., 16.

221) “짜비이인들”은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지금도 “짜비이인들”은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남아 활동하고 있는 세례 요한 추종자들이다.

222) 오순절 날 하늘 보좌의 예수께서 이 땅에 남아 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의 약속대로(사도행전 1:4-5),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사도행전 2:1이하).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 안에 가득한 가운데, ‘불’의 혀들(tongues)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였다. 성령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의하여 시청각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객관적 현상으로 임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 중의 어느 누구도 “나 혼자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였던 것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목격하도록 함이었다.

223)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 왔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상징성을 지니는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학설들이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 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사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을 가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강림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sup>224)</sup>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편 2:7<sup>225)</sup>과 이사야 42:1<sup>226)</sup>을 통합하여 인용한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은 시편 2:7의 인용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사야 42:1의 인용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진정한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가운데, 그들 곧 이 땅에 임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시키셨던 것이다. Marshal은 시편 2:7의 말씀과 세례 때 하늘의 음성과의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시편 2:7에서 ‘나의 아들’이 ‘너’의 앞에 나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가 주어짐을 강조하지만, 예수께 선포된 하늘의 음성은 ‘너는’이 강조되어 앞에 나오고, ‘나의 아들이다’가 뒤따름으로써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강조되어 있다.<sup>227)</sup>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아들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세기1:2b)의 ‘운행하다’라는 동사가 새 창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사용된 (독수리가) ‘너를 거리다’(신명기32:11)가 히브리어로 같다. 또한 ‘운행하다’의 동사는 암탉이 병아리를 잉태하기 위하여 달걀을 품고 ‘굴리다’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그 점을 기초로 하여 랍비들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을 새로 비유하여 이해하였다. 바로 그 점을 기초로 하여 볼 때, 비둘기라는 새로 비유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출애굽 역사에서처럼 예수의 세례 때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다. 예수의 세례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 것은 노아가 홍수 후 방주에서 처음으로 내보낸 비둘기(창세기8:8-12)에 대한 은유로서 예수의 세례와 더불어 심판의 시대가 지나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학설도 있다. 김세운, *예수와 바울*, 16-17.

224) 마가복음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이라는 2인칭으로 일컬으셨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이는”이라고 3인칭으로 일컫는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225)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편2:7)

226) “내가 볼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이사야 42:1)

227) cf. Marshal, *The Gospel of Luke*(Exter, 1978), 115. 김세운,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25에서 재인용.

백성(출애굽기4:22)이나, 그들의 왕보다 더 독특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밀접한 관계들 가진 아들임을 선포하셨던 것이다.<sup>228)</sup> 이제 이사야 42장 1절이 인용된 -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 속에 담긴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이사야 42장 1절부터 시작하여 53장 끝 절까지 계속되는 말씀 속에 여호와와 종에 대한 예언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김세윤은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주의 종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이사야 42:1; 61:1),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모으며(이사야42:7; 49:5-6; 61:1 이하), 새 언약을 세우며(이사야42:6; 49:8),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며(이사야 52:13-53:12),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전달하는(이사야42:1;61:1) 등의 임무를 가진 것으로 그려져 있다.<sup>229)</sup>

예수님의 세례식은 그가 종말의 메시아로 등극하신 예식이였다.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베풀어진 등극식을 통하여 그는 종말의 메시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였던 그의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렸던 여호와의 종으로 선포되었다.

## 2. 예수의 두 번째 등극식

이른바 예수의 변화산 사건이 곧 두 번째 등극식이다. 첫 번째 등극식에는 성령이 하늘을 가르고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 위에 임하였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 때에는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고, 예수에 대하여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마태복음17:5)고 선포하셨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대표되는 신약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등극식은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이른바 신앙고백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228)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세기 22:2)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네 사랑하는 독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도 있다.

Beasley - Murray, 요한복음(*The Gospel of John*), 156(서울: 솔로몬, 2001), 156.

229) 김세윤, *예수와 바울*, 25.

먼저 그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하늘을 가르고 하늘로부터 내려 온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그 뭉극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 가. 제자들의 신앙고백 사건과 변화산 사건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이 있기 약 일주일 전에<sup>230)</sup>, 시몬이 예수께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였다(마태복음 16:16). 예수께서 시몬이 그의 형제 안드레의 안내를 받고 그들 처음 찾아 왔을 때 그들 장차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라고 일컬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요한복음 1:42), 그가 반석이라는 뜻의 헬라어인 “베드로”라고 일컬었다(마태복음 16:18상).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6:18). 이사야 51:1-3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반석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다.<sup>231)</sup>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시몬을 반석으로 삼아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sup>232)</sup> 그리고 그 일은 예수께서 하늘

230) 마태와 마가는 6일 전으로, 누가는 8일 전으로 각각 소개하였다. 공관 복음서 기자들의 날짜 계산법이 약간 달랐던 것 같다.

231) F.F. Bruce, *예수의 난해한 말씀들(The Hard Sayings of Jesus)*, 정명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8) 168-169.

232) “이 반석”이 지칭하는 말이 무엇이나에 대한 세 종류의 주장이 있다. ①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천주교회 모든 학자들, 개신교의 Herman Ridderbos, F. F. Bruce, Robert Saucy 등) ② 예수 그리스도(Luther 등), ③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고백(Calvin 등). ①은 언어의 기본 법칙에 따른 해석이다. 그러나 ②와 ③은 천주교회의 교황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언어의 기본법칙을 무시한 신학적 억지주장이다. ②와 ③은 ①을 반박하기 위하여 남성 명사 페트로스(Petros, 베드로)가 여성명사 페트라(Petra, 반석)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반석이라는 뜻을 지닌 ‘게바’라는 아람어 단어는 성의 구별이 없다. ‘게바’를 살려 번역하자면, “...너는 ‘게바’이다. 그리고(그래서), 내가 이 ‘게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가 된다. ‘게바’라는 새 이름을 부여 받게 되는 시몬이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었기 때문에, ‘페트라’(Petra)라는 말의 남성형인 ‘페트로스’(Petros)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최근의 많은 개신교회 학자들이 그와 같은 억지 주장을 하지 않고서도 교황권교리가 비성경적인 점은 얼마든지 지적될 수가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Donald Guthrie는 베드로가 그의 동료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일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Donald Guthrie, *메시아 예수(Messiah Jesus)*, 정광욱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9), 220. 그리고 Herman Ridderbos, *하나님 나라(The Coming of the Kingdom)*,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8) 445-459 그리고 Robert Saucy,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The Church in God's Program)*, 김기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85. 그리고 F.F. Bruce, *예수의 난해한 말씀들*, 168-169 참조하라.

보좌에 앉으신 후, 즉 그의 세 번째 등극식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다. 공관복음은 시몬의 신앙고백 사건과 그 후 일주일쯤 후에 일어난 예수의 변화산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계시켜서 증거고 있다. 두 사건의 중심에 시몬 베드로가 있다. 변화산 사건은 고백 사건을 세 가지 면에서 확증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았던 예수에 대하여, 변화산사건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마태복음17:5)라고 확증하셨다.

둘째, 예수께서 시몬의 고백을 받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마태복음16:21), 변화산 사건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別世)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예수께서는 시몬의 고백을 받고 난 다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날 것과 다시 올 것(재림)도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의 변화산 사건은 시몬과 그의 동료들로 하여금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을 미리 맛보도록 하는 사건이 되었다(마태복음 16:27, 마가복음 8:38, 누가복음 9:26). 예수께서 자신이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함과 동시에, 그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16:28, 마가복음9:1, 누가복음9:27). 그 말씀은 약 일주일 후에 있게 될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임이 분명하다.<sup>233)</sup>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그의 세례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종말의 메시아로 등극하신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 나. 두 번째 등극식과 모세

이 세상을 이미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이른바 변화산 사건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앞에 각각 나타나셨다. 그리하여 그 둘이 예수와 더불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別世)하실 것”에 대하여 말했다.(누가복음9: 30-31)<sup>234)</sup> “별세(別世)”는 헬라어 로 EXODUS(엑소도스)이다. 그 말은 모세와 그 백성의 출애굽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sup>235)</sup> 모세는 두 번에 걸쳐 엑소도스를 하였는데, 한번은 그 혼자서

233) John Nolland, *Luke 9:21-18:34*, (Dallas, Texas: WBC, 1993) 487.

234) 필자는 출애굽과 별세(別世)의 원어가 똑 같이 엑소도스(Exodus)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출(出)애굽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별(別)애굽이라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였고, 한번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

모세는 예수님의 엑소도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였다.<sup>236)</sup> 바울은 모세와 함께 엑소도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다(고린도전서 10:1,2)<sup>237)</sup>. 그들은 모세와 함께 엑소도스를 경험하였지만, 애굽의 바로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따르면,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참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홍해라고 할 수 있는 유리 바다를 건넌다.<sup>238)</sup> 짐승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된다. 모세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홍해라고 할 수 있는 유리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요한계시록 15:3).<sup>239)</sup>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 의해서 거절당했던 모세를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절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어 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요한계시록 15장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상응하는 순교들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는 순교자의 본문이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심판과 구원행위가 이방민족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요한 계시록 15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즉 열방들이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다(요한계시록 14:7).<sup>240)</sup> 요한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출애굽을 하나님께

235) D.A. Carson, Walter W. Wessell, & Walter L. Liefeld, *Volume 8(Matthew, Mark, Luk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The Jondervan Corporation, 1984), 925.

236) D.A. Carson, Walter W. Wessell, & Walter L. Liefeld, *Volume 8(Matthew, Mark, Luk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925.

237) 베드로 사도는 노아홍수 사건을 노아와 더불어 그의 가족 8명이 물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하였다(베드로전서 3:20-21)

238)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6.

239) 이필찬, *내가 속히 오리라*, (서울: 이레서원, 2006), 655.

240)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02.

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만국(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으로 재해석하고 있다(요한계시록 15:3,4).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과 정당함의 입증을 통해 성취하신 승리를 찬양하는데, 자신들의 구원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순교를 통해 열방에 가져온 효과, 즉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을 송축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열방으로부터 한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요한계시록 5:9),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백성들이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함으로 열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방법이다.

유대교는 종말(Endzeit) = 태초(Urzeit)의 역사이해 원칙에 따라 출애굽의 구원을 종말의 복된 상태의 회복으로 보고 금송아지에 대한 우상숭배를 아담의 원죄와 비교했으며, 종말의 구원은 제2의 Exodus로서 종말의 복된 상태의 회복으로 기대하였다.<sup>241)</sup> 김세운은 이러한 역사이해와 종말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신약성경도 예수의 죽음을 제2의 출애굽 구원으로 해석함으로써 그것이 종말론적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를 제 2의 모세 - 아니 모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계시자 - 구원자 - 로 해석하고(마태복음 5:1f. 21-48; 요한복음 6; 히브리서 3, 등), 그의 죽음을 "유월절 양"으로 해석하고(고린도전서 5:7; 요한복음 1:29; 19:14) 시내의 언약(출애굽기 24:8)을 대치한 새 언약을 세운 제사로 해석하며(마가복음 14:24 pars; 히브리서-10), 그의 죽음이 가져온 구원을 출애굽의 구원이 시사한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으로 선포한다(로마서 10:4ff.; 고린도전서 10:4ff.; 고린도후서 3:1ff.; 갈라디아서 4)<sup>242)</sup>.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 둘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도널드 거스리와 같은 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들 각각 대표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43)</sup> I. Howard Marshall은 둘 다 이 세상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떠났으며 종말론적 기대의 안목에서 다시 나타날 자로 여겨져 왔기

241) Cf. Billerbeck, IV, 886ff; N.A. Dahl, *Christ, Creation and the Church, The Background of the N.T. and Eschatology*, C.H. Dodd FS (Cambridge, 1956), 424-429 김세운의 책 *예수와 바울*, 201에서 재인용.

242) 김세운, *예수와 바울*, 201.

243) Donald Guthrie, *메시아 예수(Jesus the Messiah)*, 정광욱 역. (서울: 아카페 출판사, 1989), 227.

때문이라고 한다.<sup>244)</sup> Donald Hagner는 둘 다 시내산(또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뵈고 대화를 나누었던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45)</sup>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세가 선택되게 된 것은 이스라엘백성들의 엑소도스를 위한 주인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도스를 논할 수 있는 최적격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선택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 다. 두 번째 등극식과 엘리야

구약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가 와서 그 백성들 곧 참 이스라엘을 창조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이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말라기 4: 5-6). 예수의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 현장에서 엘리야의 출현을 목격하고 입을 모아,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마17:10)라고 질문하였다. 그들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는 이미 오셨는데, 왜 엘리야는 아직 오지 않았는가라고 궁금히 여기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때마침 엘리야가 온 것을 보고 엘리야가 메시아 보다 더 늦게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며, 엘리야는 이미 와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7:11,12). 이에 그들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임을 깨닫게 되었다(마태복음 17:13).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등극식인 세례식 때 귀히 쓰임 받았던 자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두 번째 등극식인 변화산 사건 중에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임을 밝히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고, 그와 더불어 메시아 왕국이 이미 세워지기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셨다.

#### 3. 예수의 세 번째 등극식

예수께서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맞은 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도록 하시면서 누군가가 그 나귀에 대하여 묻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하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자신을

244) I. Howard Marshal, 384.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245) Donald Hagner, *Matthew 14-28*, (Dal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5) 493.

‘주’로 일컬으셨다. 지금 교회가 ‘주’라는 칭호를 예수께 몰리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뿌리를 두는 것이다.<sup>246)</sup> 마태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이 메시아의 등극식임을 확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야 62:11(21:5a)과 스가랴 9:9(21:5c)을 혼합하여 인용하였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마태복음 21:5).

예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하셨음을 미리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다.<sup>247)</sup> 이제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가 대제사장과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다(마태복음 27:56-68; 마가복음 14:53-65; 누가복음 23:66-71). 대제사장이 예수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마태복음 26:63, 쉬운 성경)라고 물었다. 그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이후로, 인자가 전능자의 오른 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마태복음 26:64, 쉬운 성경).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을 미리 선언하셨다. 또한 그의 등극식 이후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올 것까지 선언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구약성경 두 구절이 혼합 인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

246) J. Gresham Machen, *The Origin of Paul's Religion* (New York: Macmillan, 1928, 1947), 296-97 재인용; 홍창표, *천년왕국*, 189.

247) 홍창표, *천년왕국*, 189.



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1)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 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다니엘 7:13)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의 상징적 행위와 선언을 확증한 사건이 되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등극식은 그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시작되어 그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 승천하신 다음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들 지금도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에 대하여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가. 마태복음의 증거<sup>248)</sup>

마태복음은 그의 서론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족보와 탄생 기사를 소개하는 가운데 그가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예고한다(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들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보통 지상 위임(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일컬어진다.<sup>249)</sup> 그리고 특별히 예수께서는 세상 모든 족속들이 그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마태복음 28: 18-20).

248)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의 왕 되심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로 잘 알려져 있다. 마태복음은 헤롯왕이 이른바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통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 마을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하여 천사로부터 통보받게 된 아기 예수의 부모가 그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떠난 이야기, 그리고 다시 그 아기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마태복음2:1-23). 또한 마태복음의 첫 구절의 시작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이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첫마디에서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는 가운데 예수가 곧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 왔던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의 어느 산에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주셨던 말씀이다.

249) 지상위임(The Great Commission)을 지상명령(地上命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른 번역이 아니다. 지상명령(The Great Command)은 예수의 사랑의 이중 계명, 곧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다.

#### 나. 마가복음의 증거

마가복음은 그의 서론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예고한다. 마가복음은 메시아 왕국이 온 천하 만민들 가운데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다(마가복음 16:15).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마가복음 16:19) 라고 소개한다.

#### 다. 누가복음의 증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 통하여 예수께서 장차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하여 자세히 보도한다(누가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소개하는 가운데 메시아 왕국이 전 세계 모든 족속들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을 선언한다(누가복음 24:45-49).

#### 라. 사도행전의 증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하게 누가이다. 그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활동을 강조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메시아 왕국의 왕 되시는 예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의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활동을 강조한다.<sup>250)</sup> 알렌(Roland Allen)이나 보어(Herry Boer)와 같은 선교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원래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주지시켰다.<sup>251)</sup>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있는 요한복음을 괄호 안으로 묶었다고 가정하고, 누가복음의 일부와 결론부분을 사도행전의 서론부분과 함께 아래와 같이 연결하여 읽어 보자.

250) O.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The Israel of God)*, 오광만 역 (서울: 그리스심, 2002), 151.

251) Peter Beyerhaus, *그가 보내신 말씀(Er Sandte Sein Wort)*, 이동주 역 (서울: CLC, 2008), 52.

요한이... 이르되,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에게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누가복음 3:7,9,16,17).

불찌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누가복음 24:49)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누가복음)에는 ...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희가 물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1-5)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설교와 세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에 대하여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께서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불" 심판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진 것처럼(누가복음 3:9), 또한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 것처럼(누가복음 9:17)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에게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요한계시록 20:9),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움을 당하고(요한계시록 20:10),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지움을 당한다(요한계시록 20:14,15). 세례 요한이 언급한 "불"과 요한계시록의 "불"은 각각 심판의 상징적 언어다(누가복음 3:16).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언급한 메시아의 "불"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몫이고, 메시아의 "성령" 세례는 신자들의 몫으로 해석되어야 한다.<sup>252)</sup> 그 해석의 정당함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이 받게 될 세례를 "성령"과 "불" 세례라고 하지 않고, "성령" 세례라고 하셨음을 통해서 확증된다(사도행전 1:5).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메시아의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각각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사용하였는가? 그것은 그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252) Herman Ridderbos, *하나님 나라(The Coming of the Kingdom)*, 68.

지로 메시아 왕국의 시작점과 완성점을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난 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사도행전1:6)라는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존 스토틀은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낙담시켰음에 틀림이 없다고 하였다.<sup>253)</sup> 칼빈은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 하나마다 다 잘못된 것이다”고 하였다.<sup>254)</sup> 그러나 그들의 질문 속에 틀리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예수는 다름 아닌 메시아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곧 메시아 왕국이다. 그러나 그들이 잘 못 이해한 것은 메시아 왕국의 시작점과 완성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이 즉각적으로 완성될 줄 믿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사도행전1:6)라고 질문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사도행전1:7)라고 답하셨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질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영역인 메시아 왕국의 완성의 때와 기한에 관한 질문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참조 마가복음 13:32).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의 시작점과 완성점 만을 구별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왕국의 성격과 본질이 “성령”으로 특징 지워지는 것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왕국의 성격과 본질을 깨닫게 될 줄 믿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사도행전 1:8중)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 왕국의 범위 또는 영역에 대하여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1:8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메시아 왕국의 완성의 때보다는 그 왕국의 성격과 영역과 대상에 대하여 보다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그 왕국의 영역과 대상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땅 끝까지” 확장되어 세상 모든 족속들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구약의 여러 구절들(시편2:8; 19:4; 67:7; 72:8; 이사야48:20; 스가랴

253) John R. W. Sott, *땅끝까지 이르러*(The Spirit Church World and the Message of Acts), 정옥배 역 (서울: IVP 1992) 39.

254) John R. W. Sott, *땅끝까지 이르러*, 39.

9:10)이 밝히 예언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O. Palmer Robertson은 메시아 왕국의 지경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예수의 선언을 그의 제자들의 질문 -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사도행전1:6)에 대한 주변적인 답변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255)</sup>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강림의 대망을 갖고 기도하던 중 베드로의 지도를 따라 맛디아를 사도로 선출하였다(1장). 캠벨 몰간(Campbell Morgan) 등은 맛디아 선출 사건을 주도한 베드로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256)</sup> 그러나 존 스토틀는 “그것은 예수님의 열 두 사도와 구약의 열두 지파를 대비시켰다는 것이다. 만일 초대교회가 구약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실로 구약 이스라엘의 성취로 받아들여지려면, 그 창립자의 수가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하였다.<sup>257)</sup> David Seccombe는 누가가 베드로의 맛디아 선출 사건에 대하여 보도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추론한다.

사도들에 대해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릴 것이라는(눅 22:30)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이스라엘이 회복에 관한 질문 내용(행 1:6-8)을 통해 볼 때, 누가가 독자들에게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공동체의 열두 기초석(계 21:14)과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sup>258)</sup>

사도행전이 맛디아 선출사건과 오순절날의 성령강림 직후에 진행된 베드로의 설교사건(2장)을 연이어 보도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도 존 스토틀의 평가의 정당함이 확증된다.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① 유대인 교회(2장)가 탄생될 때처럼 사마리아의 ② 사마리아인 교회(8장)와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서 ③ 이방인 교회(11장)가 각각 탄생되는데 있어서도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 J. Kistmarker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그

255)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The Israel of God)*, 159.

256) Campbell Morgan, *The Acts of Apostles* (Fleming H. Revell, 1924; Pickering & Inglis, 1946), 19,20.

257) John R. W. Stott, *땅끝까지(The Spirit Church World and the Message of Acts)*, 59.

258) I. Howard Marshall, *사도행전 신학(The Theology of ACTS)*, 류근상 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4), 433.

의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성장에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도록 하였다”고 한다.<sup>259)</sup> 그는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방세계에서 종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시대들 허락하여 주셨다”고 결론을 내린다.<sup>260)</sup>

여기서 우리는 그 세 교회의 탄생사건이 예수께서 시몬에게 게바/베드로/반석이 될 것이라는 말씀(요한복음 1:42)과 그들 반석 삼아 교회들 세우겠다는 말씀(마태복음 16:18)의 성취적 사건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취는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요, 또한 그 성취의 결과로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곧 메시아 왕국이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행한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다윗에 의하여 기록된 시편의 말씀들의 성취적 사건임을 밝혔다(2:23-35).<sup>261)</sup> 그리고 베드로는 그 왕국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손들로 제한시키지 않고, “모든 먼 데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3:39)이라고 보편화시켰다.<sup>3:39).</sup><sup>262)</sup> 그리고 베드로는 메시아의 복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것은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도 선포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선언한다(3:25).

스데반이 사울과 그의 동료들의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하늘 보좌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의 왕국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았는데, 특별히 그가 순교하는 순간에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다(7:55,56). 그리고 예수께서는 스데반을 핍박하였던 사울/바울을 그의 사도로 삼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직접 내려오신 후, 사울을 회심시키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주신다(9장). 때가 되매, 사울/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윗의 등극시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편 2:7)라는 말씀의 성취적 사건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야고보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하여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에 대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 즉 메시아 왕국이 유

259) Simon J. Kistmarker, *ACT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5), 300.

260) Ibid., 301

261) Simon J. Kistmarker, *ACTS*, 167.

262) David E. Holwerda, *예수와 이스라엘(Jesus and Israel)*, 류호영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249.

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세워지게 된 사건으로 이해하고 아모스 9:11,12의 말씀의 인용한다(15:16,17). David E. Holwerda는 야고보의 선언에 대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의 돌아옴은 곧 다윗 집과 그 나라의 회복이라고 선언한다. 그 회복에 있어서, 다윗의 왕국은 마치 아모스가 예언했던 것처럼 온 나라들을 포괄할 것이다. 놀랍게도 다윗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집과 그 나라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그 집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사무엘상 7:11-14). 다윗의 회복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이야말로 특수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 펼쳐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들의 전개이며, 이렇게 펼쳐지는 움직임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특수주의적인 경계선들을 부수고 깨트리는 것이다.<sup>263)</sup>

아모스 9:11,12와 같은 문맥 안의 구절인 15절에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고, 이사야 11장에서는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이 각각 나온다. 야고보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가운데 교회들 세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나 “고토”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의 성취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선언한 셈이다.<sup>264)</sup> 그 예언의 성취는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옴으로 이루어지는 문자적이고 특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된 그의 왕국, 즉 그의 교회에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이루어진다.<sup>265)</sup> 사도행전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가 옳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263) David E. Holwerda, *예수와 이스라엘*, 249.

264) 최종태, *예언자에게 물어라*, (서울: CLC, 1999) 399.

265) Ibid.

## 제 6 장

### 바울서신의 메시아왕국

메시아왕국에 대한 무천년론적 이해의 정당성은 바울 서신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증된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바울의 “주” 기독론과 예수의 등극식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 그 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부활의 첫째 열매”와 “둘째 열매”, “둘째 아담” 개념을 중심으로 무천년론적 이해를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절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들 그리스도라 믿고 선포하는 초대교회들 꺾박했다.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의 두 과업 - 메시아왕국을 세우는 일과 메시아성전을 짓는 일 - 을 수행한 자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예수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었던 나사렛 예수가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고 계시던 중, 그에게 특별히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 못박혀 죽임을 당하셨던 것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에게 회심 사건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는 소명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히브리어, 메시아)이시다”는 가장 초기의 기독교신앙의 고백에 기초하여 “그리스도”라는 칭호들 “예수”라는 고유 명사에 밀접하게 연결시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유 명사들 만들어 사용하였다.<sup>266)</sup> 바울 서신의 본문들 가운데 다메섹 사건이 직접 언급되었거나

266) 김세운, *바울 복음의 기원*, 172.



예시되고 있다고 입증된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본문들은 다음과 같다. 고린도후서 4:4-6; 5:16ff.; 갈라디아서 1:12; 에베소서 3:1-13; 빌립보서 3:3ff.; 골로새서 1:27.<sup>267)</sup>

## 제2절 바울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극과 통치

바울은 로마서 서문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다. 그것은 자신을 이사야가 예언한 이방의 빛을 가져다주는 여호와의 종에 기초한 것이다.<sup>268)</sup> 그는 자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며(로마서 1:1),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설명한다(로마서 1:1-2). 또한 그는 나단신약에 근거한 메시아는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라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sup>269)</sup>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결케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롬 1:3,4. 쉬운 성경).<sup>270)</sup>

나사렛 예수가 곧 나단 신약에 근거한 메시아라는 초대교회의 고백은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셨고, 그의 교회는 그 왕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개역 성경은 “능력으로”라고 번역하여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인정되었음을 강조하게 하였다. 그러나 쉬운 성경은 “능력 있는”이라고 번역하여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이 이미 되셔서 그의 왕권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다. Anthony A. Hoekema는 그의 책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로마서 1:1-3이야말로 성령과

267) 김세운, *바울 복음의 기원*, 168.

268) Tom Holland, *바울신학개요(Contours of Pauline Theology)*,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86-105.

269) 김세운, *바울 복음의 기원*, 212; 바울은 자기가 세우지 않는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그도 그 교회와 꼭 같은 공통된 믿음의 기반 위에 서 있음을 나타내기 그의 서신의 서두에 기존 해 있는 신앙고백문을 인용한다...

270) 아가페 출판사에서 출판한 ‘쉬운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sup>271)</sup>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으며, 또한 예수께서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된 그의 교회들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바울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들 그(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이라고 선언한다(골로새서 1:13). 그 왕국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흑암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이다(골로새서 1:18).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온 세상 모든 족속들 가운데 세워진 그의 교회들 지금도 다스리신다.

### 제3절 하나님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 묘사할 때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붙여졌던 술어들을 인용하여 사용한다.<sup>272)</sup> 그 실례들은 다음과 같다. ① 거룩한 백성(로마서 1:7; 고린도전서 1:2; 에베소서 1:1 등), ② 이면적인 유대인/ 참 할례당(로마서 2:28ff; 빌립보서 3:3), ③ 아브라함의 자손(로마서 4:11ff; 9:7ff; 갈라디아서 3:7-8, 29), ④ 선택자(로마서 9:33, 11:4f; 에베소서 1:4; 데살로니가전서 1:3f; 데살로니가후서 2:12-13), ⑤ 하나님의 성전(고린도전 3:16; 고린도후서 6:16), ⑥ 하나님의 이스라엘(갈라디아서 6:16), ⑦ 온 이스라엘(로마서 11:25). 위에서 ①-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일컫고 있음에 대하여 모든 학자들이 동의한 바이다. 그러나 ⑥ 갈라디아서 6:16의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⑦ 로마서 11:26의 “온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그 두 표현도 모두 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 지칭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1. 하나님의 이스라엘

세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이스라엘’(갈라디아서 6:16)은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들 중의 그리스도인들만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sup>273)</sup> 그들은 16절의

271)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종말론(The Bible and The Future)*, 92.

272) 이한수, *바울 신학 연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3), 192.

273) Robert Saucy,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The Church in God's Program)*, 95-98.

“이 ‘규례’를 행하는 자”의 ‘규례’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라고 단정한다.<sup>274)</sup> 그리고 16절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연결시켜 주는 “와”(kai.)가 동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 세대주의자들도 “와”(kai.)가 동격으로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칼빈은 그 ‘규례’를 교회의 일꾼 된 자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규율과 습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275)</sup>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유대 백성만을 지칭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나타난 바울의 전체 논종과 모순이 된다.<sup>276)</sup> 이한수는 “규례를 행하는 자”라는 의미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라는 수식어가 덧붙여진 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의”란 수식어가 덧붙여진 것은 분명히 참된 이스라엘과 거짓된 이스라엘을 구분하려는 바울의 의도를 엿보이게 만들며, 참된 이스라엘이란 개념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술어로 사용한 용례들은 이미 다른 바울서신의 구절들 중에서 발견된다(cf. 롬 2:25-29).<sup>277)</sup>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축원하기(갈라디아서 6:16) 직전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고 선언하였다(갈라디아서 6:15).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καὶνὴ κτίσις)는 고린도 후서 5:17의 “새로운 피조물”이다<sup>278)</sup>. 하나님의 새 창조들 통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갈라디아서 6:16).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탄생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274) Charles Caldwell Ryrie,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Dispensationalism's Today)*, 156-157.

275)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reprint, Grand Rapids: Eerdmans, 1948), 186.

276)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The Israel of God)*, 54.

277) 이한수, *갈라디아서* (서울: 선교넷북, 1997), 593.

278) 홍인규, *바울신학사색* (서울: 이레서원, 2007), 308. ; 홍인규는 우리 말 개역성경과 표준새번역이 “카이테 크티시스”를 “새 피조물로 번역한 것”(고후 5:17; 갈 6:15)에 대하여 “새 창조”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그 이유는 지금의 번역은 요한복음 3:3,5,7에서 언급된 새로운 탄생과 같은 개인적인 개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두 본문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새 창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KJV, NKJV, TEB, LB, NASB은 새로운 피조물(new creation)로 RSV, SRSV, NEB, REB, JB, NIV. ; 참조 R.P. Martin, *2 Corinthians* (WBC; WACO: Word Books, 1986, 152.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된다(갈라디아서 6:16). 여기서 갈라디아서 6:15,16과 고린도후서 5:17절을 비교하여 보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a new creation)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찌어다 (갈라디아서 6:15,16).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a new creation)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17,18)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이스라엘(갈라디아서 6:16)이 포함된 문맥(갈라디아서 5:19ff) 안에는 옛 세상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새 창조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손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만으로 국한될 수가 없고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 창조/피조물에 관하여 언급하기(고린도후서 5:17)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들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고린도후서 4:6)라고 소개하였다. 그렇다면, 왜 그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겠는가? 그 점에 대하여 김세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메섹도상에서의 자신의 기독교 경험을 전형적인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묘사하기 위해 종종 그의 다메섹 경험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6의 바울의 다메섹 경험에 관한 언급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sup>279)</sup>

새 창조의 주인공으로서의 “우리”라는 표현 속에는 이방인들이 절대 다수가 되어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이방인 성도들이나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바울의 “하나님의 이스라엘”(갈라디아서 6:16)이라

279)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17.

는 표현도 혈통이나 성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자체 안의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가 있다(3:16,28,29, 4:21-31).

## 2. 온 이스라엘(πᾶς Ἰσραὴλ)

구원 얻게 될 “온 이스라엘”(롬 11:26)은 누구인가? 크게 네 가지 해석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 해석들에 대하여 “메시아 왕국”과 관련하여 요약하여 보겠다.

첫째,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워지게 될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전체가 곧 “온 이스라엘”이다. 예수의 재림으로 세워지게 될 메시아 왕국은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을 “장차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백성의 ‘전체’로서 유대인들”이라고 명명한다.

둘째, 예수께서 초림하심으로 시작된 메시아 왕국이 완성 단계에서 큰 규모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 그 왕국의 백성들이 될 터인데, 그들이 곧 “온 이스라엘”이다. 그들의 구원은 유대인을 위한 전개될 전무후무한 구원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을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완성 단계에 그 백성이 될 대규모의 유대인들”이라고 명명한다.

셋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중의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들 전체가 곧 “온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여러 세기들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남은 자”들이 되어 구원 받게 된 것이다. 그들을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중 유대인들 전체”라고 명명한다.

넷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전체”가 “온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곧 여러 세기들 통하여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통합이다. 그들을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전체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고 명명한다.

여기서는 먼저 이 네 가지 해석을 ① 구원받을 대상, ② 구원의 시점, ③ 구원의 길, ④ 주장하는 학자들의 순서로 각각 간략하게 살펴본 후, 궁극적으로 네 번째 해석인 “온 이스라엘” =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전체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임을 논증하도록 하겠다.

가. 장차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백성 전체로서 유대인들

① 롬 11:26의 “온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전체가 되는 유대인들이다. ②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바 공중 재림하신 후 그의 교회들 이룬바 휴거시킨 다음이다.<sup>280)</sup> ③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새 언약에 따른 것이다<sup>281)</sup>. ④ 대표적인 학자들은 세대주의자들 전부이다.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던 메시아 왕국이 유대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고 주장한다.<sup>282)</sup> 그리하여 그들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사건을 성경 예언 성취적 사건으로 본다. 그러나 자칭 수정 세대주의자들과 자칭 진보적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건국된 이스라엘 국민들이 메시아와 올바른 관계들 맺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나라와 거리들 두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283)</sup> 그렇지만, 그들 역시 예수께서 메시아로 재림하시면 그 나라 국민들은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영원한 유업을 보장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의 전초적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ohn Hagee와 같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라고 강조하면서<sup>284)</sup>, 이 시대에 유대인들의 회심을 목표로 전도하는 자들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첫째는 유대인에게요...”(로마서 1:16)라는 말씀을 인

280) 김세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 2002), 190-195; 김세운은 “종말 신앙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소제목 하에, 예수의 재림 혹은 그의 오심을 나타내는 헬라어 ‘파루시아’와 그와 짝을 이루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헬라어 ‘아판테시스’의 당시의 용례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가운데 이 시대의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교회의 휴거 개념이 그릇되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당시 지체 높은 자가 통치하는 한 도시를 방문할 때, “파루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때에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성문을 열고 나가서 그를 영접해 모셔오는 것을 ‘아판테시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아 그의 왕국을 통치하시던 메시아 예수께서 그 왕국의 백성들을 찾아오시자(파루시아),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아판테스’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왕 되신 메시아 예수와 그의 백성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개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281)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언약에 대하여서는 “라. 기독교인들의 전체”에서 자세히 다룬다.

282) Craig A. Blaising and Darrell L. Bock, *하나님 나라와 언약*, 365.

283) Ibid., 361.

284) John Hagee, *예루살렘 최후의 새벽(Final Dawn Over Jerusalem)*, 154.

용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다”고까지 지적한다. 그 이유는 “첫째는 유대인에게 요’라는 바울의 말은 우선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순서일 뿐이다.”라고 하였다.<sup>285)</sup> 한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복음 전도할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sup>286)</sup>

나.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완성 시점에 그 백성이 될 유대인들

① 롬 11:26의 “온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이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무렵에 구원 받게 될 유대인들이다. ② 구원의 시점은 언젠가 이방인의 총만한 숫자가 메시아 왕국에 완전히 들어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완악함을 끝내고 구원을 받게 된다.<sup>287)</sup>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구원의 시점이 구체적으로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주장한다.<sup>288)</sup> ③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④ 대표적인 학자들은 John Murray, David Holwerda, John Stott, James Dunn, F.F. Bruce, 김세윤, 김지철 등이다.

그렇다면, 유대인을 위한 전무후무한 구원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때, 그들의 믿음을 유발시키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 주체가 교회 또는 교회의 일꾼 된 자들의 복음 선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재림하셔서 유대인을 위한 전무후무한 구원의 시대들 펼쳐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메섹의 바울처럼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구비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James Dunn은 “바울은 추측건대 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계시적 충격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들이 열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

285) John Hagee, *예루살렘 최후의 새벽*, 155.

286) John Stott, *로마서 강해(Romans)*, 405.

287) Seyoon Kim, *바울복음의 기원(The Origin of Paul's Gospel)*, 156.

288) David E. Howerda, *예수와 이스라엘(Jesus and Isreal)*, 237; 홀베르다는 캐제만(Kasemann)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는 시점을 예수의 재림이라고 해석하며, 그와 동의하는 자들의 그의 책에서 열거하고 있다고 한다. *Commentary on Romans*, 314. 그리고 칼 바르트(Karl Barth)와 마르쿠스 바르트(Markus Barth)도 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에 대한 본성과 정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sup>289)</sup> 김지철은 “바울은 그 영광의 주를 다메섹 도상에서 선취적으로 경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말에 가서야 경험할 것이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민족 개념으로서의 이스라엘과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동전적으로 일치되는 미래를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 안에서 투시하고 있다”고까지 설명한다.<sup>290)</sup>

다.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중 유대인들 전체

① 구원을 받게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곧 선택된 유대인의 전체, 즉 모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들의 종합이다<sup>291)</sup>. ② 그들이 구원 얻게 된 시점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이다. ③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로이드 존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바울이 종말이 이르기 전에 유대인 중의 다수가 주님께로 돌아 올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견해이다”라고 밝혔다. 필자가 볼 때, 그는 두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 같다.<sup>292)</sup> ④ 대표적인 학자들은 H. Bavinck, H. Hoeksema, L. Berkhof, H. Ridderbos, W. Hendriksen, R.C.H. Lenski, John Steck 등이다.<sup>293)</sup>

O. Palmer Robertson은 그의 유명한 논문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별된 미래가 있는가?”(1979년)에서 세 번째 해석인 “온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중 이방인들이 아닌 선택된 유대인들의 전체, 즉 모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구원 얻게 된 자들이라고 주장하였다.<sup>294)</sup> 그러나 그는 20여년이 지난 후 그의 책 *하나님의 이스라엘(The Israel of*

289) James Dunn, *Romans 9-16*, 683.

290) 김지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시온의 거침들에서 시온의 구원자로!” *신약신학저널* 8, 2002년 제 3권 1호(통권 제 8 호), 24.

291) James D.G. Dunn, *Romans 9-12*, 680.

292) Martyn Lloyd-Johnes, *교회와 종말에 일어날 일(The Church and The Last Things)*, 138.

293) Ibid., 120,121.

294) O. Palmer Robertson, “Is There a Distinctive Future for Ethnic Israel in Romans11?” in *Perspectives on Evangelical Theology*, ed. By Kenneth S. Kantzer and Stanley H. Gundry (Baker, Grand Rapids,1979), 209.



*God: Yesterday, Today and Tomorrow*)을 통해서 그의 이전 주장을 철회하고, “온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전체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 전체라고 새롭게 주장하였다.

라.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전체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① 구원 얻게 될 “온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전체이다.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기독교인 전체이다. ②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시점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이다. ③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④ 대표적인 학자들은 John Calvin, J.A.C. Van Leeuwen, D. Jacobs, Karl Barth, N. T. Wright<sup>295)</sup>, O. Palmer Robertson 등이다.<sup>296)</sup>

팔마 로버슨이 그의 이전 해석을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온 이스라엘”(11:26)의 반대 짝(counterpart)에 대한 새로운 발견 때문이었다. 그가 전에는 그 반대 짝을 “이방인의 총만 수”(11:25)라고 해석하여 왔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sup>297)</sup> 그렇다면 그 짝은 무엇인가? 그 짝에 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유대인을 위한 전무후무한 구원의 시대가 언젠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자.

#### (1) 유대인을 위한 전무후무한 구원의 시대

O. Palmer Robertson은 유대인을 위한 전무후무한 구원의 시대가 언젠가 있으리라는 해석의 그릇됨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로마서 11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현재” 계획을 다룬다는 증거이다. 또 하나는 로마서 11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미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한다고 생각되는 본문들이다.<sup>298)</sup> 필자는 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네 개

295) N. T. Wright, *The Climax of the Covenant: Christ and the Law in Paulin Theology* (Edinburgh: T&T Clark, 1991), 249-251.

296) William Hendriksen, *로마서(Romans)*, 황영철 역(서울: 아가페출판사, 1989), 118, 119.

297)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The Israel of God: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212.

의 소제목 하에 다루고자 한다: 편견과 오해(1절); 더러는(25절); 까지(25절); 그리하여(26절).

(가) 편견과 오해(1절)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로마서 11:26a)는 말씀의 성취의 때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가운데 유대인을 위한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가 “언젠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99)</sup> 그리고 그 “언젠가”는 예수께서 그의 초림으로 시작하신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때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O. Palmer Robertson에 따르면, 이들 모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으로 인하여 비성경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sup>300)</sup> 그들은 바울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로마서 11:1a)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관련하여 그들을 버리셨는가?”라는 의미로 고쳐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그럴 수 없느니라”(로마서 11:b)는 답이 곧 이스라엘을 위한 전무후무한 구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확증적 답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O. Palmer Robertson에 따르면, 바울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로마서 11:1a)라는 질문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더 과격한 질문이다.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목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 버리셨는가?”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sup>301)</sup> 그리고 바울은 그의 “그럴 수 없느니라”는 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바로 자신을 증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로마서 11:1c). 또한 바울은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7000 천명의 신실한 성도들을 남겨두셨듯이 그 자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그러나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로마서 11:5)라고

298)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 195-222.

299) David E. Howerda, *예수와 이스라엘(Jesus and Israel)*, 237; 홀베르다는 캐제만(Kasemann)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는 시점을 예수의 재림이라고 해석하며, 그와 동의하는 자들의 그의 책에서 열거하고 있다고 한다. Commentary on Romans, 314. 그리고 칼 바르트(Karl Barth)와 마르쿠스 바르트(Markus Barth)도 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300) O.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The Israel of God: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200.

301) Ibid., 200.

선언하였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한 이슈들 통해서 크게 두 가지들 주제를 다룬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구원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도록 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 두 주제에 대한 바른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담긴 비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 비밀을 이른바 그의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비밀을 로마교회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로마서 11:25).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바울이 그의 동족 유대인들 중의 “더러”(일부)가 완악함을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지 “전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또 다른 “더러”(일부)는 이른바 “남은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처럼 그리스도 예수들 믿어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생애 동안에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 받은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사역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의 열마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로마서 11:13,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그 당대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고, 그들을 위한 전무후한 구원의 역사가 언젠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나) 더러는(*ἀπὸ μέρους*, 25절)

유대인을 위한 전무후무한 구원의 시대가 언젠가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더러”라는 단어(*ἀπὸ μέρους*)가 ‘일부분(in part, NIV)’이 아니라 ‘당분간’이라는 시간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의 ‘더러는’”이 아니라 “‘당분간’ 이스라엘의 완악함이...”라고 주장한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당분간”이 다름 아닌 교회 시대라고 주장한다.<sup>302)</sup>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 시대들 끝내시고 유대인 시대들 시작하셔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 행위들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단어는 당분간이 아니라 우리말 개역 성경이나 여러 영어 성경에서처럼 “더러”(일부)라고 번역

302) O.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 205.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울이 이스라엘 안에 완악하게 되어 구원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더러’”에 대하여 “그들의 ‘넘어짐’”이나 “그들의 ‘실패’”라고 언급한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마서 11:12a)로 선언하였던 점을 통해서도 확증된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바울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구원 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더러”(일부)와 달리 이방인들의 구원 사건으로 인하여 시기심을 갖게 될 유대인들의 또 다른 “더러”(일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유발시킨다. John Stott는 바울은 생산적인 시기심을 상상하고 있다고 하였다.<sup>303)</sup> 그리고 바울은 그 시기심을 갖게 된 유대인들이 “완악하지 않아 구원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한 가운데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충만함’”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로마서 11:12b). O. Palmer Robertson은 “이스라엘의 ‘충만 수’는 유대인들이 현재 받아들여지고 계속해서 숫자가 불어나는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실현될 것이다...‘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가리킨다...이스라엘의 완성된 ‘남은 자’는 정확히 말해 이스라엘의 ‘충만’이다”고 하였다.<sup>304)</sup> 헨드릭슨은 바울이 완악하지 않아 구원 받게 될 “이스라엘의 더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처럼 “이스라엘의 충만함”(참조: 로마서 11:12)으로 발전될 것을 선언한 셈이라고 해석하였다.<sup>305)</sup>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마서 11:25)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의 “총 수”, 즉 예수 그리스도들 믿어 구원 얻게 될 자들의 “총 수”가 존재하게 될 것에 대하여 선언한 셈이다(로마서 11:12).<sup>306)</sup> 그리고 바울은 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책 수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총 수”가 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조록 시기케 하여 너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로마서 11: 13, 14)<sup>307)</sup>

303) John Stott, 로마서 강해, 393.

304) Ibid., 204.

305) William Hendriksen, 로마서 삼(Romans I), 100.

306) 로마서 11:12의 이방인의 “충만함”과 11:25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각각 헬라어 “플레 로마”로 같은 단어이다.

(다) 까지( $\alpha\chi\pi\iota$   $o\tilde{\upsilon}$ , 25절)

바울의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25절)라는 말씀 속에 “까지”( $\alpha\chi\pi\iota$   $o\tilde{\upsilon}$ )라는 단어가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겠는가? 존 스토틀는 “까지”라는 말이 일시적인 점을 강조하고, 그것은 다음 단계, 즉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26절 상)를 가져온다고 해석한다.<sup>308)</sup>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그치게 되고 전무후무한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유대인을 위하여 새롭게 펼쳐지는 그 시대는 더 이상 이방인의 시대가 아니고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시대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들처럼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오직 유대인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지는 않지만, “까지”라는 말이 귀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사용되었다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세대주의자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까지”라는 말은 출발점의 의미가 아니라 귀착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까지”는 단어가 출발점이 아니라 귀착점으로 사용되는 몇몇 성경구절들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

내가 이 도를 꺾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사도행전 22:4)

307)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갈라디아서 6:16)이라고 일컬기 직전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고 선언하였을 때(갈라디아서 6:15), 그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고린도 후서 5:17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sup>1)</sup>. 그리고 바울은 같은 문맥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 ...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린도후서 6:1-10).

308) John Stott, 로마서 강해(Romans), 402

여기서 “까지”가 가리키는 것은 바울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행위가 그들이 죽은 후에 그쳤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본문의 요지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를 궁극적인 지점, 최종적인 지점에 이르기 “까지” 하였다는 것이다.<sup>309)</sup>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 “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린도전서 11:26)

주의 만찬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가 아니다. 바울은 “까지”들 통해서 주의 만찬이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주의 죽으심에 대한 전파가 계속될 것을 강조한다.<sup>310)</sup>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주의 만찬에 참가하고 주의 죽으심을 계속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까지” 있을 것이라(갈라디아서 3:19)

바울은 율법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전 까지만 그 타당성과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과 효력이 상실되고 무효화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sup>311)</sup>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 “까지” 굳게 잡아라(계시록 2:24,25)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는 사단의 깊은 것을 좇지 않는 그들의 신앙태도를 말한다. 그들이 언제까지 그러한 신앙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바른 신앙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가

309)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The Israel of God: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208.

310) Ibid., 209.

311) 이한수, *갈라디아서*, 312-314.

도래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12)</sup>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sup>313)</sup>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마태복음 24:38)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먹고 마시지 않는 날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이 그들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이다.<sup>313)</sup>

저가 모든 원수들 그 발아래 둔 때<sup>314)</sup>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고린  
도전서 15:25)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했던 왕권을 온전히 수행하여 마  
지막 원수까지 정복할 것이다.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왕권을 계  
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난 후 그 왕권을 하나님께 반환하게 될 것  
이고, 그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의 관계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sup>314)</sup>

형제들아 ....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sup>315)</sup>까지 이스라엘  
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25)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날부터 이스라엘의 더러(일부)는 그 완악함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더러(일부)의 완악  
함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  
서 완악하게 되는 것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는 일은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된다는 점을 선언하였다. 위 말씀의 구약적 배경이 되는 이사야 6장의 경우에는 이스  
라엘의 굳어짐이 계속되더라도 “남은 자”만큼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사야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312) 이필찬, *내가 속히 오리라*, 104.

313) Ibid., 209.

314) 김세윤, *고린도전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7), 369.

그루터기니라”(6:13)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더러(일부)가 완악하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남은 자들”(“그루터기”)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이스라엘의 더러(일부)가 더 이상 완악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니다.

“까지”라는 말은 출발정보다는 결말이나 귀착점을 가리킨다. “까지”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위한 전무후무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재림의 날이 이르기 직전까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이방인의 총만한 수(11:25)나 이스라엘의 총만한 수(로마서 11:12에 암시됨)에 들어가게 되어 구원 받은 “온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 그리하여 (καὶ οὕτως)

“그리하여”(καὶ οὕτως)를 “그 후에”라는 시간적 의미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다.<sup>315)</sup>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 시대가 전개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말이 된다. 또한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대인이 되도록 한다든지, 유대인과의 결혼으로 많은 후손들을 갖도록 하는 일도 유대인 구원을 위한 전초적 일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리하여”(καὶ οὕτως)로 해석되는 이 단어들 시간적 의미들 지닌 “그리고 그 후에”로 번역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 205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 시간적 의미들 지닌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 그 단어는 “그리고 그 후에”가 아니라 “그리하여” 또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로 등으로 번역되어야 한다.<sup>316)</sup> 바울은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후에 장차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진행 중인 환상적인 구원의 과

315)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The Israel of God: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210.

316) Ibid., 211.



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하여 O. Palmer Robertso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로마서 11장 이 전 구절에 표현된 패턴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패턴은 이렇다. 맨 먼저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메시아가 오셨다. 그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밀스런 계획대로 그들의 메시아를 저버렸고 그들의 특권적인 지위에서 잘려나갔다. 그 결과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졌다. 그 후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찾음으로써 얻지 못한 것을 만국은 믿음으로 얻었다. 자기들의 메시아 왕국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쌓이는 것을 보고 낙담한 유대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시기심이 발동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믿어 원래 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카이 후토스), 즉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는 지점“까지” 현 시대 내내 계속 될 이와 같은 환상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sup>317)</sup>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후에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장차 도래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총만한 수와 유대인의 총만한 수가 동 시대에 각각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메시아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동일한 주인공인 “온 이스라엘”이 된다.

## (2) 이방인의 총만한 수(πλήρωμα)의 반대 짝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을 위한 전무후무한 독특한 구원의 역사가 장차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의 치명적인 단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어느 특별한 시점이나 시대가 아닌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아 “온 이스라엘”에 포함될 자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견해가 있다.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세 번째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온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의 일부인 유대인들이라는 것이다.<sup>318)</sup> 다른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네 번째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온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전체가 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라는 것이다.

317)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 212.

318) 로마서 11:32의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라는 주장은 세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비세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 비세대주의자들은 다음과 같다. John Murray, John Stot, F.F. Bruce, S. Volbeda, H. Bavinck, H. Ridderbos: John Stot, *로마서 강해(The Message of Romans)*, 403 참조.

O. Palmer Robertson에 따르면, “온 이스라엘”을 유대인들만으로 국한시키는 자들에게 대 전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울이 “온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총만한 수”와 대조적으로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총만한 수”(πλήρωμα)의 반대 짝(counterpart)이라는 것이다.<sup>319)</sup> 그러나 바울은 “온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총만한 수”의 반대 짝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11:25b)는 문장 속에 암시되어 있다. 그 반대 짝은 “완악하게 되지 않은 (그리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더러(일부)’”(11:25b)이다. 이스라엘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① “완악하게 되어 구원받지 못한 그룹”과 ② “완악하게 되지 않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룹”이다. 바울의 한결같은 주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하여 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하나님의 작정은 역사 안에서 계속 작용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례들을 제시한다.

- ①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이다(9:7-9).
- ②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9:10-13).
- ③ 토기장이가 귀히 쓰임 받는 그릇과 천히 쓰임 받는 그릇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이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천히 쓰임 받는 그릇인 것이 아니다(9:20-24).
- ④ 호세아의 글에도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과 부르심을 받지 못한 유대인이 있다.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있다(9:25,26).
- ⑤ 선지자 이사야에 따르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있다(9:27-29).
- ⑥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 명”이 있었다(11:2-4).

우리는 25절의 “이스라엘의 ‘(ἀπὸ μέρους)’”가 “이스라엘의 ‘당분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더러’(일부)’임을 확증하기 위하여, 바울이 12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의 완악함으로 구원 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달리 “완악하지 않은 (그리하여

319)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 212.

구원 받게 될)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충만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점(로마서 11:12b)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은 곧 그 “유대인들의 충만함”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마서 11:25)가 함께 모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의 “충 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될 자들의 “충 수”가 존재하게 될 것에 대하여 선언한 것과도 같다고 하였다. 마침내 바울은 그 “충 수”의 주인공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25절)는 선언을 통하여 밝힌다. 그 “충 수”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온 이스라엘”이다.

바울의 “이스라엘의 충만함”(12절에서 암시)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25절에서 선언)가 각각 구원을 받아 “온 이스라엘”(25절)이 될 것이라는 선언은 그의 개인적인 기대나 소원 정도가 아니라 그가 터득한 하나님의 비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이다(로마서 11:25).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하여 로마 교회가 모르면 안 되고 꼭 알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로마서 11:25a). 바울이 터득하였고 로마교회가 꼭 알아야 할 비밀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 즉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에 대한 것이다. 바울이 “온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의 반대 짝이 아닌 들어가는 곳으로 언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는 말씀이 있다.<sup>320)</sup>

또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찌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로마서 11:17).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받았다(롬 11:17).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인 단일 줄기에 합류한 덧붙여진 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믿는 이방인 공동체는 이스라엘인 감람나무의 양분이 풍부한 뿌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συγκοινωνός)가 되었다(롬 11:17).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sup>321)</sup>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들 접붙이는 통상적인 접붙임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근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참

320)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 218.

321) Ibid., 218.

감람나무에 몰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와 일체가 되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의 줄기가 되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속한 단 하나의 감람나무밖에 없다.<sup>322)</sup>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온 이스라엘”의 일부가 된 것이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똑같은 메시지를 접하게 된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시민에서 제외되었다(에베소서 2:12).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후사가 되었다”(에베소 3:6).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나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συμμέτοχα)가 되었다(에베소서 3:6).<sup>323)</sup>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러한 “온 이스라엘”은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의 백성 “전체”가 된다고 선언하였다. 바울은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약성경을 인용한다.<sup>324)</sup>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들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롬11:26,27) 그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① 구원자의 오심의 출처가 시온이다. ② 구원자가 하시는 일은 야곱의 죄악을 용서하는 것이다. ③ 시온에서 오신 구원자로 인하여 야곱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세 가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구원자의 오심의 출처가 시온에서 온다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는 구절은 70인역 이사야 59:20에서 인용한 글이다.<sup>325)</sup> 그러나

322) John Stott, *로마서 강해(Romans)*, 405.

323)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The Israel of God: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218.

324) William Hendriksen, *로마서하(Romans II)*, 122; 헨드릭슨은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구약의 어떤 하나의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구절, 이를테면, 이사야 59:20; 27:9; 59:21을 그런 순서로 숨쉴 있게 엮어 놓은 것이며, 미가서 5:2(혹은 유사구절)과 예레미야 31:31 이하와 같은 구절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였다.

325) LXX(70인 번역) 이사야 59:20과 로마서 11:26과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부분이 발견된다. 로마서 11:26 ἔξει ἐκ Σιών ὁ ῥυόμενος, ἀποστρέψει δόξαις ἀπὸ Τακώβ(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LXX 사 59:20 ἔξει ἐνεκεν Σιών ὁ ῥυόμενος καὶ ἀποστρέψει δόξαις ἀπὸ Τακώβ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70인역은 “시온을 위하여”(for the sake of)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어는 “시온에”(to Zion)로 되어 있는데 바울은 “시온에서”(out of Zion)라고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헨드릭슨에 따르면,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옳다. 왜냐하면, 실제로 구원자는 “시온에”, 그리고 “시온을 위하여”, 즉 시온을 구원하려고 왔고, 또한 그의 인생을 따르면 “시온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종상은 “바울이 그렇게 바꾸었던 것은 ‘아마도 구원자가 유일하고도 특별하게 유대인을 위해서 온다는 개념의 토대를 그가 무너뜨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sup>326)</sup> 그리고 그는 그 이상의 것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바울이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며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이 먼저 유익을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 밖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갈 것이라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sup>327)</sup> 그의 해석은 로마서 11:26b에서 인용된 본문 바로 앞 구절(이사야 59:19<sup>328)</sup>)이 세계선교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음을 통하여 확증된다.<sup>329)</sup> 김지철은 바울이 그렇게 바꾼 것은 예수의 재림을 뜻하는 기독교론적 함의가 들어 있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하여 불순종하였지만, 재림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sup>330)</sup>

바울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사”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구원자의 오심이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해석과 재림이라는 두 가지의 해석으로 크게 나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David Holwerda는 오늘날 수많은 해석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sup>331)</sup> 김지철<sup>332)</sup>과 James Dunn<sup>333)</sup>도 재림으로

326) Daniel Jong-Sang Chae, *이방인의 사도가 쓴 로마서(Paul as Apostle to the Gentiles)*, (서울: 아가페 출판사, 2003), 297.

327) Ibid., 297.

328) “서방에서 영화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이사야 59:19)

329) 그러나 샌더스는 바울이 그렇게 바꾼 것이 이방인 선교와 무관하다고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Sanders, *Jewish People*, 194. Daniel Jong-Sang Chae, *이방인의 사도가 쓴 로마서(Paul as Apostle to the Gentiles)* 297에서 재인용.

330) Ibid., 123; 김지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시온의 거침돌에서 시온의 구원자로!” 23.

331) David E. Howerda, *예수와 이스라엘(Jesus and Isreal)*, 237; 홀베르다는 캐제만(Kasemann)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는 시점을 예수의 재림이라고 해석하며, 그와 동의하는자들의 그의 책에서 열거하고 있다고 한다. Commentary on Romans, 314. 그리고 칼 바르트(Karl Barth)와 마르쿠스 바르트(Markus Barth)도 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332) 김지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시온의 거침돌에서 시온의 구원자로!” 24.

각각 해석하였다. 그러나 헨드릭슨은 구원자가 “하늘로 좇아 강림하사”(살전 4:16)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겠지만, “시온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초림이라고 해석한다.<sup>334)</sup> 존 스토틀는 비록 유대인을 위한 전무후무한 구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은 이사가 원본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초림이라고 해석한다고 주장한다.<sup>335)</sup>

초림이라는 해석과 재림이라는 해석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은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와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제 5 장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의 메시아 왕국에 따르면 예수님의 초림사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재림사건은 그의 초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복음 선포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초림을 염두에 두고 인용하였다고 헨드릭슨이나 스토틀처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구원자가 와서 하는 일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몰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야곱”과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는 자들은 구원자의 사역의 대상인 “야곱”/이스라엘과 “그들”을 야곱/이스라엘의 후손들로 국한시킨다.<sup>336)</sup>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11:26)고 하였을 때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미 파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도 “야곱”이라는 말을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한정시켜 이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바울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 묘사할 때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붙여졌던 여러 술어들을 끌어다가 사용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예전대,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로마서 4:11ff; 9:7ff; 갈라디아서 3:7-8, 29)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예견되었기 때문

333) James Dunn, *Romans 9-16*, 682, 683.

334) Ibid., 28-29.

335) John Stott, *로마서 강해(Romans)*, 405.

336)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는 자들은 고넬료의 환상을 보기 전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만도 못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환상을 보기 훨씬 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약성경 예언의 성취의 주인공인 것을 깨닫고 이미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다(로마서 4:11ff; 9:7ff; 갈라디아서 3:7-8,29).<sup>337)</sup>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면서 인용된 말씀 속에 언급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참 이스라엘임을 깨달을 수가 있겠다. 바울은 “이스라엘인/유대인/할례당”이라는 단어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확장시켜 사용하는 가운데 메시아왕국의 백성들이 혈통적 유대인들로 국한되지 않음을 선언하기도 하였다(로마서 2:28ff; 빌립보서 3:3). 유대인들인지 아닌지 시금석이 되는 육체적 할례마저도 중요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라는 것이다.

셋째, 시온에서 오신 구원자로 인하여 야곱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 언약은 어떤 것인가? 세대주의자들은 메시아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시작될 메시아 왕국 시대에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손들에게 유효하게 될 언약이라 이해한다. 점진적 세대주의자 크레이그 블레이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로마서 11:26-27에서 인용된 언약이 언급하는 언약(사 59:20-21)은 분명코 약속의 땅에서의 유업을 포함하는 민족적인 구원의 완전한 축복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사야서의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은 종말론적 왕국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이 높아질 것을 예언(사 60장)하며, 바로 그 구절은 요한계시록 21-22장에 기록된 요한의 환상에 영향을 주었다. 새 언약은 다른 언약에 표현된 이 같은 민족적인 소망을 재확증했다. (롬 11:29).<sup>338)</sup>

이른바 “두 언약 신학”에 기초하여 구원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sup>339)</sup> 하나는 예수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혜택을 받아 구원 받은 길이고(고린도전서 11:25),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와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

337) 이한수, *갈라디아서*, 200.

338) Craig A. Blazing & Darrell L. Bock, *점진적 세대주의(Progressive Representative)*, 365.

339) John Stott, *로마서 강해(Romans)*, 405.

즉 그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 전체인 “온 이스라엘”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임을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하늘 보좌에 앉아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셔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불러 그의 사도로 삼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 그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더러(일부)는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더러(일부)는 완고케 하심으로 그 구원의 혜택이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완고케 된 이스라엘의 더러(일부)가 시기가 나게 하여 그들도 구원 얻게 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는 이방인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구원 받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방인의 총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총만한 수가 각각 구원을 받아 메시아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서 “온 이스라엘”이 형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체득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인 것이다. 그리고 로마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비밀인 것이다.<sup>340)</sup>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적어도 절대 다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과는 구별된 전무후무한 종말론적 구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기대는 로마서 11:28-32 말씀에 종종 기초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11-29)는 그들의 주장을 재확증해 주는 말씀이라고 주장한다.<sup>341)</sup> 그러나 헨드릭슨은 그 ‘은사’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들”(그루터기)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그 부르심도 내적인 혹은 유효한 부르심, 즉 “남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한다.<sup>342)</sup>

340) Seyoon Kim, *바울신학과 새 관점(Paul and the New Perspective)*, 384

341) Craig A. Blazing & Darrell L. Bock, *점진적 세대주의(Progressive Representative)*, 365.

342) William Hendriksen, *로마서 하(Romans II)*, 125.



바울은 그가 터득한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동시에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셨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현 시대에 실현되고 있다고 선언하기 위하여 그 살아 있는 증거로서 자신을 제시하고 있다(로마서 11:1).<sup>343)</sup>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출범한 메시아 왕국 시대, 즉 교회 시대임을 “이제”라는 표현을 세 차례에 걸쳐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제”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sup>344)</sup>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로마서 11:30-31).

위 본문에서 “너희”는 이방인이고, “저희”는 유대인이다. 그 둘이 순종치 아니하는 때도, “이제”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되는 때도 다름 아닌 “이제”이다. 데이비드 홀베르다는 “이제”가 이미 진행 중인 구원 과정을 가리키는 반면에, 이 표현은 바울의 이상을 현재적 순간으로 제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방 세계와 유대 이스라엘 세계에 대한 종말론적인 충만함이 있는데, 이 충만함은 절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sup>345)</sup> 그러나 헨드릭슨은 바울이 “이제”라는 말은 반복하여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혹은 재림 직전에 발생할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세워졌던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성취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sup>346)</sup>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343)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The Israel of God: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198.

344) David E. Holwerda, 239; David Howerda은 “이제”라는 문구가 원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간의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늘날 본문 비평가들은 이 문구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삽입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마 원형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Cf. Nestle-Aland, *Novum Testament Graece*, 26th ed.; and Bruce M. Metzger,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71), 527. 그리고 우리 말 개역 성경에는 “이제”(now)가 없지만, NIV등에는 있다.

345) David E. Holwerda, *예수와 이스라엘(Jesus and Israel)*, 240.

346) William Hendriksen, *로마서해(Romans II)*, 126.

하심이로다.”(로마서 11:32)라고 선언하는 가운데 그 둘, 즉 “너희”(이방인들)와 “저희”(유대인들)를 “모든 사람”이라고 일컫는다. 팔마 로버슨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불순종의 상태에서 공훈의 상태로 이동하는 전체 패턴은 현 시대에 발생하는 것이다”고 하였다.<sup>347)</sup> 바울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롬11: 26a)의 선언 속에 언급된 “온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모두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임이 틀림이 없다.

#### 제4절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처럼 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영적 죽음 개념과 영적 부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로마서 6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말씀을 반복하며 선포하고 있다. 로마서 6:1-11에 “함께”라는 전치사가 5회나 등장한다.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고 하였을 때, 그 죽음과 부활은 각각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 그 점에 대하여 홍창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이 그리스도 편에서는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언급하지만 이 땅의 성도들 편에서는 성도들의 영적 부활을 의미한다.<sup>348)</sup>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2:4-5에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증거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에베소서 2:5a)라는 말씀을 곧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에베소서 2:5b)라는 뜻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개혁주의 신학자 게할더스 보스는 에베소서 2:4-5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신자들의 영적 부활”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들

347)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The Israel of God: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202.

348) 홍창표, *천년왕국*, 270.

선포하기도 하였다.<sup>349)</sup>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들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에베소서 4:18)라고 하였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골로새서 3:1-3을 실행으로 들면서, 사도 바울이 거듭남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활’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관점에서 골로새서 3:1-3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음이니라(골로새서 3:1-3).

그리고 골로새서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의 교회에 속하는 자들도 그를 뒤따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골로새서 3:1)라고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에베소서 2:6)라고 하였다. 로이드 존스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과 같이 그들(그리스도인들)의 영혼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음을 본다고 설교하였다.<sup>350)</sup>

#### 제5절 부활의 첫 열매와 둘째 열매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의 열한 제자들을 비롯하여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증거하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

349) Gerhardus Vos,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은혜와 영광(The Kingdom of God, Church, Grace & Glory)*,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297.

350) Martyn Lloyd-Jones, *교회와 종말에 일어난 일들(The Church And The Last Things)*, 271.

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린도전서 15:8)라는 증거들 통해서, 다름 아닌 바로 그 자신이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증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곧 부활의 둘째 열매들이 될 것이라는 증거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표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바울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사실도 내포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초림했을 때이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들이 부활의 둘째 열매들로서 나타나게 될 때는 언제일까? 그에 대한 답을 다음 구절에서 찾아보자.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요, 그 뒤에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폐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고린도전서 15:22-24).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들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51)

부활의 둘째 열매들이 맏히게 될 때는 곧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류의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요, 그 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인류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은 최후 심판을 위한 부활이다. 요한복음 5:29에 따르면, 그 심판의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 곧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 곧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최후 심판의 때, 부활의 첫 열매되신 예수께 속한 자들이 “부활의 둘째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둘째 열매들”이라는 표현이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개념을 통하여 “부활의 둘째 열매들”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부활의 둘째 열매들은 요한복음 5장에서 언급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요한계

시록 20-21장에서 암시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며,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곧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컫는 용어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사용한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들의 부활을 일컫는 용어이다. 그리고 제 3장에서 요한복음 5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을 기초로 하여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로서 광의적으로는 성도들의 거듭남과 중생, 그리고 그 후 계속되는 삶과 죽음 후에 그 영혼들이 하늘보좌에 앉는 것까지를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성도들이 죽은 다음 그 영혼들이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부활의 첫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첫째 부활”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의 둘째 열매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둘째 부활”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겠는가? 그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물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는 언급되지 않았고, 그 문맥 속에 암시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둘째”의 개념을 “마지막”, 또는 “새로운”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둘째 열매”라는 용어도 언급되지 않았고, 암시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둘째”라는 표현을 “새로운”이라는 뜻 보다는 “마지막” 또는 “나중”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sup>351)</sup>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있다. 첫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의 제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며(고린도전서 15:1-34), 둘째 단락은 부활의 몸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고린도전서 15:35-58).<sup>352)</sup>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활, 즉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둘째 열매들로서의 예수께 속한 자들의 부활은 곧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둘째 열매로서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난다는 것과, 그 재림으로 인하여 인류의 종말이 뒤따라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351) Vern S. Poythress, *요한계시록 백잡기(The Returning King)*, 200.

352) Charles Hodge, *고린도전서*, 김영배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5), 425.

있다(고린도전서 15:24).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곧 최후 심판의 날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이른바 전천년설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sup>353)</sup> 왜냐하면,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신자들만이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천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불신자들의 몸의 부활과 함께 최후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결된다고 증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대적하던 모든 자들을 최종 심판하시고, 메시아로서 그동안 통치하여 왔던 그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되기 때문이다(고린도전서 15:24).

#### 제6절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일컬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 언급되었거나 암시되었던 첫째와 둘째(마지막, 새로운)라는 표현이 바울에 의하여 같은 원리로 사용되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고린도전서 11:1).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이 궁극적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들 둘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아담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의 교회, 즉 둘째 아담적(아담과 같은) 인간들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단 한 번의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그와 더불어 죄를 범하게 되었다. 성경의 아담은 원죄를 지었고, 그 후손들에게 이른바 ‘원죄’를 전가하여 주었다.<sup>354)</sup> 아담과 그리스도가 각각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 화(죽음)와 복(생명)이 임했다(고린도전 15장).<sup>355)</sup> 바울은 아담이 우리의 머리

353) Charles Hodge, *고린도전서*, 450.

354) Anothony A. Hoemkma, *개혁주의 종말론(The Bible and The Future)*, 241-242.

요, 대표자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로마서 5:14-18에서도 증거하고 있다.<sup>356)</sup> 바울은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부른다(고린도전 1:14). 김세윤은 바울 사도가 첫 사람 아담을 타락한 인류의 머리로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들 새로 구속받을 인류의 머리로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의 후손 전체를 자기 자신 안에 통합시켜 조상(Stamvater)의 견지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유대적 사고방식과 함께,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바울은 옛 인류 “아담 안에” 있는 것으로, 그와 결속됨으로 그의 죄와 사망을 공유하는 것으로(고린도전서15:22) 인식하고, 각각 타락한 옛 인류의 머리와 새로이 구속된 인류의 머리를 포함하는 “아담-마지막 아담”(로마서5:12-19; 고린도전서 15:21-22) 간의 대조를 발전시키게 되었다.<sup>357)</sup>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아담이 일찍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들 첫 사람 아담과 대조하는 가운데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일컬게 되었다.<sup>358)</sup> 신약에서는 바울만이 그리스도들 하나님의 형상 혹은 모양으로 지칭한다(고린도후서 4:4; 골로새서 1:15; 빌립보서 2:6).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들 하나님의 형상 또는 모양으로 보는 독특한 그리스도관, 즉 형상-기독론을 갖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바울의 형상-기독론이 그의 아담-기독론의 근원이라는 김세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통찰을 가지고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들 아담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창세기 1:25-26). 하나님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부활은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들 종말의 아담, 곧 마지막 아담(고린도전서 15:45)으로 인식하고, 그의 독특한 (첫) 아담-마지막 아담 예표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로마서 5:12-21; 고린도전서 15:21-22; 42:49; 아마도 또한 빌립보서 2:6-11)...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아담-기독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들 기본적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단언하

355) Anothony A. Hoemkma, *개혁신학의 종말론*, 250.

356) 박희석, *안식일과 주일*, (서울: 새순출판사, 2002), 118.

357) 김세윤, *바울신학과 새 관점*, 339.

358)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 219-442.

며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성을 확인하는 것이다.<sup>359)</sup>

김세훈은 바울의 형상-기독론이 그의 아담-기독론의 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담-기독론은 변화-구원론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sup>360)</sup> 덤브렐도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와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1:26에 나오는 인간의 완전한 전형이 되심을 강조한다.<sup>361)</sup>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첫 아담과의 결속에서 벗어나 마지막 아담과 결속함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아담 곧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한 첫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한 마지막 아담이라는 개념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바울로 하여금 구원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혹은 그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화 한다"는 견지에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로마서 8:29; 고린도전서 15:49; 고린도후서 3:18).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서"와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는 말로 그의 독특한 "변화"-구원론을 표현할 때(빌립보서 3:20-21),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시고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눈에 그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준다. 그는 고린도전서 15:42-54에서도 똑 같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는 이 "영광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낮은 몸"을 "육의 몸"이라고 부르며, 종말론적 구원을 우리가 첫 아담 곧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과 "육의 몸"을 떠나, 마지막 아담 곧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과 "신령한 몸"을 획득하는("지니는" 혹은 "입는") 것이라는 각도에서 설명한다. 이로부터 어떻게 아담-구원론 혹은 변화-구원론이 "옛사람을 벗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골로새서 3:9-10; 참고, 에베소 4:22-24) 것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는지를 보기란 어렵지 않다.<sup>362)</sup>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 첫 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되어 아담의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곧 둘째/마지막/새로운 아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변화되어, 즉 첫째 아담적(아담과 같은) 인간에서 둘째/마지막/새로운 아담적(아담과 같

359) 김세훈, *바울신학과 새 관점*, 280.

360) Ibid., 309.

361) William J. Dumbrell, *새 언약과 새 창조(New Covenant and New Creation)* 장세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220.

362) Ibid., 280-281.



은) 인간이 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 회복이 곧 이스라엘의 궁극적이고 진정한 회복이다.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 즉 둘째(마지막, 또는 새로운) 아담적 인간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고 메시아 성전이다.

## 제 7 장

## 결 론

하나님께서서는 메시아에게 두 가지 과업을 맡겨 주셨다.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 성전을 짓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독교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다. 이 중 세대주의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은 분명하지만, 메시아의 두 과업은 아직 완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업의 완성은 예수의 재림 후에 예루살렘 중심의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혈통적 후손들인 유대인들만을 상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세대주의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들 예루살렘 중심적이 되게 하고, 친 이스라엘 성향을 갖게 하며,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되도록 한다. 심지어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공개적으로 친 이스라엘적인 정치집단임을 자처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차별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 또한 다른 세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성전 터 위에 세워진 이슬람의 두 사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메시아의 성전과 메시아 왕국의 보좌가 각각 세워지게 될 것이며, 그 성전과 그 왕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와 국민들이 언젠가 메시아의 과업성취를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의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정치운동들과 선교운동들이 메시아 왕국과 성전에 대한 세대주의적 이해를 기초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운동들은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에게서 시작이 되었다. 특히 이런 운동들은 미국의 여러 대통령의 친 이스라엘 정책에 반영이 되었고, 최근에는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공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교회의 선교동원가들이 세대주의적 선교운동들을 이끌고 있다. 세대주의적

선교운동들은 다음과 같다: Ebenezer Emergency Fund<sup>363</sup>(EEF); The Voices United for Israel; Jerusalem Prayer Team(JPT); Christian Coalition for U.S.A; Christians United for Israel<sup>364</sup>(CUFI); 미국 남침례(SBC) 총회의 JPT 지지; 실크로드 예수 행진 2000; 예루살렘 평화 행진; 아프가니스탄 2006 평화축제; 복음의 서진 운동; 백투예루살렘 운동 등. 이런 선교운동들은 이슬람권에서 소위 땅밟기 또는 축사<sup>363</sup>), 그리고 교회의 대형 집회 등을 통해 일종의 “시위식” 운동으로 연계되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에 기인한다.

세대주의적 선교운동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성전과 다윗의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의 두 개의 사원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의 두 개의 사원의 주인들이라 할 수 있는 13억 이슬람교도들을 향하여 선포포고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9.11. 테러를 주도하였다고 자처하는 오사마 빈 라덴은 그 테러를 수행하기 약 2년 반 전에 그를 포함한 5명의 이름으로 “유대인과 십자군에 대한 성전을 촉구하는 세계 이슬람 전선 선언문(Jihad Against Jews and Crusaders/ World Islamic Fro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 속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슬람의 지하드인 성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의 선교는 중동과 이슬람권에서 평화를 진작시키기 보다는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슬람권의 교회 지도자들과 여러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 중에 메시아 왕국과 성전에 대한 세대주의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이슬람권에서의 바람직한 선교전략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온주의자들의 친구도 아니고 친 이스라엘적인 집단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슬람권과 온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권의 교회와 이슬람권 선교에 동참하는 세계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 성전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를 구비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되겠다.

메시아 왕국과 성전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를 위해 본 논문의 4장에서는 메시

363)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7), 368.

아 왕국에 대한 세대주의적 이해의 기초가 되고 있는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연구를 했다. 이 본문에 소개된 천년을 기초로 한 이른바 천년왕국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다. 천년왕국에 대한 세대주의적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세대주의적 이해가 그릇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천년왕국/메시아왕국에 대한 네 가지 이해들, 즉 역사적 천천년설, 세대적 천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살펴보았다.

이 중 이른바 무천년설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이다. 메시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개혁주의적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곧 메시아 왕국이요 메시아 성전이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놀랍게도 그 교회들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주의적 선교운동은 예루살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중심적인 것이다.

본 연구자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무천년설적, 즉 개혁주의적 이해가 옳음을 증명하였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시몬을 게바가 될 것이라고 하시고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일컫고, 자신을 곧 인자라고 일컫는 가운데 그가 곧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과 게바와 나다나엘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 그 왕국의 백성, 곧 “참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선포하신다(요한복음 1:45-51).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두 가지 종류의 죽음과 부활의 증언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무천년설적 이해가 옳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의 왕의 예표적 인물이었던 다윗처럼 예수께서도 세 번에 걸쳐 등극식을 거행하셨음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등극식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두 번째 등극식은 변화산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늘에서 내려 온 모세와 엘리야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세 번째 등극식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시작되어 그가 부활하시고 마침내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렇게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시어 그의 교회들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의 교회가 곧 메시아 왕국이요 메시아 성전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해한 예수 그

리스도의 등극식과 그 통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로마서 1:2,3). 예수께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장차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극하셔서 그의 왕국을 통치하고 계신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며(갈 6:15), “온 이스라엘”(롬 11:26a)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의 교회가 곧 “부활의 둘째 열매들”이라고 추론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곧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요 5장)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계 20-21장에서 암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요한 계시록 21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둘째/마지막/새로운 아담”,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일컬고 그의 교회가 “그 형상을 닮거나” “그 형상으로 화한다”고 하였던 점을 기초로 하여, 그의 교회들 둘째(마지막, 또는 새로운) 아담적(아담과 같은) 인간들이라고 일컬어 보았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둘째 아담이라고 하였던 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자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손들만이 아니라 전 인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였던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이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요, 메시아 왕국의 건립이요, 메시아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것이다. 그 회복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완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해 이 회복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속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회복의 주인공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 즉 새 예루살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가 곧 그 왕국의 백성들이 되어 바로 참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들 중심에 두지 않고 혈통적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중심에 두는 세대주의적 신학과 그 신학에 기초한 여러 선교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혁주의적 기독교에 따르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이며 그 성취의 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이다. 그러나 세대주의적 기독교에 따르면, 이 성취의 주인공은 야곱의 혈통적

후손들이며, 그 성취의 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제한된다. 다시 말해 개혁주의적 기독교가 새 예루살렘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세대주의적 기독교는 예루살렘 중심적이고 이스라엘과 그 혈통적 후손들 중심적이다.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는 새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로 거듭나야하고, 예루살렘 중심적 선교운동들이 새 예루살렘 중심적 선교운동들로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세대주의적 이해의 차원에서 벗어나 개혁주의 이해를 온전히 구비함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본 논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들 위한 한 몫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국내서적

- 공일주. *아브라함의 종교*. 서울: 살림, 2004.
- 김세윤. *교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7.
- \_\_\_\_\_.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 2002.
-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 \_\_\_\_\_.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2001.
- 김지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시온의 거침물에서 시온의 구원자로!" *신약신학저널*, 2002년 제3권 1호(통권 제8호), 7-44 pages.
- 박희석. *안식일과 주일*. 서울: 새순출판사, 2002.
- 유상섭. *설교를 돕는 분석 요한복음*. 서울: 규장문화사, 1999.
- 이필찬. *내가 속히 오리라*. 서울: 이레서원, 2006.
- \_\_\_\_\_.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2.
- 이한수. *갈라디아서*. 서울: 선교햇불, 1997.
- \_\_\_\_\_. *바울신학연구*. 서울: 홍신대학출판부, 1993.
- 최바울. *백투예루살렘*. 서울: 펴내기, 2005.
- 최영길. *이슬람 문화*. 서울: 도서출판 알림, 1999.
- \_\_\_\_\_.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사우디아라비아: 피아드 국왕 꾸란 출판청, 1999.
- 최종태. *예언자에게 물어라*. 서울: CLC, 1999.
- 홍인규. *바울신학사색*. 서울: 이레서원, 2007.
- 홍창표. *천년왕국*. 서울: 합신대출판부, 2007.

### 2. 번역서적

- Bauckham, Richard. *예언의 절정 I*. 최홍진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2.
- Beasley-Murray, G. R. *요한복음*.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01.

- Beyerhaus, Peter Paul. *그가 보내신 말씀*. 이동주 역. 서울: CLC, 2008.
- Blaising, Craig A. & Bock, L. Darrell. *하나님 나라와 언약*. 곽철호 역. 서울: CLC, 2005.
- Bruce, F F. *바울*.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 \_\_\_\_\_. *요한복음*. 서문강 역.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2000.
- \_\_\_\_\_. *예수의 난해한 말씀들*. 정명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8.
- Calvin, John. *요한복음*. 칼빈성경주석편찬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8.
- Chae, Daniel Jong-Sang. *이방인의 사도가 쓴 로마서*. 서울: 아가페 출판사, 2003.
- Craigie, Peter C. *시편 1-50*.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0..
- Dumbrell, William J. *새 언약과 새 창조*. 장세훈 역. 서울: CLC, 2003.
- \_\_\_\_\_. *언약신학과 종말론*. 정세훈 역. 서울: CLC, 2000.
- Gabriel, Mark A. *기독교 vs 이슬람*. 김명신 역. 서울: 등크, 2005.
- Gentile, Earnest B. *최후의 승리*. 이혜숙 역. 서울: 세복, 2001.
- Grier, W.J. *재림과 천년왕국*. 명종남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7.
- Groningen, Gerard Van. *구약의 메시아 사상*. 유재원, 료호준 역. 서울: CLC, 1997.
- Guthrie, Donald. *메시아 예수*. 정광욱 역. 서울: 서울: 아카페 출판사, 1989.
- Hagee, John. *예루살렘 최후의 새벽*. 홍원팔 역. 서울: 비전북출판사, 2002.
- Hendriksen, William. *요한계시록*. 김영익, 문영탁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3.
- \_\_\_\_\_. *요한복음(상)*. 문창수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3.
- \_\_\_\_\_. *말세론*. 정충하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78.
- Hoekema, Anthony. *개혁주의 종말론*. 유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 \_\_\_\_\_.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Hodge, Charles. *교린도전서*. 김영배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5.
- Holwerda, David. *예수와 이스라엘*. 류호영 역. 서울: CLC, 1993.
- Holland, Tom. *바울신학개요*.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 2004.
- Huges, Philip. E. *요한계시록*.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4.
- Intrater, Keith. *그 날이 속히 오리다*. KIBI 역. 서울: 두란노 2004.
- Kim, Seyoon. *바울 복음의 기원*. 홍성희 역. 서울: 엠마오.



- \_\_\_\_\_. 그 '사람의 아들'(人子) - 하나님의 아들. 서울: 엠마오, 1992.
- \_\_\_\_\_. 바울신학과 새 관점. 정옥배 역. 서울: 두란노, 2002..
- Larkin, Clarence. *세대적 진리*. 서울: 말씀보존학회, 1997.
- Lewis, Bernad. *중동의 역사*. 이희수 역. 서울: 까치, 1995.
- Lloyd-Jones, Martyn. *교회와 종말에 일어난 일들*. 장광수 역. 서울: CLC 2000.
- Marshall, I. Howard. *사도행전 신학*. 류근상 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4.
- Mocucarry, Chawkat.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 한국이슬람연구소 역.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3.
- Pate, C. M.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4가지 견해*. 이세구 역. 서울: 아가페, 1999.
- Poythress, Vern S. *요한계시록 맥잡기*. 유상섭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2
- Robertson, Palmer.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광만 역. 서울: 그리심, 2002.
- Ryrie, Charles Caldwell.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 정병은 역. 서울: 진도출판사, 1966.
- Sauer, Bal J. *평신도들 위한 종말론*. 정홍렬 역. 서울: 나눔서원, 1994.
- Sparkman, Gorden J. *개혁주의 신학*. 류호준, 심재승 역. 서울: CLC, 2002.
- Sawer, Bal J. *평신도들 위한 종말론*. 정홍렬 역. 서울: 나눔서원, 1994.
- Stott, John. *로마서 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1994.
- \_\_\_\_\_. *땅끝까지 이르러*. 정옥배 역. 서울: IVP, 1992.
- Vos, Gerhardus.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은혜와 영광*. 원광연 역. 서울: CLC, 1998.
- Wenham, Goredn J. *창세기1-15*.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2000.
- Woodberry, J. Dudley. "테러리즘과 이슬람." *KMQ 겨울호*, 2002.

### 3. 외국서적

- Adam, Jay. *The Time Is at Hand*. Nutley,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0.
- Aune, D. *Revelation*. Dallas. Texas: Word Books, 1997.
- Bauckham, Richard. *The Climax of Prophecy*. Edinburgh: T& T Clark, 1999.
- \_\_\_\_\_.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Beasley-Murray, George R. *Genesis*.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8.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9.
- Berkhof, Hendrikus. *Christ the Meaning of History*. Richmond: John Knox, 1966.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7.
- Berkouwer, G. C. *The Return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72.
-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Grand Rapids: Eerdmans, 1948.
- Carson, D. A., Wessell, Walter W. & Liefeld, Walter L. *Matthew, Mark, Luk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ume 8*. Grand Rapids: Jondervan, 1984.
- Chapman, Colin. *Whose Holy City?* Grand Rapids: Baker, 2005.
- Clouse, Robert G. *The Meaning of Millennialism*. Downers Grove: Inter Varsity
- Domke, David. *God Willing?: Political Fundamentalism in the White House, "the War on Terror," and the Echoing Press*. London: Pluto Press, 2004.
- Harms, Gregory. *The Palestine Israel Conflict*. London: Pluto Press, 2005.
- Hoekma, Anthony.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1976.
- Machen, J. Gresham. *The Origin of Paul's Religion*. New York: Macmillan, 1928, 1947.
- Marshall, I. Howard.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78.
- Morris, Leon. *The Revelation of St.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1.
- Ridderbos, Herman N.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5.
- Saucy, Robert. *The Church in God's Program*. Chicago: Moody Press, 1972.
- Victor, Barabara. *The Last Crusade*. London: Constable & Robinson Publishing, 2005.
- Walvoord, John F. *The Return of the Lord*. Grand Rapids: Eerdmans, 1960.

#### 4. 기타자료들

기독신문.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70>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70>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

크리스찬 저널. [http://www.kcj777.com/print\\_paper.cgi?action=print\\_paper&number](http://www.kcj777.com/print_paper.cgi?action=print_paper&number)

KIBI 한이성경연구소(KIBI Korea Israel Bible Institute).

<http://www.kibi.or.kr/board/view.do?iboardgroupseq=2&iboardmanagerseq=6>

Back To Jerusalem. <http://www.backtojerusalem.com>.

Christian Coaliton of America. <http://www.cc.org>.

Christian Zionism. [http://www.zionism-israel.com/dic/Christian\\_Zionism.htm](http://www.zionism-israel.com/dic/Christian_Zionism.htm).

CNN Politics.com. <http://www.cnn.com/2008/POLITICS/05/22/mccain.hagee/>

Federaration of Ameriacn Scientist.

<http://www.fas.org/irp/world/par/docs/98023-fatwa.htm>

Jerusalem Prayer Team. <http://www.jerusalemprayerteam.org>

The New York Times. <http://query.nytimes.com/gst/fullpage>.

Union for Reform Judaism /<http://urj.org/Articles/index.cfm?id=19553>

Wikipedia Free Ec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John\\_Hagee](http://en.wikipedia.org/wiki/John_Hagee).

[http://simple.wikipedia.org/wiki/Arab\\_Christians](http://simple.wikipedia.org/wiki/Arab_Christians).

Vita of  
Hyung Nam Chung

Present Position:

Missionary of Global Mission Society in Jordan and Lecturer of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in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December 17, 1957
Marital Status:	Married to Eun Sook Kim with two sons and a daughter
Home Address:	P.O. Box 2586, Amman 11821, Jordan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October 5, 1988

Education:

B. A.	Han 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1984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7
Th. M.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ACTS), Yangpyung, Korea, 2005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8

Personal Experience:

2004 to present	Missionary of Global Mission Society in Amman Jordan
2000 to present	Lecturer of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Korea
2000 to present	General Director of Middle East Team (MET), Korea.
1993 to 1999	Missionary of Global Mission Society and Lecturer of Jordan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Amman, Jordan
1989 to 1992	Missionary of Global Mission Society and Senior Pastor of Korean Church, Bahrain
1987 to 1989	Assistance Pastor of Cheoahn Presbyterian Church, Cheoan, Korea